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 〈긴급작품구입〉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
〈긴급작품구입〉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 〈긴급작품구입〉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

기간 : 2021.4.9. ~ 2021.12.12.

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천년길 갤러리

내용 :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 긴급작품구입
사업을 통해 구입한 작품 203점
총 4회차 특별 기획전 작품 전작 도록

사업개요

1. 2020 -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긴급작품구입〉
2. 2021 - 코로나19 치유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 :
'생태, 평화, 도시 그리고 인간' - 총 4회

주최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

대표이사 인사말

경기문화재단은 전지구적 팬데믹이 휩쓸고간 2020년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를 통해서 문화예술계의 위기극복을 위한 하나의 해법으로 전업예술인을 위한 긴급작품 구입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작가 203점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서양화, 한국화, 사진, 판화, 조각, 공예, 미디어아트 등 거의 모든 장르의 작품 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경기미술컬렉션은 2021년에도 지속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의 위축된 활동을 격려하고자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와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아 경기천년길 갤러리에서 특별전을 총 4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더불어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등 다양한 만남의 공간에서 미술작품 순회 전시를 통해 곳곳에서 ‘소소한 일상의 감동’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거친 삶에 무뎠던 우리에게 문득, 기대하지 않던 감동을 건네주기에, 경기문화재단의 키워드를 '감동'으로 삼고, 경기도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도내 곳곳에서 경기미술컬렉션 전시가 코로나19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경기도 전업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2021.11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 현**

코로나19 극복과 동행의 예술

전인미
전시기획자

2020년에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19로 경기도 예술인 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피해가 큰 경기도 전업 예술인을 대상으로 생계비 긴급 지원을 위한 작품구입 공모를 추진하였다. 경기도의 미술인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경기도 전업 예술인을 위한 ‘긴급 작품구입’ 공모를 통하여 작품을 수집하였다. 이 컬렉션은 특정한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거의 모든 장르의 작품들을 수집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집한 작품은 회화 104점, 한국화 31점, 사진 21점, 드로잉과 판화 12점, 공예 7점, 조각 19점, 서예 2점, 미디어아트 7점 등 203점에 달한다.

‘코로나19 경기아트 컬렉션’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이를 함께 이겨나가고, 어려운 시대를 함께 꾸려나가지는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다. 이 컬렉션은 2020년이라는 한 시점의 경기미술을 다양한 관점에서 일별해볼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각각의 작품 한 점 한 점에는 2020년이라는 시간의 단면을 통하여 경기도의 자연과 도시 그리고 경기도 사람들 삶의 면면이 담겨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곧 경제적 위기로 나타났고, 예술가들의 형편 또한 매우 어려운 시기였지만, 경기도의 ‘긴급 작품구입’ 사업으로 숨통을 틔 수가 있었고, 그러한 위기극복의 노력은 203점의 컬렉션으로 오롯이 남아있다.

<코로나19 치유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은 이러한 극복과 동행의 정신이 들어있다. 코로나19 경기아트 컬렉션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위기를 도민과 함께 극복하려는 뜻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한 이 전시는 동시대 경기도 예술의 단면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기획 전시는 생태, 평화, 도시, 인간의 소주제를 가지고 총 4부작으로 나누어 2021년 4월, 6월, 9월, 11월에 각각 전시가 이뤄졌다. 4부작의 네 가지 주제는 자연과 인간의 삶,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해주는 구조로서의 사회의 모습을 담았다.

미술가들이 다루는 주제들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자연과 인간이지만, 자연으로부터 생태와 평화의 모습을 배우고, 도시의 구조와 인간의 삶 또한 자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각각의 주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 인간의 삶 또한 생태와 평화, 도시의 구조 속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다. 따라서 네 개의 전시들은 상호 유기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담아낸 것이다. 4부작의 전시 제목은 다음과 같다.

- 1부. 자연과 인간을 잇는 생태예술
- 2부. 생명의 존엄을 받드는 예술과 평화의 길
- 3부. 도시, 예술과 문화가 일상이 되는 공간
- 4부. 인간 이해, 예술이 추구해온 궁극의 문제

2020년 한 해 동안 경기도의 공공재원으로 마련한 203점의 이 컬렉션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시간대에 경기도 미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수집정책의 결과이며, 한 해에 100점을 상회하기 어려운 공공미술관의 컬렉션과 달리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예술을 파악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먼 훗날 후세대들이 이 컬렉션의 기본 정신과 작품 하나하나의 가치와 의미를 새기면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인류사적인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따뜻하게 동행해온 아름다운 뜻을 함께 새길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지구와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민 모두가 커다란 고통 속에서 2020년 한 해를 보냈고, 그 여파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현생 인류가 제대로 만나보지 못한 대재앙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집단지성의 힘으로 대안을 찾아내고자 했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마주 잡고 위기의 강을 건너왔다.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그리고 경기도의 미술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씨앗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온 이 컬렉션과 전시가 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

아티스트

강보경	김남용	김은숙	무진형제	박신용	백승관	안준섭	이미숙	이재명	임승천	정정엽	최재훈
강유림	김동철	김일해	문소현	박아일	백은하	양경렬	이미진	이재욱	임정은	정창균	최정주
강유정	김명진	김자연	문수만	박영균	백진기	양유연	이민	이정민	임철민	조문희	최지현
강주리	김문경	김잔디	문인환	박용남	서기환	양지훈	이보람	이정용	전명은	조병완	최혜경
고우리	김민영	김재홍	민성홍	박용일	서소형	양지희	이봉임	이정태	전미숙	조해영	최혜란
고재욱	김보중	김주익	민재영	박은영	서수경	양홍수	이부강	이정희	전병구	조현선	최홍선
고현	김선	김지아나	박경률	박재연	성지연	오재우	이상민	이준영	전은진	조현익	추경
구나영	김성건	김진숙	박경묵	박정우	성필하	왕열	이상엽	이지연	전진경	주세균	한진
구민자	김성수	김진우	박노을	박주영	선팍	원정희	이수형	이진용	정미정	진기중	한칭&모나
권오신	김수철	김창영	박미경	박지수	소수빈	유둘	이시	이진주	정보영	진영	호상근
권혜경	김시영	김춘재	박미라	박지현	송지연	유지희	이언정	이채영	정시영	진영근	홍기원
기술기	김시하	김태동	박민규	박형진	송필	유혜경	이운구	이한정	정은희	차승언	홍이현숙
김경원	김시현	김태현	박방영	박혜수	신동원	윤선홍	이윤숙	이현지	정인완	최경아	홍진희
김규태	김아라	김현주	박불뚱	반미령	신선주	이경미	이윤정	이혜성	정일순	최선주	황경현
김규학	김영경	김현철	박석민	방병상	심정수	이경희	이윤호	임선이	정재은	최수진	황연주
김근배	김영구	김효숙	박선영	방수연	안경진	이계월	이은	임소담	정재철	최승애	황혜인
김나영&그레고리마스	김영은	남영화	박승예	배성미	안예환	이나영	이인경	임수식	정재호	최윤희	



나의 그림 그리기는 자연의 형태에 대한 경외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자연의 외적인 형태에서 자의적 해석과 같은 감각, 욕구, 열정, 성찰을 품은 내면의 형태로 바뀌며 자연을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품고 있다는 인식의 시작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엮이고 풀어지는 리듬의 반복 속에서 형태에 대한 생성과 질서는 삶의 과정과 닮아 있다. 그림을 그리고 지우고 닦는 수많은 창작의 과정은 성찰의 의미가 깊게 배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행위가 중첩되어 구성하는 한없이 순수한 자유의 세계이며, 나에게 그림 그리기는 현실적 자아를 초월하여 절대적 자아를 만나게 하는 매체이기도 한 것이다.



나의 작업 속에는 그녀들만의 휴식 공간을 이미지로 남긴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상처받는 마음, 덕지덕지 몸에 붙어 기생하는 삶의 무게들, 그리고 생각의 불균형을 자연 속에서 치유받길 원한다. 그곳에는 수줍고 조심스럽게 자신만의 쉼터가 자리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부서져 버릴 듯 지치고 연약한 모습의 그녀들을 누군가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있다.

강유정

서양화

밤의 형상들 I
72.5×91.0cm
Oil on Canva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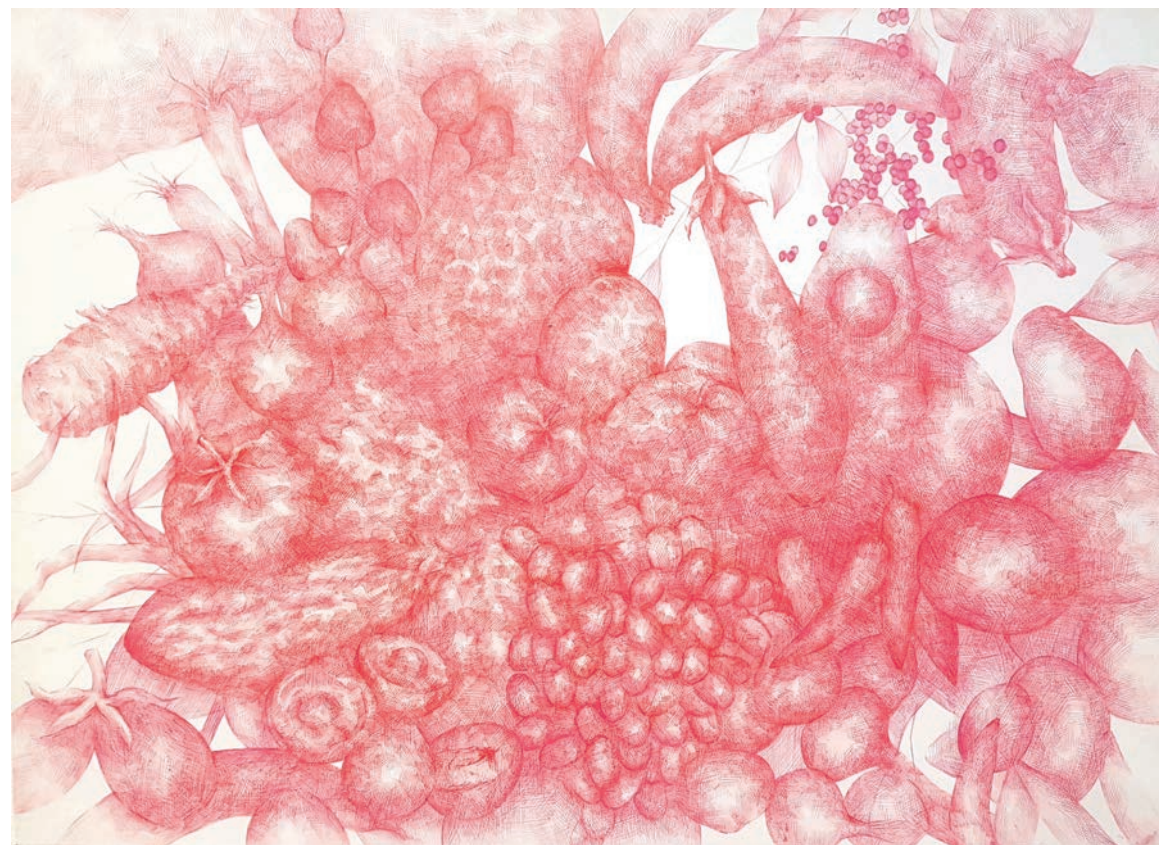


홀로 걷는 길은 고요하고 충만하며 때론 고독하다. 한참 걷다 보면 흐르는 물에 잘게 부서지는 빛,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꽃과 검게 우거진 버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다. 빛과 어두움이 빚어낸 밤의 형상들은 선명하고도 흐릿하게 드러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그리고는 차츰 어제보다 조금 더 차오른 달, 피어오른 꽃봉오리를 발견하곤 계절이 깊어 가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풍경이 홀로 밤을 보내며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보며, 나 또한 홀로 가는 밤의 시간 속에서의 변화와 충만함을 기대하게 된다.

Secret Garden #3
53.0×73.0cm
Pen on Canvas
2018

강주리

서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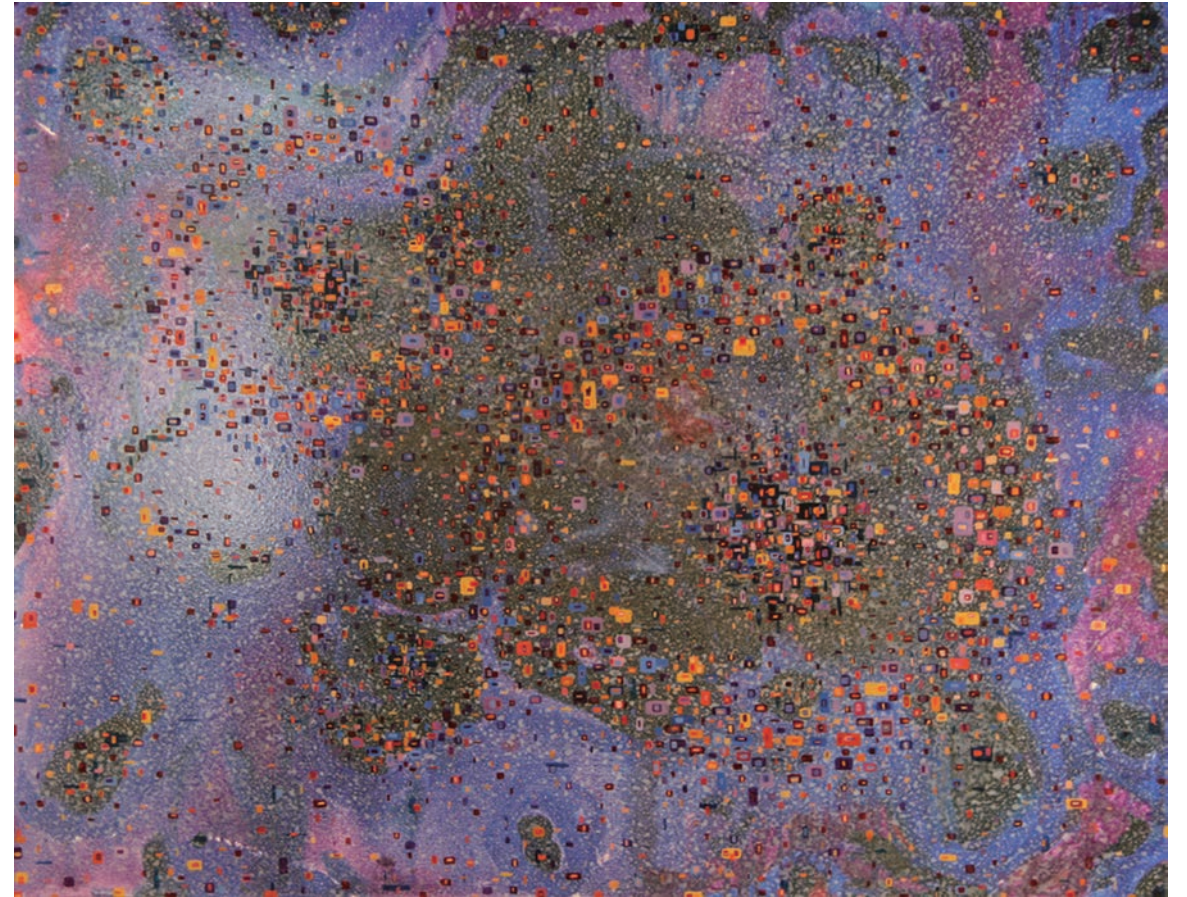


강주리 작가는 소묘의 크로스 해칭cross-hatching기법으로 그림을 그린다. 연필대신 펜을, 연필선의 그라데이션 대신 펜의 색을 사용한다. 해칭 기법이란, 연필선을 몇 가닥씩 지그재그로 그어서 다양한 길이의 선의 수량과 밀도로서 음영의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다. 입체감 표현이나 음영을 나타내는데 있어 크로스 해칭이란 이를 짧은 단선을 교차선으로 겹쳐 입체감을 내 표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강주리 작업에 의안화는 보여지지만, 사람은 나타나지 않는다. 동물, 식물, 벌레, 과일 등이 보여지지만 그 대상들은 혼성화된 세계의 공모나 이중교배로 연루된 존재들이거나 과정태에 포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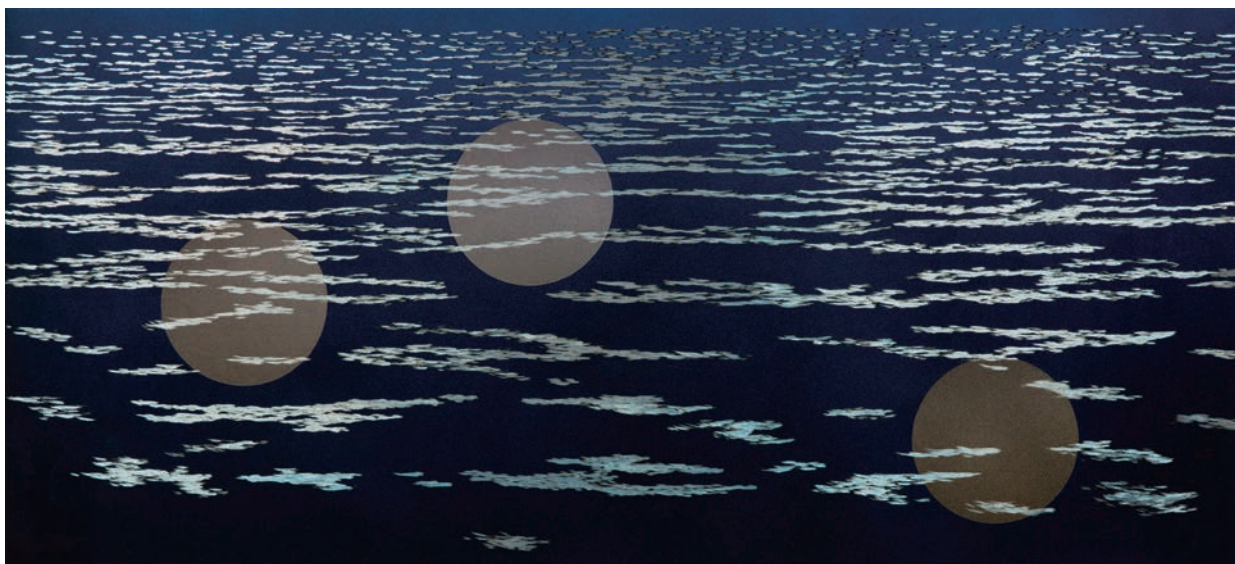
최재원 <Strange Fruit> 중 발췌



감정 중 상대성을 가진 양가감정은 두 가지의 상호 대립 되거나 모순되는 감정이 공존하는 상태이다. 내부와 외부가 대립 되어있는 감정은 공존하지만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접점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겉(Exterior)과 속(Inside)의 경계(Border)에 틈(Crack)을 만들어 일상 속 수없이 일어나는 양가감정의 대립을 곱씹고 가라앉히며, 개인의 감정의 접점을 찾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본 작업의 핵심이다.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관객은 경계에 대한 자각으로 본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어디까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다.



가장 평면 회화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실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한없이 평면에 가까운 이미지인 컴퓨터 스크린 세이버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모니터에 잔상이 남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스크린 세이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두께를 가지지 않으며, 굉장히 실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를 평면 회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되어 움직임을 잃었으며, 물감의 두께를 가지게 되었고, 기능 또한 사라진 추상회화처럼 보이게 되었다.



나는 금속의 피부 위에 직접 이미지를 새긴다. 그것은 일종의 저부조 작업이자 음각으로 이루어진 판화, 그리고 금속 표면에 새기고 물감을 부어 일루전을 만드는 회화이기도 하다. 나에게 이 물질은 개인적인 상처와 연관된다. 소멸에 대한 슬픔과 상처 속에서 문득 햇살을 받아 날카롭게 반짝이는 금속을 보았다. 매우 공격적이고 냉정하게 다가온 금속 앞에서 인간의 감정과 무관하게 자존하고 있는 저 물질을 다시 생각해 본 것이다. 차가운 금속은 빛을 받으면서 눈부시게 발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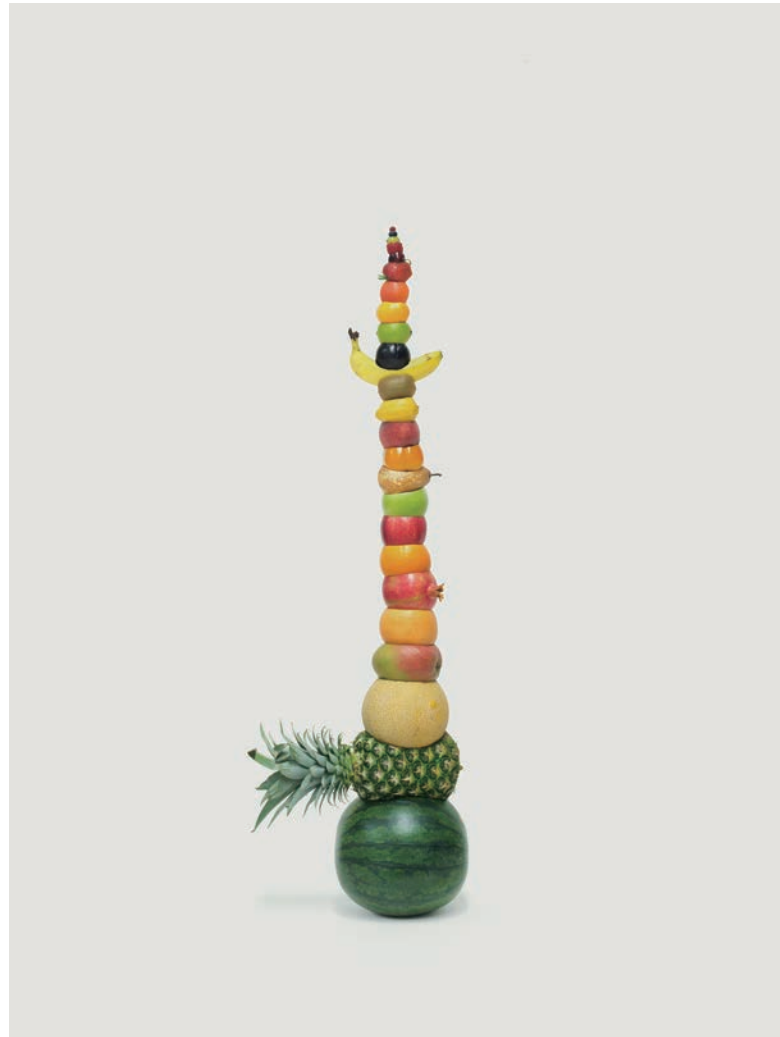


삶 속에서의 희로애락의 감정과 일상에서 받은 영감들을 나무와 숲에 빚대어, 특유의 서정적인 감성과 수묵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감이 떠오르면 한지 위에 먹과 붓으로 숨 고르듯 호흡하며 그려낸다. 섬세한 먹선을 무수히 긋고 연결하여 나뭇가지를 그리다 보면,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며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자유로운 붓터치의 패턴들과 세밀한 패턴들이 화폭안에 어우러지며, 맑고 투명한 숲에는 치유의 시간과 공존의 희망이 작품 안에 스며든다. 내재되어 있던 감정과 기억들이 오버랩 되고, 모든 빛깔은 먹빛에 담겨 켜켜이 쌓이고 녹아 들어 숲이 되어 흐른다.

구민자

사진

타워
120×90.0cm
디지털 프린트
2016



타워 시리즈는 2016년 4월, 당시 체류하고 있던 장소인 벨기에 겐트의 슈퍼마켓 5군데에서 구할 수 있었던 모든 과일들의 종류들을 모아, 그 크기 순서대로 탑의 형태로 쌓아 사진으로 촬영한 작업이다. 각 과일들은,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모로코, 칠레, 브라질, 베트남 등 세계의 여러 곳에서 재배되어 그 장소(겐트의 각 슈퍼마켓들)로 배달되어 오는 과정을 겪은 것이다. 그 중에는 로컬 상품도 있고, 정부의정책 혹은 인기에 따라 재배된 특정 종류의 과일도 있고(예를 들어 '컨퍼런스'라는 종류의 배)역사적으로 특정 장소들에서 재배되게끔 하는 과정을 통해 재배되는 과일들도 있고(예를 들어 썬키스트 바나나 및 오렌지 류의 플렌테이션 농업을 통한 것들), 등등 다양한 역사와 상황들을 통해 특정 장소에서 특정방식으로 재배되고 운

반되고 판매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모아진 과일들은 거의 대부분의 나라, 대도시의 마트를 둘러본다면 큰 차이가 없을 그런 조합들일 것이다. 이 과일들이 마트에 놓여진 모양과 그 재배의 역사와 현상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치 어디있는 과일이든 이젠 별다른 장벽 없이 어디서든 즐길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산업 선전물을 보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이 과일탑-타워-는 마치 성서의 바벨탑처럼, 어딘가 다다를 수 없는 곳을 다다르고자 했던 욕심이 실현된 것과도 같은 마트-친화적인 세계화의 식문화화를 나타내는 것 같다. 어릴 적 보기 힘든 과일이었던 바나나 혹은 오렌지, 파인애플 같은 것들이 이제는 사계절내내 거의 어느 대형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된 것 말이다.

Memory Machine no.4
70.0×50.0cm
렌티큘러
2019



나는 파편화된 기억 속 이미지를 가지고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파편화된 기억 속 이미지들은 나의 작품에 있어 재료가 되며, 현실과 비현실, 현재와 과거, 실상과 허상의 사이에서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현재의 나와 만나 무의식 속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lenticular 작품인 MEMORYMACHINE 작품 속 이미지들은 작품을 보고 있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이미지가 변화하며, 이는 나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기억은 실상과 같이 정확하게 기억되고 있다고 단정 짓고 있지만, 결국에는MEMORY MACHINE 속 이미지와 같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권오신

서양화



작품 'VORSICHT'는 독일어로 '주의'라는 뜻이며 독일에서 판매하는 포장용 테이프에 적힌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하였다. 작가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귀국 당시 짐을 포장할 때 사용했던 상자가 귀국 후 시간이지나도 잦은 이사로 인해 정리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회화로 표현했으며 일반 관람객들은 보기 힘든 작가와 작품 그리고 작업실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가의 보이지 않는 고독한 삶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였다.



주된 것과 부차적인 것의 관점이 뒤바뀐다는 의미의 _Sub/Ob-Jecf(두산갤러리, 2017)전시에 선보였던 Black and White 작품이다. 사진이라는 2차원적인 특징을 빼 놓고라도 흰색 배경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의 대비로 그 모습은 평면적으로 재현되었다. 또한 단순한 평면의 틀 안에서 평면과 공간, 허상과 실상, 낯섦과 친숙함, 전체와 일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느껴봄직한 새삼스런 꺼리를 던지고 있다.



우유를 생산해 주는 젖소를 같은 방향 같은 포즈로 몰 개성화 시키고 반복시켜 표현하였다. 반복적 표현은 그들이 키워지는 생산체제와도 맞닿아 있는 듯하다. 젖소를 기계적으로 반복시킴으로써 공장화 된 시스템을 비판하고 나아가 다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대상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노동을 투여하여 대상이 모두 다 같지 않고 미세한 차이를 갖도록 하였다.

이 작품을 통하여 현대 사회 속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개개인의 존재의 가치를 잃지 않기를 희망해 본다.



동으로 붉은 발색을 만든 진사백자 오브제이며 꼭지는 적동을 단조하여 만들었다. 제목인 사과는 사유(思果) 하는 과일 또는 결실이 다. 한없이 빠져드는 붉은 색으로 사유의 깊이를 넓혀 본다.



마치 빛 바랜 스냅사진 같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친숙한 느낌, 내가 어릴 적 살던 달동네와 흡사한 모습이다. 달동네라고 하지만 그 때는 사람 사는 곳은 다 비슷했으니까... 개발과 현대화에 밀려서 추억의 한 자락으로 밀려났지만 지금도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르는 소중한 어릴 적 추억인 것이다. 물고기가 다 자라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마친가 지인 듯하다. 기억속에 간직된 어릴 적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뛰놀던 동네 길목, 집 앞의 오래된 고목나무, 함께 놀던 또래 아이들... 어렵게 살았던 기억이지만 다시 그 시절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이제는 나이가 든 탓인 듯싶다. 삶의 지나온 흔적이 마음속 그리움으로 다가서니....



김근배 작가는 인간의 인생을 긴 여정이라고 이야기한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비도 만나고 눈도 만나고 때론 꽃길도 걸어갈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 되돌아본 어린 시절의 기억, 아빠가 되어 어린 아들이 만들어가는 기억들이 너무나 많아 있고, 사랑스럽다. 작가는 그런 본인의 이야기를 소박하게 작품으로 표현한다. 삶의 지혜를 가득 담은 백과사전 위의 정의로운 로봇은 고단한 삶이지만 묵묵하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다. 수레 안에 가득한 꽃다발은 풍요롭고 아름답다. 지금 작가는 어른들의 동화를 쓰고 있다.

김나영 &
그레고리 마스
드로잉&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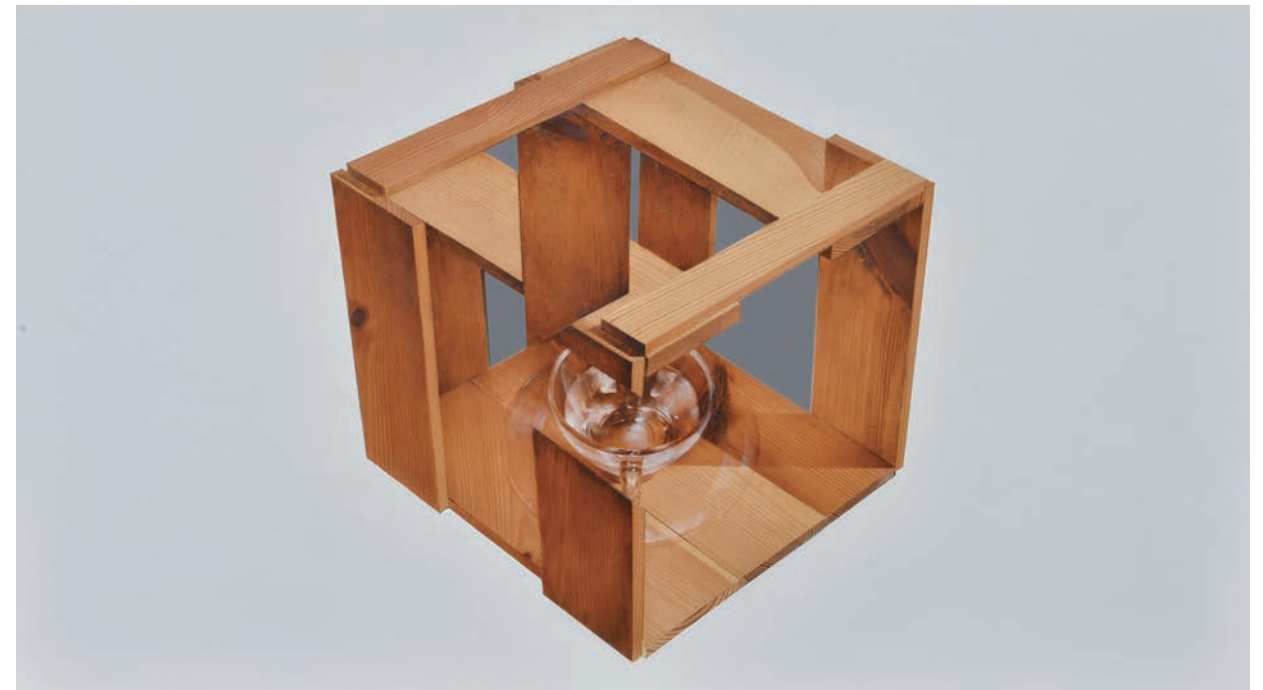
달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 있다.(Anus Presley)
69.0×109cm
종이에 먹
2019



이 작품 [달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은 만들 수 있다]는 구식 동양학 위에 엘비스 프레슬리 *Elvis Presley*의 동음이의어의 말장난인 'Anus Presley'로 가필했다. 작품의 제목은 독립적인 예술작품으로서 기능하는데, 비유적인 말장난이 사용된다. 서예 가필기법과 말장난의 콜라보의 최초 시도는 2010년 공간해밀톤에서의 개인전 제목인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새를 잡는다>라는 역설적인 문구를 서예로 현판에 걸어난 작품이다.

DIFFERENCE 1501
45.0×78.0cm
나무에 유채
2015

김남용
서양화



3차원의 육면체 사각형이 선 원근법과 투시도법이 적용되어 2차원에 표현될 때 보여 지는 다양한 비정형의 형태들과 그 변형된 조각들이 모여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을 흥미롭게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2원적인 재현과 3차원의 사물을 한 공간에 존재하게 하여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의 또 다른 해석에 대해 화두를 던지며, 사진적인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수준을 극복하여 사진기로 포착해 낼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에 대한 창조의 흔적으로써, 재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김동철

서양화

자연-휴식
60.5×73.0cm
Oil on Canvas
2020



이 작품은 강변에 햇살이 비치는 풍경의 형태를 유화로 제작한 작품이다. 이것은 현대 시각 정보전달 수단인 핸드폰, 컴퓨터, TV등의 블루라이트 광선으로 인해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의 색채 중 시각에 편안한 녹색을 주조색으로 제작하여 휴식을 주고자 하였다.

붉은 나무
72.0×75.0cm
장지에 채색, 한지콜라주
2017

김명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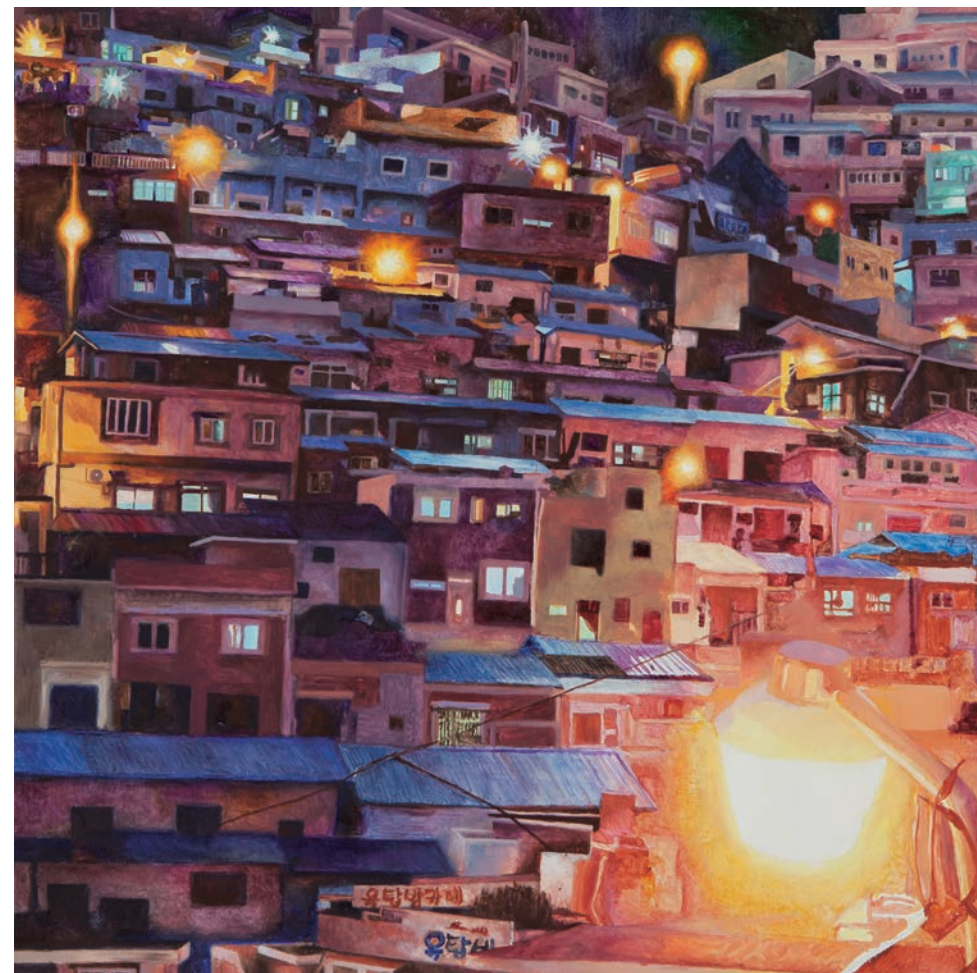
한국화



이 작품의 작업방식은 탁본을 떠낸 한지를 붓 질처럼 화면 위에 붙여 나아가는 한지 드로잉 콜라주 기법이다. 우연히 오려낸 한지를 화면에 이식함으로써 필연적인 형태와 덩어리로 만나고 복합된다. 선과 선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것을 연동시키면서 식물적인 사유로 거듭난다. 섬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투명한 바다와 세상 흔드는 바람과 찬란한 빛으로 일궈낸 신비함이 있고, 그곳에서 몸으로 경험한 환경으로서 풍경이다. <붉은 나무>는 제주도에서 1년간 거주하면서 제작한 작품 중 하나이며, 그곳의 자연과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되었다.



사회와 모든 대상과의 관계, 나아가 현 시대의 갈등 요소들의 본질 그리고 거짓과 진실의 모호한 경계에 대한 의문이 작업의 모토 (motto)이다. 식물과 사물을 혼재시키고 변이, 기형화 하는 변형기법을 통해 삶의 왜곡된 현상, 변질된 현실 등 마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듯하여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작업의 목적이다. 식물은 소멸과 상생의 상징으로서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며, 식물이라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삶을 투영하여 다양한 모습을 은유적 표현, 의인화된 의사 식물로 표현한다. 특히 Vegeflower는 현실과 비현실,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 등 규정할 수 없는 모호한 경계를 여러 식물과 사물을 혼재시켜 표현한 것이다.



불빛, 어둠과 맞선 희망의 표상

작가는 한낱의 다채롭고 복잡다단했던 산만함은 어둠 속에 그대로 잠재우고, 수많은 타인들의 추억들만 불빛에 녹여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몽환적이고 아련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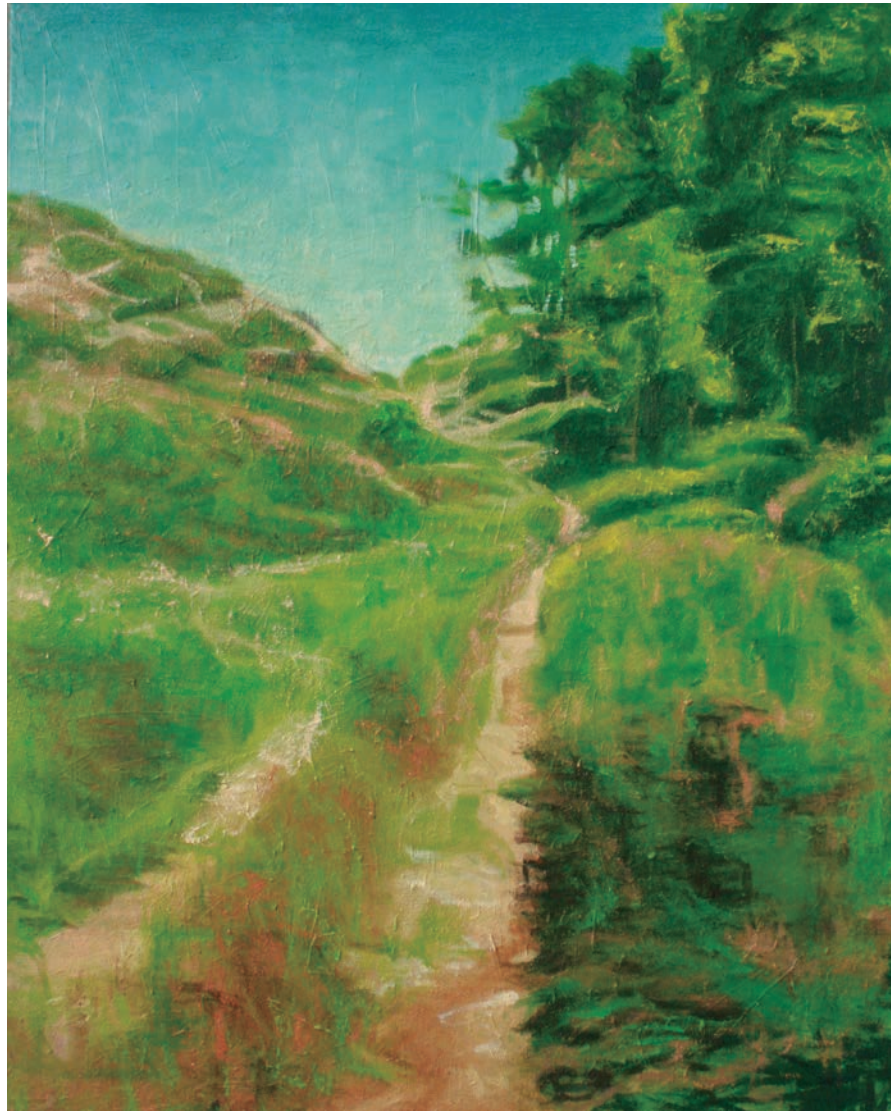
어둠과 맞선 불빛은 새로운 희망의 표상으로 작용하며, 따스한 정감을 샘솟게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저 잠깐 꺼져 있다가 켜지는 불빛이지만, 작가는 그 불빛으로 우리의 가슴에 존재감에 대한 경의를 새겨 넣고 있다. 작가의 작품들을 불빛 회화의 아우라로 더없이 소중한 교감과 소통의 교훈을 전해준다. -미술평론가 김윤섭

〈작가본인 작품설명〉 '나-가족-집-마을-도시'관계에서 나오는 따뜻함을 층층이 재조합하여 풍경으로 제시한 작품이다.

김보중

서양화

언덕 1
91.0×73.0cm
Oil on Canvas
2014



어릴 적 눈앞에 보이는 언덕으로만 가면 그 너머 또 다른 경이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라고 스스로 도취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일에 달고 달아가는 이제는 눈앞에 나타난 언덕 그 너머에 대한 환상은 별의미가 없다고 스스로 자위한다. 보이는 곳을 넘어서는 가능성에 대해 도취하지도 않고 또한 상정하지도 않는다는 현실에 대해 나는 그런 시절은 오고야 말았다고 생각한다. 어릴 적 언덕이 가졌던 꿈에 대한 상징어를 이제는 실제로 접근하는 통로로 여길만큼 현실에 대한 인식은 엄중하고 비장하다. 이곳 경기도 곤지암읍 건업리 이곳저곳에 산재한 햇빛은 언덕을 찬찬히 관찰하면서 그곳을 향해 나아가 있는 이 곳으로부터의 많은 길을 찾아 나아간다.

춤추는 풀들
55.0×75.0cm
면직천에 염색물감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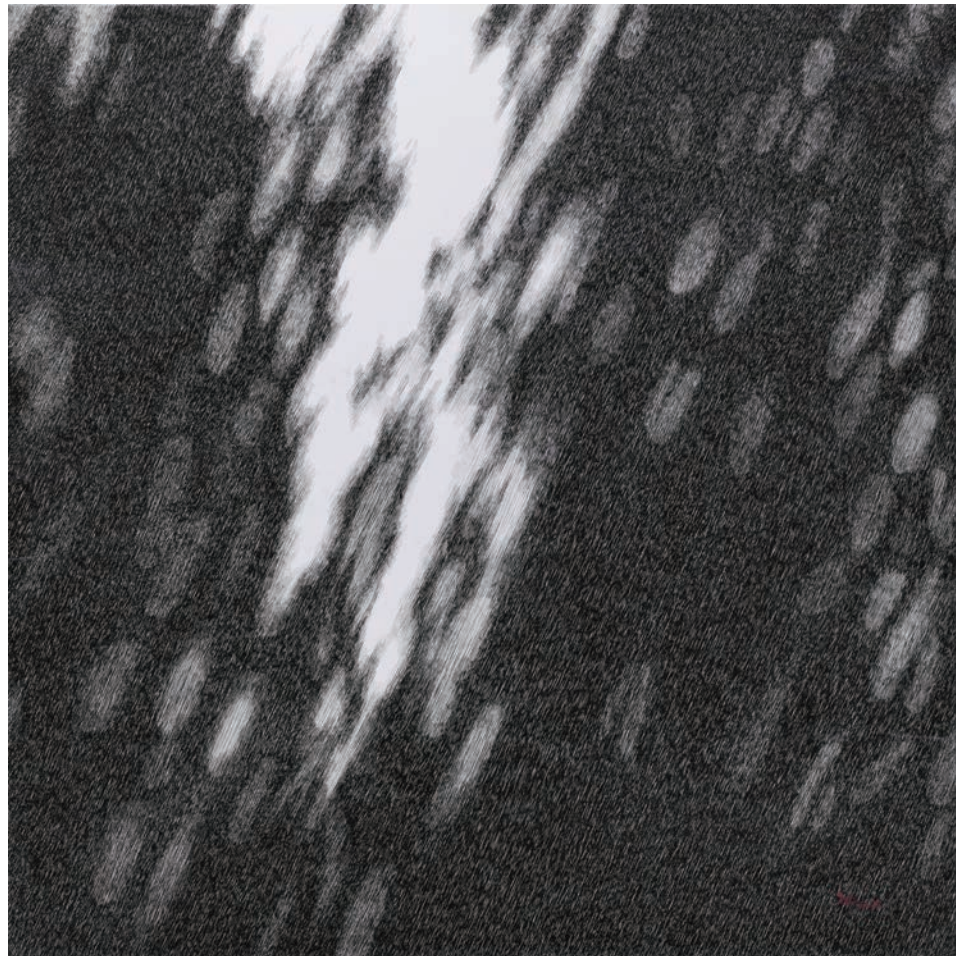


작가는 풀의 형태를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풀들을 채집해 천 위에 풀 모양 그대로 찍어 염색한다. 그 후 고유 속성이나 색을 배제해 풀들의 모습을 자연 상태가 아닌 현존할 수 없는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다. 지나치는 일상의 흔한 사물들이 주체가 되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면 우리가 보는 소소한 작은 어떠한 것들은 특별한 새 생명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이다.

김성건

서양화

사이로 내리다
91.0×91.0cm
종이에 펜
2018



세상을 이루는 존재들 사이의 틈에 대해 생각한다. 그 틈은 각 존재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다. 틈이 있어야 나를 둘러싼 세상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내가 보인다. 모두는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의 존재로 증명되기에, 관계에도 사이가 있어야 하며, 그 사이를 존중이라 생각한다. 존중이 바람이 될 때, 조화가 이뤄지고, 균형이 잡히며, 개성이 드러난다. 선은 그 자체로 틈을 형성하며, 무수히 그어진 선은 서로에 기대어 빛과 형상을 구현해 낸다. 너무 가까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고, 너무 멀리 있어도 잘 보이지 않는다. 사이를 두고서 바라보자.

DMZ풍경_철원평야
48.5×74.0cm
한지에 먹, 커피
2019

김성수

서양화



경기민예총에서 주최하고 경기민족미술인협회가 주관하는 DMZ전을 10년에 걸쳐 기획자로서, 또 작가로서 참여하면서 동서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수차례 탐방하였다. 분단의 섬에 갇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60년이 거치며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자연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복원하고 있었다. DMZ는 작가들에게 무한한 상상공간으로, 평화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다. 2018년, DMZ 10년 특별기념전을 끝으로 10년의 대장정을 마치고 나니, 무척이나 허전했다. 그 허전함을 달래 줄 길이 따로 있을까? 종이를 펼치고 붓에 먹을 묻혀 드로잉 작업을 하였다. 어느 해인가... 철원을 둘러보는 중에...기러기 선발대가 철원평야에 도착하였다. 이제 그 뒤로 수천 수 만마리의 무리들이 철원평야에 가득 내려앉아 겨울을 나겠지. 새는 자유로이 남북을 오가며 바람으로 넘고 있었다. 묻어두고 묻어두었던 시간을 꺼내 2019년 성남민미협 기획전에 출품하였다.

김수철

서양화

GNOSIS

83.0×83.0cm

변형 패널에 혼합재료, 조각도 뚫을새김, 흑연 매김질
2013



김수철의 玄의 회화는 易의 성질을 가졌다. "누르고 당기고 밀고 동그랗게 돌리면서" 흑연을 매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 몸짓과 행위에 의해 검은 바탕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보는 위치에 따라 혹은 빛의 노출에 따라 바탕의 검은 빛은 천변만화千變萬事녀 이미 지를 발산하는 것이다. 易의 변화가 확장되는 지점에 그의 비늘이 있다. 그는 조각 칼로 패널의 면을 지그시 눌러 비늘을 만든다. 면의 속살이 살짝 내 비치는 비늘은 바탕의 층위를 노출하면서 검은 알갱이와 함께 화면을 역동逆動으로 물고 간다.

미안해
80.3×116.8cm
Acrylic on Canvas
2017

김시영

서양화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가거나 너무 좋은 날씨에 있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쓸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는 기쁨과 슬픔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잘 해줄 걸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김시하

사진

Green(Version3)
65.0×95.0cm
Inkjet Print
2018



설치, 조각, 사진 등 복합 대형 설치 작품으로 국내외 전시에 참여한 바 있는 작가의 작품으로 본 작품 'green'은 2017~2019년 본격적으로 몰두한 '포토 드로잉'이라 명명한 시리즈의 한 작품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정글, 숲의 사진 위에 수 차례의 기술과 손 공정을 입혀 마치 그림처럼 독특한 질감을 갖도록 특징을 지니고 있어 사진이지만 작가의 독특한 해석이 덧입혀져 있다. 작가는 이 시리즈로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작품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으며 매 전시, 또는 작품집을 통해 설치 작가로서 공간감을 보는 시각을 사진 속에 투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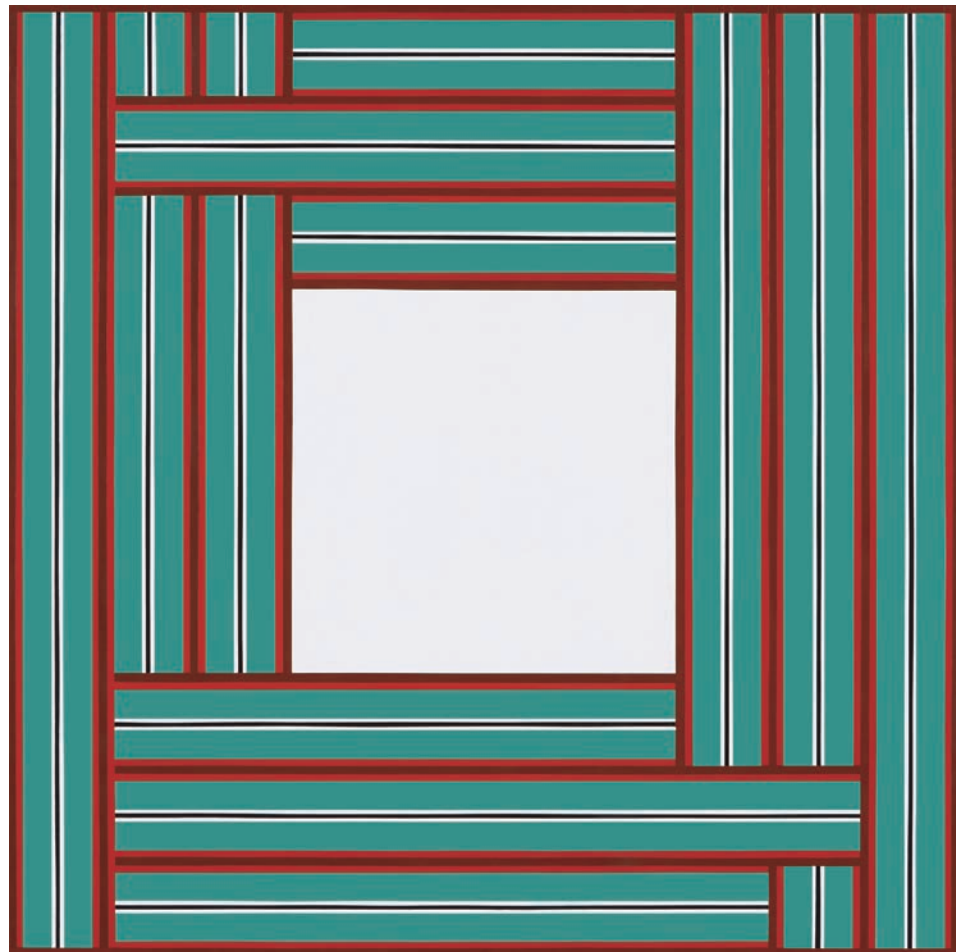
소중한 메시지
72.7×53.0cm
Oil on Canvas
2015

김시현

서양화



보자기를 통해 주는 이가 받는 이에게 보내는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표현되기를 바랐고 나아가 그 안에 품고 있는 '특별한 궁금증과 설렘'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보자기는 본래 물건을 싸서 운반하는 실용적인 목적이 있으나 내 작품으로 표현되는 보자기 형상은 시각적 이미지를 넘어 상대방과 소통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세상의 모든 것을 품고자 하는 포용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



나의 조형적 언어는 '한국의 문양과 색감'이다. 주변에 자리하고 있지만 무심히 지나쳐 온 아름다움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반복, 점층, 대칭의 특징을 가진 단청을 선택하고 반복하여 입체 또는 평면 안에 조형적 균형감을 찾아가는 것이 본인이 추구하는 바이다. 입체 작업을 시작으로 현재는 주로 캔버스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형상을 제작하는 입체 작업과 달리 사각형이라는 주어진 형상 안에 각 요소(조형적요소인 문양)들에 관계에 집중하여 표현하고자 한다. 사각 형상 안에 수직과 수평선이 한 획, 한 획 교차하는 순간 대립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유년시절에 시작된 미래에 대한 호기심과 우주공간에 대한 관심은 점점 영화로 이어져 사진작업에 영감을 얻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많은 S.F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중첩된 이미지의 잔상과 느낌을 도시공간을 통해 표현해 보고자 천국보다 낯선(stranger than paradise)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실 속에 존재하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통해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환기를 시켜주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상공간 같은 아주 낯선 곳의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하였다. 메트로폴리스의 밤풍경을 회화적인 색감과 조형적인 시각으로 구현하기 위해 6X6의 정방형의 포맷, 밤의 시작점을 알리는 시간대와 저녁시간, 장노출로 인한 상반축 불궤작용 효과로 변색된 컬러를 이용하였다.



프레임(Frame) 속에 프레임을 그린다. 그림에서 프레임은 회화적 구성요소이기도 하지만, 사각형의 캔버스 자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회화적 본질에 주목하게 하는 방법이다. 회색의 모노톤으로 배경을 이루는 프레임 속 프레임에 놓인 악기를 통해 감각 상호 간의 연상작용의 하나로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소리는 실제로는 들리지가 않지만,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회색의 빌딩 사이로 트럼펫의 소리가 순환하듯 흐르며, 끊임없이 경쟁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도시에서의 정서를 환기시킨다.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 물이 끓는 주전자에서 나는 소리, 현금지급기의 버튼을 누르는 소리, 자전거벨 소리, 탁상 시계의 알람 소리, 기차 소리 등이 모여 스코틀랜드의 민요 "올드 랭 사인 (Auld Lang Syne)"을 노래한다. 한국에서는 "작별"이라는 제목의 번안 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곡은 졸업식처럼 서로 작별을 고하는 상황에서 불리는 노래이다.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만 의미없는 소음으로 여겨지는 일상적인 사물의 소리가 모여 이 노래를 합창한다. 이로써, 일상으로부터의 작별을 선언하고 다른 차원의 의미를 획득한다.



개인전을 홍보하는 포스터(접으면 쇼핑백으로 만들어지도록 레이아웃)를 아파트 종이가방으로 만들었다. 아파트 쇼핑백을 바닥에 도열해 각각의 알파벳으로 형상화했다. 성경의 주기도문의 일부인 Thy will be done a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의 영문 단어와 단어 사이에는 아파트 이미지를 편집해서 삽입했고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연출했다. 한국의 아파트는 상품, 브랜드, 자본의 키워드가 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아파트'라는 지루한 기표의 강제적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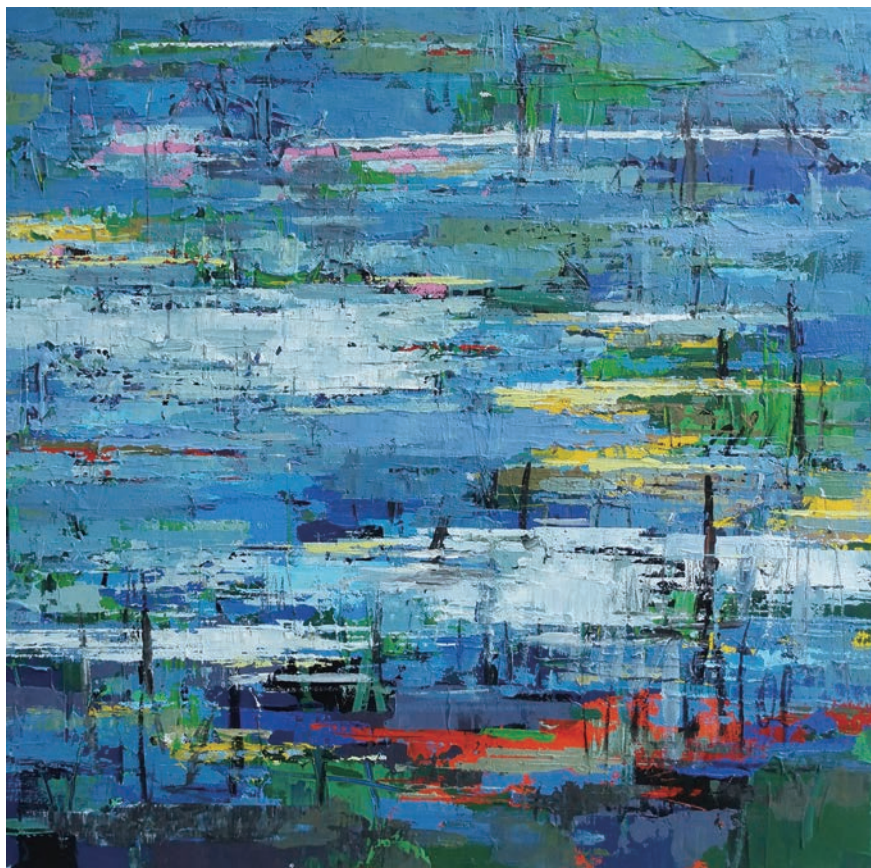


가을이 되면 우리 주변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맨드라미를 캔버스에 재 배치하여 붉은색과 흰색의 대비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회화적인 효과를 표현한 작품이다.

김자연

서양화

자연풍경
53.1×53.1cm
Acrylic on Canvas
2020



수많은 자연의 생명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며 활동하는 늪지대와 풀섬 등 서식지의 풍경을 추상적으로 해체하여 표현하였다.
(작가노트)

김자연, 생명의 기쁨

그의 작품은 어디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다. 특별한 공간구성도, 주도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전면회화처럼 공간이 캔버스 바깥으로까지 확산되어 나갈 기세이며 화면은 외부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연에서 흘러온 여러 표정을 대단히 풍부한 음색으로 직조해가는 것이다. 자연의 모습을 이처럼 추상적으로 변용시켜 생의 절정과 환희를 나타내는 것이다. 작렬하는 생명의 불꽃이 화면 여기저기에 피어있는 듯한 기분이다. 최근에 그의 작품은 '원색적인 색조'와 '유화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이미지보다 색깔 자체로만 충분히 생명의 결을 표출하고 있다. 화면은 각종 원색의 물결로 너울거린다. 작가는 색조를 생명의 맥박을 건져 올리는 매개물로 사용하고 있다. 자연물들이 봄철에 기지개를 활짝 펴듯이 새싹을 틔우는 생명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서성록(미술평론가)

무제
61.0×91.0cm
Oil on Linen
2015

김잔디

서양화



익숙하지만 낯선 부조리한 감정-언캐니(uncanny)를 불러일으키는 집들은 작업에서의 오랜 주제였다. 그러나 최근의 집 들에서는 언캐니한 요소보다는 시간과 함께 스러져가는 자연(쇠퇴해가는 도시의 모습 역시 일종의 자연)의 일부로서의 모습에 더 주목하고 있다. 이 작품은 그 과도기에 그려진 작품으로 레지던시 차 머물던 울산의 구도심과 언양의 시골에서 마주친 집들의 초상 연작 중 하나이다. 이 그림 역시재개발과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이지만 흘러내리는 물감으로 표현된 철망의 녹물과 페인트자국으로 묘한 비애감을 자아낸다. 이처럼 나의 그림들은 사라졌거나 사라질 운명에 처한 장소들, 즉 영원한 집의 상실에 대한 비가(悲歌, elegy)인 것이다.

김재홍

서양화

거인의 잠-20200602
40.0×60.0cm
Acrylic on Canvas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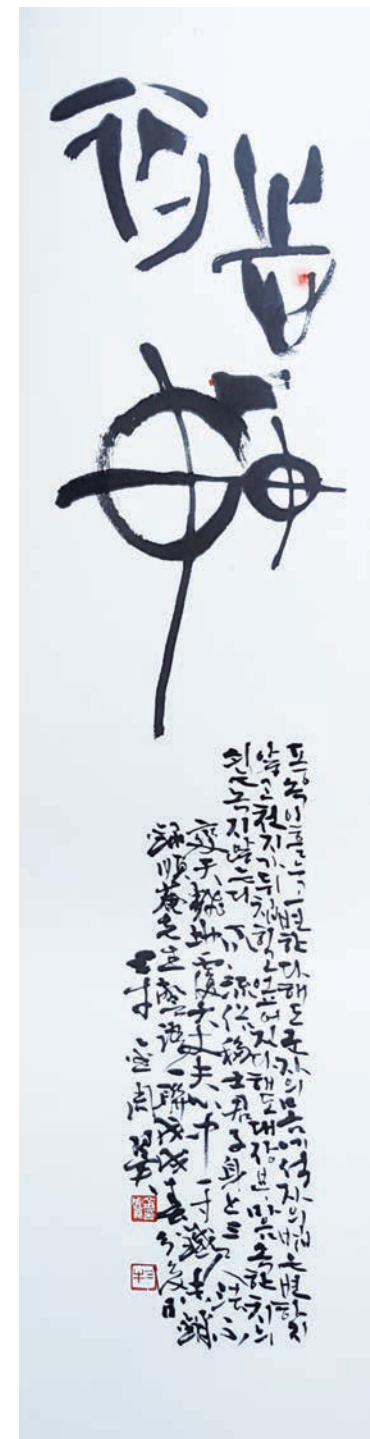


‘거인의 잠’ 연작은 오랜 기간을 추구해 왔던 이중구조의 작업으로서, 이 땅의 산하를 인간의 몸으로 대치하며, 그 몸에 각인된 인간의 아만적 폭력에 의한 흔적을 통해서 생명, 생태 그리고 역사, 이념대립 등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생태계를 유기체로서의 몸에 은유하며, 그 위에 드리워진 상처는 인류 문명의 이기적이며, 무자비한 확산에 의한 비극적인 생명파괴를 표현한다. 이로써 상처받은 우리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치유의 과정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초지일관(初志一貫)
116×26.0cm
화선지에 먹
2018

김주익

서예



초지일관은 4자이지만 — (일)과 貢(관)을 합쳐 3자로 보이면서도 상단 初志와 —貢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貢자에서 두 개의 원은 마음속 심상이며, 작은 것부터 원대한 포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추진되는 의미로 가로획과 세로획이 꿰뚫고 나아가는(초지일관)의 의지를 문자미에 담았다. 하단 협서는 단아함을 탈피하여 모필의 특성을 살려 한글 서체와 한문서체의 혼용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운필과 장법에서 기이하지만 편안한 구성의 작품이다. 전체적인 작품은 고전미를 일탈하지 않으면서도 극한 여백의 풍미와 서예가 갖는 본질, 즉 담백한 획의 질감을 볼 수 있다.

작품 해석문-안정복(安黑福, 1712~1791),
『순암집(順養集)』 권 19 『경어일련(警語一聯)』
風流俗移 士君子身上三尺法不變 天醜地覆 大丈夫心中一寸鐵未錯
풍속이 흐르고 변한다 해도
군자의 몸에 석 자의 법은 변하지 않고
천지가 뒤집히고 엮어진다 해도
대장부 마음 속 한 치의 쇠는 녹지 않는다

김지아나

서양화

Black inside black 2002

73.0×61.0×12.0cm

캔버스에 자기, 비닐, 아세테이트 레진, 스테인
2020



종잇장처럼 얇은 도판들은 고온의 불을 견뎌내고 자연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개체가 되었다. 가녀리고 부서질 것만 같은 도판들은 숨겨진 우리의 나약함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긴장이며 상처이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화려하게 과시하면서, 어쩌면 현실의 고되고 힘든 시간과 날들을 보상 받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블랙 속에 넣어 진 블랙 시리즈(Black inside black)는 사회적 인간으로서 다른 이들과 어울려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함과 반면에 그 안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더해진 그림이다.

경의선

47.5×78.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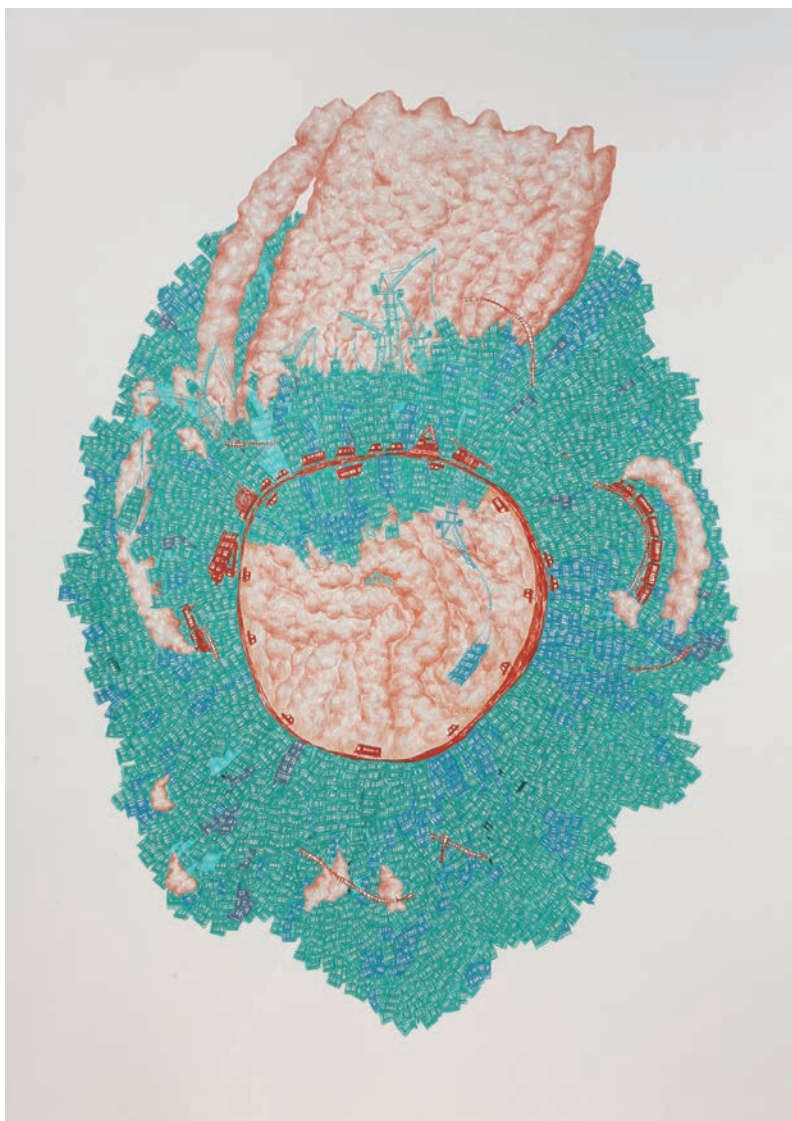
장지에 혼합기법
2017

김진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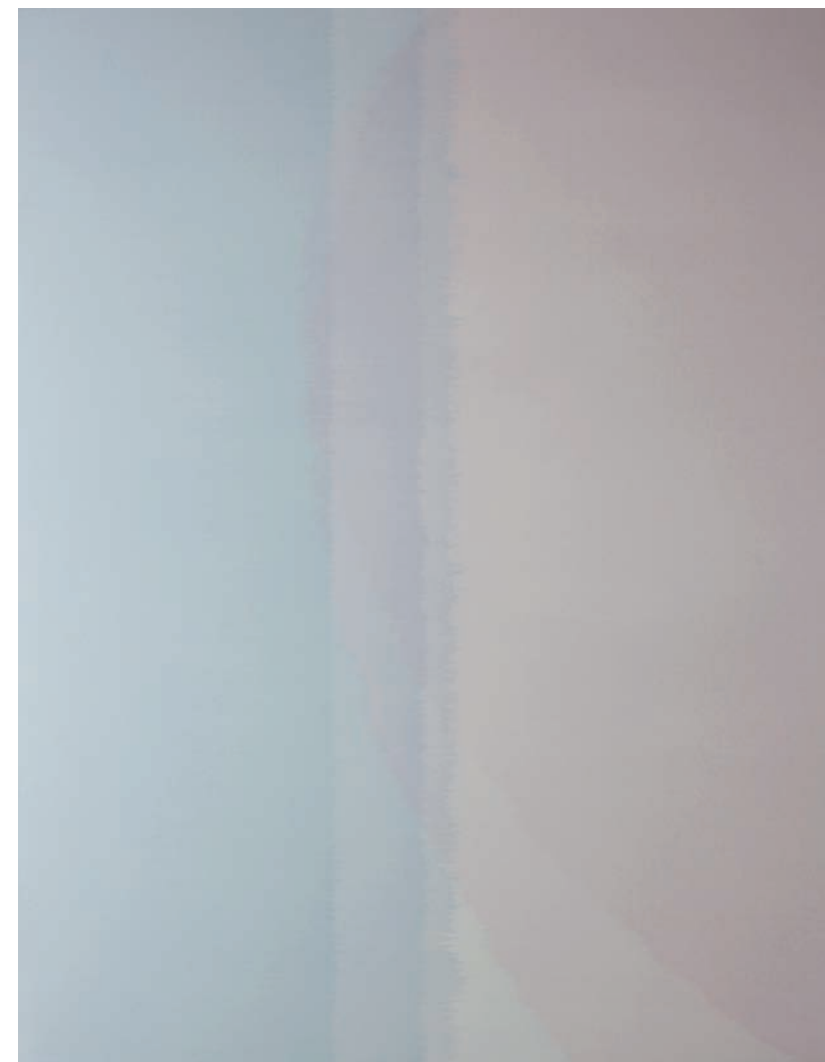
한국화



나의 작업을 함축적으로 표현하자면, 《발굴》이라 할 수 있다. 온전하게 그려진 형태 즉 사물들 위에 다시 스티커와 마스킹액을 붙이거나 바른 다음 여러 번 반복된 채색으로 화면을 완전히 덮는다. 화색톤으로 완전히 뒤덮인 화면을 말린 후 다시 날카로운 도구 혹은 손톱을 이용해 하나하나 스티커와 마스킹액을 떼어내면 마치 발굴 되는 듯 처음에 그렸던 형태들이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 처음의 온전했던 형태들과 다른 모습으로 재구성 된다. 민족적 비극이자 고통의 상징이 되어버린 임진각의 멈춰진 경의선 증기기관차, 발굴 되듯 드러나는 아픔들을 자유로이 오가는 새들의 표현을 통해 위로하고 치유하고자 하였다.



자연이 스스로 생성되고 소멸하며 평형을 이루는 상태라면, 도시의 자연은 어떤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 도시의 구조와 구성체의 개별요소가 자연과 같은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망을 취한다면 어떤 풍경이 일어날까? 작업 속에서 관념적인 형태의 근 현대 건물은 도시의 분자처럼 집적 및 반복과 관계망의 형성을 통해 도시의 자연을 이룬다. 작가 본인이 경험하거나 의식하고 있는 이상적 자연과 실재 자연의 요소를 반영하며 다각적으로 변형되는 집합 형태와 구도를 통해 살아 움직이는 도시자연을 회화적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secret serenity’시리즈 작업은 대립과 조화라는 근원적인 원리를 이전보다 더 전면으로 부각시킨다. 언뜻 보면 거의 텅 빈 캔버스처럼 보이는 화면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붉은 색과 푸른색의 색 면, 직선과 곡선에도 불구하고 오래되어 바랜 듯한 빛의 느낌이 지배적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오로지 기본적인 대립의 요소만이 남아 직선과 곡선, 그리고 색의 기본이 되는 빨강과 파랑만이 화면을 채운다. 그나마도 이전에 무엇인가를 형상했다는 것을 드러내던 이미지도 걷어내고 남겨놓은 최소의 색에서 선명함마저 덜어내면서 더 정적이고 절제된 화면을 내놓는다.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단계를 넘어서 곡선과 직선, 색은 스스로를 순수하게 드러내고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순수하게 남은 대립된 요소들의 조화는 결국, 더하면서 덜고 감추면서 드러내는 이중의 과정이며 가라앉은 웅기이자 침묵하는 소란의 형상이다.

김춘재

서양화

A Garden
50.0×72.7cm
Oil on Canvas
2020



억지로 애쓰지 않고 힘을 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도교(道敎)에서는 '무위(無爲)'라 하고, 그것의 표본을 '자연(自然)'에서 찾았다. 따라서 '무위자연(無爲自然)'은 도교의 진리상태인 '도(道가 나타나는 최고의 경지이다. 동양회화에서 여백이란 화가의 '인위(人爲)'를 제거한 상태이며 도교의 진리인 '도(道)'의 표현이다. 따라서 손대지 않고 텅 비어 있지만 거꾸로 진리로 가득 찬 상태이다. 본 작품은 우리의 일상적인 풍경에서 '인위(人爲)'를 제거한 풍경이다. 자연을 상징하는 숲 이미지 속 인공물을 제거하여 여백을 만들었다. 인위적으로 구성된 우리의 세계에서 인위적인 것을 빼고 남은 자연-무위의 풍경에 관한 소고(小考)이다.

강선-021
79.0×103cm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17

김태동

사진



철원에 도착하였을 때는 이미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다. 어둠 속에서 많은 사진을 찍어왔던 나로서는 밤 풍경의 적막함이 익숙한 것이겠지 라는 마음으로 촬영에 나섰지만 이 특정공간의 낮설음은 마치 전문과 같은 생경한 긴장감을 가져다주었다. 노동당사 수도권지 열음창고 등에서 사진을 촬영하였다 새벽시간 빛의 부족함이 나의 다른 감각들을 예민하게 만든다. 사람냄새는 찾아볼 수 없는 습한 벽체의 냄새 차가운 공기와 수백 만개의 별들로 차여 있는 맑은 하늘 그리고 총알자국들이 이어져 있는 벽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셔터 릴리즈의 소리 다른 감각들이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찍고 있는 피사체에 사실감을 더 하고 있다.

김태헌

서양화

붕붕-겨울산
50.0×50.0cm
Acrylic on Paper
2020



'붕붕' 연작 중 하나이다. 여기서 붕붕(膜腦)은 장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붕새이며, 말풍선이며, 손오공이 붕붕 타고 다니던 근두운이며, 그림 속 이미지들을 연결하는 일종의 접속사다. 화면을 흐르는 작은 올림이다. 그림을 가볍게 해주는 장치다. 꿈틀거리는 내 욕망의 이미지다. 붕붕은 붕새처럼 붕붕 세상 속으로 날아올라 이놈저놈, 이것저것, 요기조기 기웃거린다. 연작 작업은 그곳 세상에 서 만난 것을 다양한 그림 형식(페인팅, 사진, 오브제 등으로 연작)으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붕붕-겨울산> 역시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익숙한 겨울풍경이다.

Neo-car 1002
65.0×90.0cm
디지털 판화에 석판화
2010

김현주

드로잉&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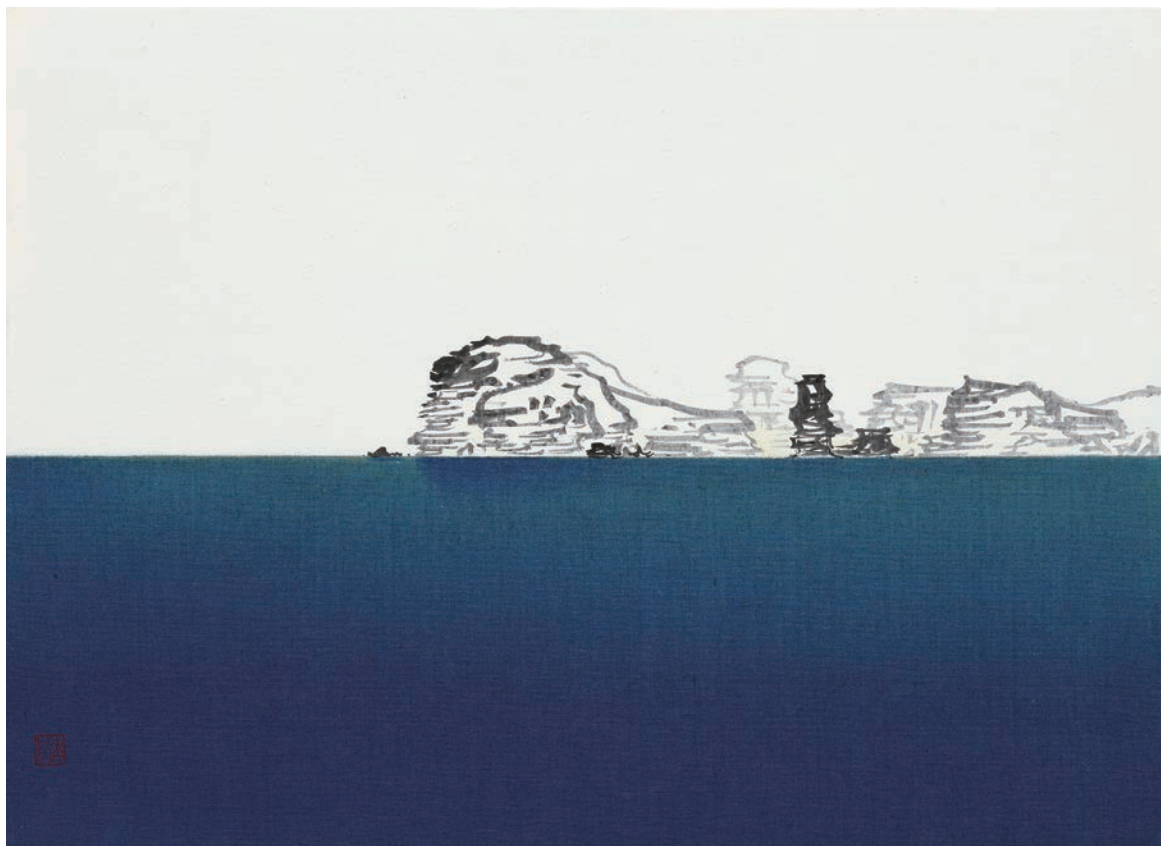


필자의 작품 주제는 '현대인의 욕망'이다. 그 욕망은 인간의 욕심과 결부된 욕망, 즉 덧없는 욕망이다. 당일의 신문은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하루라는 시간이 지나면 쓰레기로 버려지지만 말이다. 지금은 고철 덩어리로 변해 있을 과거의 엔틱카드 당시에는 부와 명예의 상징이었을 것이다.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물을 시물라크르(가짜인데 진짜처럼 느껴지는...) 방식으로 표현하여 실제로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기법은 디지털 프린트 판화에 다색 석판화를 덧입힌 것이다.

김현철

한국화

제주 차귀도
53.0×72.7cm
캔버스에 수묵채색
2018



여백은 투명한 예술적 상상으로 형상 너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최소한의 필적으로 전하는 동양의 예술표현의 한 방법이다. 제주바다 앞에 서면 짙은 바다의 수평선이 눈길을 잡는다. 투명한 공간 속에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머문다. 깊고 맑은 푸른색의 변주 위 소박한 붓질의 섬 하나는 또 다른 진경이 돈다. 인간은 오고 가지만 수 천 년을 지나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풍경은 단지 그 자리에 존재함만으로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부유하는 나의 도시
73.0×73.0cm
Acrylic on Canvas
2010

김효숙

서양화



도시에 살다 보면 신축공사현장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어지럽게 얹혀진 현장의 모습은 인간의 복잡한 내면으로 영역을 구분 짓는 벽면은 사람과 사이의 벽으로 그려졌다. 이렇듯 신축되는 모습은 도시 생활 속 현대인에 삶의 모습과 닮았다. 특히 완성된 구조물이 아닌 완성되기 전의 원형(原型)에 가까운 건축자재들의 모습이 다채롭게 다가온다.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물들이 건축되는 모습을 인간이 성장해가는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가정하여 작업한다.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호랑이이다. 그러나 그들은 한편 표범이기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표범과 호랑이를 '범'으로 아울러서 불러왔기 때문이다. 한국1범'은 일제강점기의 무분별한 남획으로 20세기 중반에 한반도에서 사라졌다. 우연히 보게 된 흑백 사진 속 표범은 1962년에 경남 합천군에서 잡혀 창경원에서 12년 동안 사육되다가 생을 마감한 한국의 마지막 표범이다. 그 사진을 보면서 릴케의 시 '표범'이 떠올랐다. 물리적 창살에 갇힌 야생동물과 무형의 창살 -일상, 가족, 직장 등-에 갇힌 우리의 모습. 그들이 다시 숲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바람에서 시작된 작업은 우리 삶 속 무형의 창살을 벗어나고 싶다는 나의 소망이기도 했다. 작업에 주로 사용된 재료는 '흙'이다. 붉은 빛깔의 흙덩어리를 붙이고 도려내는 과정에서 그들의 원시적인 에너지와 꿈틀거리는 생명력, 야성이 서려 있는 눈빛과 거친 삶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 산하에 이런 경이로운 생명체가 공존했었다는 사실과 몇 백 만년의 시간을 통해 탄생한 수많은 종(種)들이, 인간의 탐욕으로 한 순간 멸절하는 안타까움도 함께 담고 싶었다.



이 작업은 무진 형제의 궤적 시리즈 중 김종삼의 시 '투병기'를 오늘날의 야간 근무자들의 현실 속에서 재해석했다. 무진 형제는 작업을 위해 서울 곳곳을 다니며 많은 야간 노동자들을 만났다. 새벽시장에 물건을 나르는 사람들, 시장 경비원으로 일하며 낮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 퇴직 후 야간에 택시를 모는 운전기사 아저씨, 그리고 물류센터 야간반 임시직 노동자 등. 이들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일해야 겨우 생계유지가 가능한 분들이었다. 오늘날 자본시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익 창출에만 매달려 있고, 개인은 그런 자본주의로부터 낙오된 삶을 살지 않으려 휴식과 수면마저 포기한 채 노동에 매달리고 있다.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야간 노동자들은 비좁은 플라스틱 의자에서 다음 노동을 위해 쪽잠을 자거나 서로 말을 줄이며 멍하니 앉아 있곤 했다, 무진 형제는 그러한 야간 노동자들의 모습으로부터 김종삼의 시 '투병기'를 떠올렸다. 김종삼의 시에 등장하는 마녀, 까만 밤, 새벽 등의 어두운 시대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신자유주의로 인한 양극화와 여기에서 파생된 불안, 우울, 희망의 부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적 징후들로 드러낸다.



신체는 고체처럼 견고하고 안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그제 지겨워 액체가 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미끄러지고 회피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얼마간의 자유를 누리다가 지금은고체도 액체도 아닌 슬라임이 되어버렸다. 어느 정도 형태가 있을 수는 있지만 단단하지 않으며 물처럼 보이지만 흐르지 않아, 언제나 거기 그대로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원래 투명하지만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다양한 질감도 가질 수 있다. 어떤 종류 슬라임들은 탄성이 떨어지고 아주 천천히 흐르는 특성이 있지만, 물처럼 무언가를 띄우지 못하고 오히려 저 밑으로 가라앉힌다. 슬라임들은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며 자유롭게 결합과 분리를 할 수 있다. 그 신체는 어떤 것이든 될 수 있으며 될 수 없기도 하다. 얼마나 살았는지 알 수 없으며 그들은 곳곳에 태어나고 흐트러진다. 그것은 관객이고 배우며 작가이다. 여자이고 남자이다. 또한, 아이이다. 최초이며 최후이고. 하나이기도 하고 둘이기도 한 그 육체는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 폴엘뤼아르 시 인용 -



한정된 공간에서 탄생된 몇개의 개체는 띠를 이루면서 증식한다. 밖으로 뻗어 나가는 띠는 안쪽의 띠를 보호하며 간직한다. 띠는 밖으로 뻗어 나가는 시간과 교차되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게 된다. 띠의 외경이 커질수록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커져만 가던 그 띠는 공간의 벽에 부딪쳐 안쪽으로 다시 빨려서 들어간다. 그때부터 덧없이 빠르게만 흐르던 시간은 다시 점점 느리게 흘러간다. 한 단계씩 안쪽으로 다시 되돌아 가면서 데자(deja-vu)인줄 착각을 하게 된다. 점점 느려지는 시간을 느꼈을 때는 이미 공간의 절반 정도의 구역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인지한다. 둥근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 67가지의 색깔이 사용되었고 원은 쌀모양이 연결된 고리이며 66줄의 원에 약 18,400개의 쌀이 그려졌다.

문인환

서양화

바다와 대지
65.1×90.9cm
Acrylic on Canvas
2015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수평선에서 펼쳐진 갯벌을 표현하였다. 갯벌은 상처를 위로하고 보듬고 치유하는 땅이며 자연정화의 능력을 통해 자신도 그 속의 일원이 되어 속세에서 받은 찌든 무게감을 씻고자 하는 염원의 심리이다. 인간에 있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발점 역할의 대상은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갯벌이라는 침묵의 장소는 바다의 종착지이지만 정화를 통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시초가 된다. 갯벌이 주는 외형적 이미지의 재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이해, 자연과 인간과의 소통을 위한 궁극적 의도와 실제적 이미지의 구체적 표현을 통해 그 안에 내재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한 아름다움을 제시하고 싶었다.

가변성을 위한 연습
65.5×55.0cm
수집된 산수화에 재봉, 볼펜, 실, 안료
2019



민성홍

서양화

민성홍의 사회생태계에 관한 관심은 현사회의시스템들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위치가 이주, 이동되는 상황에서 남겨진 오브제들을 수집-변형-재조합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 이산과 집 단, 그리고 그 경계의 모호성을 드러내는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작업의 주재료인 수집된 산수화들은 90년대 이후 본격적인 재건축 과정에서 생활공간 구조가 변화되어 지며 그 기능을 상실하거나, 개개인에게 관념적 산수화에서 보여지는 이상향적 풍경이 현 사회 에서는 무미해진 이유로 버려진 사물로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에 대한 인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작품은 개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구조의 틈을 수집된 산수화 표면에 여러 가지 색볼펜의 그리드(grid)와 재봉틀을 활용한 스티치(stitches) 작업으로서, 사회 시스템 안에서 불분명한 기준과 경계의 전환에 대한 대응방법을 보여주며, 현 시대의 삶의 기반을 탐색하고 적응방식을 연구하는 과정을 보여주려 한다.

민재영

한국화

새벽
73.0×91.0cm
한지에 수묵채색
2017



2016~2017년경 영은미술관(경기도 광주)의 입주 스튜디오에서 밤늦도록 작업하다 안개 낀 새벽에 숙소로 나설 때면 볼 수 있었던 장면이다. 그런 날이면 짙은 안개 속 아파트 단지의 불 켜진 창을 보면서 다소 초현실적인 느낌을 받았었다. 주변의 자잘한 요소들이 사라지고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네모진 창문, 그 새벽 깨어 있었을 사람들이 존재하는 일종의 단위로서의 밀집된 공간에서 저마다 우주선처럼 공중에서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런 광경은 다시 해가 뜨고 한 낮이 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분주한 일상 속 고층 건물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곤 했다. 그 시간들에 느낀 대기와 공간의 모습을 기억 속에서 불러오려 했다.

Speechless Sculpture
65.0×53.0cm
Oil on Canvas
2019

박경률

서양화



본인의 작업은 운동성과 시간성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적인 회화적 조건을 재적용, 시험함으로써 서사 편향적인 나레이션 회화에 서의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 본인의 회화에서 '그린다'는 행위는 '캔버스'라는 물질의 지지체 위에 '물감'이라는 물성을 얹어 '붓'을 쥔 몸이 담지하는 운동성에 의한 순간의 기록이다. 공백 상태에서 시작하는 그림은 본질적인 회화 재료(painterly materiality) – 캔버스와 붓의 속성, 그라운드, 물감, 작가의 움직임(붓질)을 주요한 회화적 조건으로 하여 실험하면서 회화 공간 안에서 가능한 매체의 잠재력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러한 물성의 작동은 직관적으로 그리는 본인의 작업방식과 더해져 – 마치 드로잉처럼 – 선(line)으로 그려진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회화실험의 연장선에서 본 작업(Speechless sculpture)(2019)은 그리기라는 본능적인 행위가 화면 위에 어떠한 이미지(mark-making)를 만들지만, 화면 속 형상적 이미지는 환영(illusion)과 재현(representation)의 회화적 규정을 이탈하며 관습적인 '대상(형상)' 중심의 독해법을 비껴간다.

박경묵

한국화

無極
73.0×91.0cm
종이에 먹
2017



熱巖風景(묵암풍경)은 수분을 머금은 결의 흔적으로 자연의 응축된 시간과 힘을 기반으로 존재한다. 묵암풍경과 현실 속 경계를 호흡하며 그려진 몽환적 세계는 산과 나무, 흙이 재가 되고 rebooting하는 것과 같아 보인다. 그래서 주관적인 먹빛을 바탕으로 대상의 형상을 빌려와 내면의 감정을 호흡하여 바림질 하였다. 작가는 먹으로 대비된 극과 극의 조화가 바람을 타고 머물다 흘러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서라는 형상을 시도하였다. 이것을 유형으로 드러내어 종이에 지난걸음과 호흡으로 읊어본다

박노을

서양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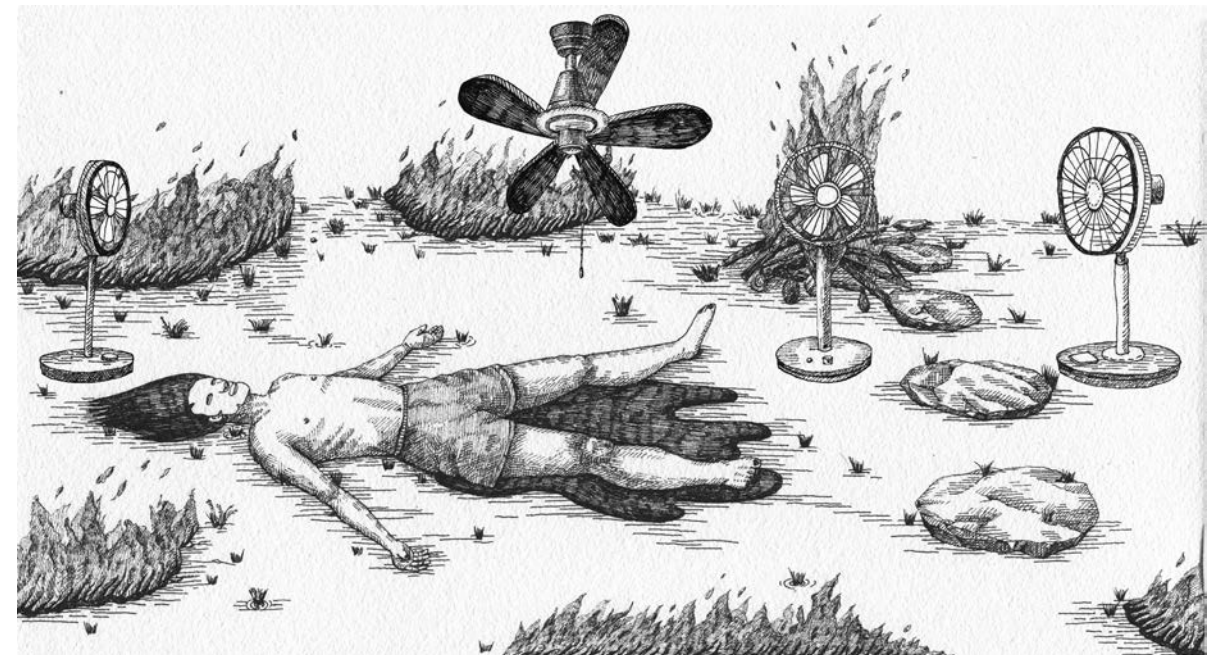
아끼는 마음
116.8×91.0cm
Acrylic on Canvas
2020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하나의 공간에서 자라나고 있다. 컵과 식물은 수동적이고 함부로 다루면 깨지기 쉬운 사물이다. 본인은 이러한 컵과 화분에 자신을 담는다, 그리고 그러한 식물을 저채도의 색감으로 표현한다. 색채는 인간의 감성을 대변해주는 주관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저채도의 색감은 내추럴함을 나타내는 자연의 색과도 가깝다. 이는 상쾌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가져다주며 부드러우면서도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전달한다. 어릴 적 어머니가 집 한 켠에서 키우시던 식물들을 보고 자란 본인의 심리적 성향이 작용하였다. 무언가를 담아야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컵과 여러지만 스스로 자라나고 있는 식물이 서로 공존하는 모습에 본인을 투영시켜 표현한 작품이다.



우리는 저마다 현재의 시점에서 기억되는 것을 재구성하며 자신만의 기억의 섬에서 살아간다. 시간을 초월한 비현실적인 장소, 자연을 닮았으나 자연과는 무관한 어떤 형상, 하나의 선이 다른 선을 만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을 닮은 이미지 작업은 내 작품에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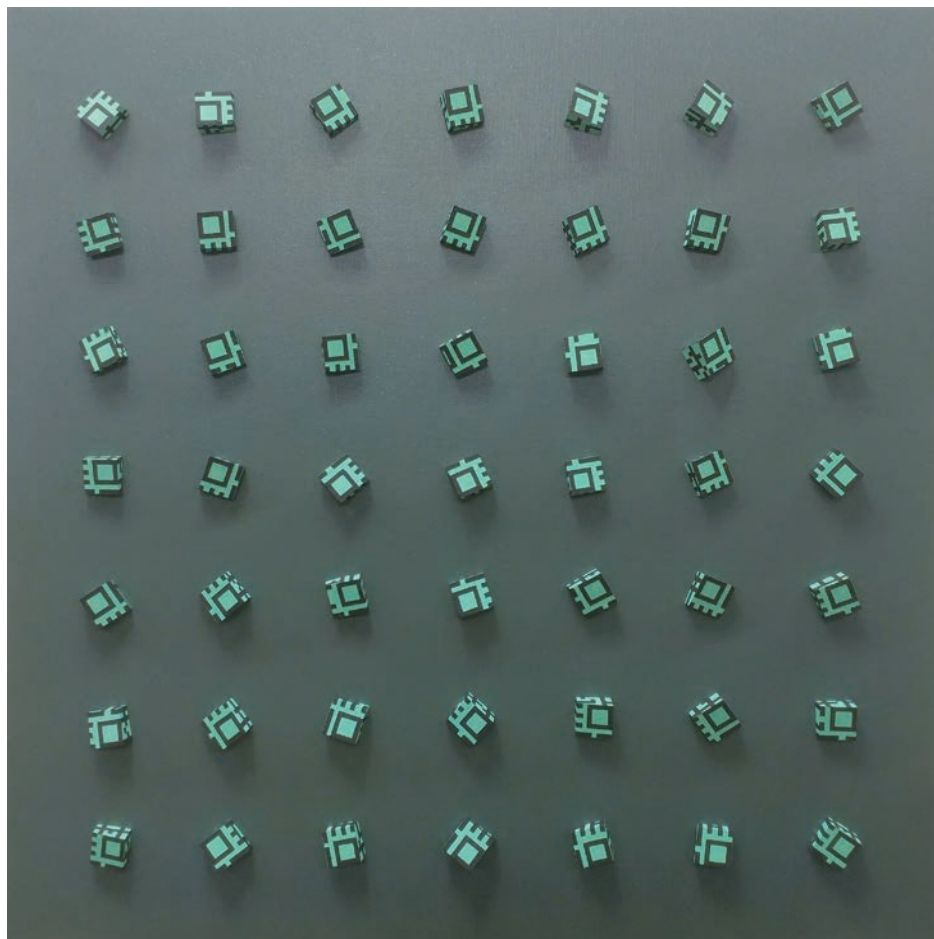


밤물결 The Waves At Night 에서는 감정의 취약성과 예민함이 가장 고조되는 '밤'이라는 시간성에 주목한다. 밤이라는 시간에 증폭되는 공포, 불면증, 빛의 부재, 어둠, 암흑, 검은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 시각적 감각이 퇴화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감각들은 점점 예리하고 뽀족해지는 밤의 양면성에 대해 흥미를 가지며 이를 기록하고자 한다. <삼키는 마음>은 작가가 경험한 불면증에 기반하여 감각한 것을 표현했다. 기존 작업과 연결된 서사를 가진 채 빛의 투사를 통해 생겨나는 벽에 대해 말한다. 빔 프로젝터를 통해 투사된 움직이는 이미지로 생겨나는 형태를 최근 연구하고 있는 움직이는 벽화의 개념과 이를 링크시켜 보았다.

박민규

서양화

공존의 도시
72.7×72.7cm
캔버스에 아크릴릭, 목재큐브
2019



공존의 도시는 상징적 디지털 기호들을 모티브로 차용하여 아날로그의 역사와 디지털 상상이 만나는 가상공간으로 안내한다. 관람자들로부터 사회적 교류와 교감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서로 다른 각각의 큐브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열하여 대중 사회의 획일성과 도시의 단면을 표현한다. 큐브들은 그림자로 연결되어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반영하거나 시간과 장소에 따라 그림자가 변하는 특징을 통해 현대사회 속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다.

꽃과 탈춤
64.0×96.0cm
한지에 혼합재료
2015

박방영

한국화



탈춤은 농경사회 초기부터 가을걷이에 감사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할 때, 가면을 쓰고 춤을 추었다. 탈춤은 지배층이나 특권층을 풍자적으로 비판하는 등 신분사회 속에 민중의 고달픈 삶을 해학적으로 춤을 추며 애환을 달래기도 하였다. 안동의 하회별신굿 탈놀이, 함경도 북청사자놀음, 황해도의 봉산탈춤, 경상남도 통영의 오광대놀이, 양주의 별산대놀이, 강릉 단오굿의 탈춤, 한양 주변의 산대놀이 등이 있고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사람들은 단순히 탈춤을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에 호응하면서 함께 즐기고 억눌렸던 감정들을 겉으로 드러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소망을 빌었다. 이 작품은 안동에서 하회별신굿놀이를 보고 난 후, 그린 작품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때, 붓의 획이 꺾이고 돌고 맘춘 듯 흐르고 힘찬 필획의 움직임이 탈춤과 닮아 있다. 이 작품은 꽃과 어우러져 탈춤을 추는 모습을 기운 생동한 필획으로 한지위에 먹과 필, 혼합재료를 써서 그려낸 작품이다.

박불똥

사진

토리노의 말
70.0×12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8



헝가리 감독 Bela Tarr(1955~)의 은퇴작 <토리노의 말>(2011)은 프리드리히 비헬름 니체가 겪은 말년의 '정신병과 죽음'에서 모티브를 취한 영화이다.

그리고 박불똥의 <토리노의 말>은 '황량하고 거칠지만 동시에 아름답고 장엄한 한 편의 영상시,

파열과 죽음을 향한 벨라타르의 시간'을 담은 영화 <토리노의 말>에서 모티브와 동명의 제목을 취하여 만든 포토 몽타주 작품이다. 말이 운송과 교통의 주요한 수단이던 옛날 니체의 시대와 '마력(廣力)적인 마력(馬九)'의 첨단 승용차가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 그 속도감에 대하여 성찰해 보게 된다.

시물레이션
116.5×91.0cm
캔버스에 아크릴릭, 유채스프레이
2017



시물레이션(2017)은 소형언어의 레퍼런스를 뇌라는 닫힌 방, 즉 사변적 세계의 우주로 한정하여 실험했던 <닫힌 방-closed scene>(개인전, 2017)에 출품되었다. 본 작품은 도시로부터 거주목적의 기능을 분리해내 무기력, 애도, 유희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감각의 덩어리로 도시의 정체를 다시금 호명한다. 가상의 시공간의 축을 경계로, 확장과 수렴의 공존이라는 회화의 특이점을 발견하고자 했으며, 또한 평면이 관객의 시지각과 반응하여 환영성의 붕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현장으로 확장하기를 바랐다. 이것은 회화에 대한 본인의 최초의 바람들과 연결된다.



작가는 본인의 소박한 바람과 이야기뿐 작품으로 표현한다. 행복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다고 얘기한다. 순백의 대리석으로 표현된 구두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분홍의 나뭇잎은 삶의 행복을 표현한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작품을 느낄 수 있고 편안하고 따뜻하다. 그것이 작가가 돌을 다듬고 만지는 이유다.



작가는 '불안'을 그려왔다. '무엇이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이것은, 개인의 내/외부 간의 간극으로 인한 개인 자체의 갈등, 개인/사회 간의 갈등을 불행의 하나의 큰 요소이자 이유로 보며, 그로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방어와 폭력성을 발휘하곤 하는지,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가 아닌 '그들'을 괴물로 치부하며, 한 권으로는 동시에 스스로가 어떠한 괴물이 되어가는지를 이야기해왔다. 그리고 그의 근간의 하나의 큰 이유를 '불안'(두려움)이라는 키워드로 간추려왔다.



<Transmission Tower II>는 <대부-구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화호와 인접한 대부도 내의 공간들을 관찰하고 기록한 이미지들 가운데 하나이다. 시화호는 과거 대단위 간척 사업의 일환으로 시화방조제가 건립되면서 조성된 인공 호수이다. 본래 간척지에 조성될 농지나 산업단지의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담수호로 계획되었지만,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해수화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오염 문제는 시화호 뿐만 아니라 인근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쳐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었지만, 해수화로 전환되고 난 이후 현재는 더 이상의 오염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다만 원래 계획되었던 농지 용도의 간척지는 현재 그 어떤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출입이 제한되어 방치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장소들 중 대부도 내의 '탄도', '대송단지', '외지섬', '터미섬' 등으로 연결된 장소들을 직접 관찰하고 이를 기록하였다. 그곳에는 출입이 제한된 도로와 각종 사인들, 더는 사용되지 않는 구조물들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서 자생한 각종 동식물들이 있었다. 이 작품은 그 중 시화호를 가로지르는 시화방조제와 송전탑의 모습을 담은 이미지이다.



[희한한 짐 3]은 세 작품으로 제작된 '희한한 짐' 연작 중 세 번째 작품으로, 세 작품 모두 꽃이나 눈물이 올려 있는 의자를 네 사람이 이고 가는 형상이다. 개인은 사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사회적 사건들을 겪게 된다. 이를테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이러한 사회적 사건들을 이내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올바르게 풀어나가도록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야 하는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철조망이 보인다. 철조망은 이곳과 저곳의 경계를 가르고 접근금지로 사용된다. 후미진 구석의 철조망의 풍경 속에서 나는 분단의 상처와 흔적들을 소환하였다. 녹슨 철조망, 부러진 기둥을 보면서 70년 넘게 이어온 체제 이데올로기를 대비해 제작한 작품이다. 녹슬고 부러지고 허술하게 유지되어온 분단체제의 이념들이 허물어져가는 철조망으로 설정해 표현하였다.



사람의 정신 활동에 관여하는 신경세포가 약 140억 개라고 하던가. 지구 인구의 곱절 보다 많은 뇌세포가 맥주병 두 병 용량에 꾸역꾸역 다 들어가는 셈이다. 뇌세포만으로 이러한데 사람 한 몸뚱이를 탈탈 털어 세포 숫자를 계산하면 우리 은하의 행성 숫자 와도 비슷하지 않을까! 우연히 책을 보다가 바다 해조류인 우뚝가사리 씨앗을 확대한 사진을 보게 되었다. 수없이 확장하는 듯한 연결망이 마치 뇌세포의 구조(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의 구조)와 많이도 닮아 있다. 어떻게 보면 대지의 땃줄을 서로 얹혀 매어 하늘에 그물을 쳐 놓은 듯 끝없는 증식을 하는 생명체와 같지 않을까! 노자의 도덕경에서 하늘 그물 이란 글귀가 생각난다. 모든 일은 事必歸正이라고 했던가!

박용일

서양화

He-story
65.0×91.0cm
Oil on Canvas
2018



박용일이 수년전부터 그리고 있는 것은 보따리이다. 이전 세대에 서는 보따리가 책가방으로도 쓰일 만큼 일상적이었지만, 포장재로서의 보따리는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다. 랩이나 비닐봉지 같은 것이 보따리를 대체했다. 일상에서 사라질 즈음의 물건들은 특별한 자리에 다시 나타난다. 요즘 보따리는 명절날 선물세트 등을 포장하는 등 '특별한' 용도로 사용된다. 그러나 보따리는 우리의 일상어에 여전히 남아있다. 가령,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전국을 떠도는 대학 강사를 '보따리 장수'라고 하고, 조직에서 누군가를 쫓아낼 때 '보따리 싸라'로 명령한다. 박용일의 보따리 그림들은 그가 살고 작업하고 있는 수도권 안팎의 재개발지를 비롯하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소재로 했던 이전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다. 무너진(또는 무너질) 풍경 이미지가 접혀 만들어진 종이배들은 정처 없는 유랑을 상징했다면, 보따리는 유랑하는 자들이 꾸렸을 집에 해당된다. 종이로 접혀진 배, 천으로 주름진 보따리는

같은 계열에 속한다. 그것은 안과 밖이 연동되는 유연한 평면으로서의 공통점이 있으며, 일상의 무대를 넘는 시공간으로 확장될 잠재력을 가진다. 20세기 초 몽마르트의 가난한 예술가들의 집결촌을 '세탁선(Bateau Lavoir)'이라고도 불렀듯이 집은 배와 비교된다. 배는 움직이는 집이다. 종이배는 극히 취약한 집인 것이다. 집이 인간의 연장이라면 보따리는 보다 직접적이다. 모든 유기체들이 조만간 어떠한 막에 싸여진 덩어리라면, 보따리들은 인간의 몸, 특히 얼굴을 떠올린다. 대개 한 화면에 배경도 없이 하나씩 그려져 관객과 대면하는 그 덩어리는 은유적인 초상이다. 이러한 은유적 형상들은 그의 비판적 문제의식이 보다 안쪽, 또는 더 머나먼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소재는 더욱 미시적 세계로 이동했지만 은유의 폭은 더욱 커졌다. 그의 최근 작품은 일상의 풍경부터 우주론적 경관까지 아우른다.

이선영 (미술비평)

환생의 숲
91.0×116.8cm
Acrylic on Canvas
2014



2014년 작품으로 주변 환경에서 수집된 자연 이미지를 이용하여 제작된 <환생의 숲> 캔버스 작업시리즈 중 한 작품이다. 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여러 장의 수집된 자연 이미지를 캔버스 위에 영사기로 투사한 후, 어두운 방 안에서 온 몸의 감각에 집중하여 여러 번의 아크릴 붓질을 하여 캔버스 화면을 완성해 나가는 식이다. '어두운 방'이라는 환경 속에서 눈의 감각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붓질을 함으로써 캔버스 위에 우연한 홀림과 색의 쓸림의 효과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한다. 본인은 이러한 작업의 과정 속에서 특정한 '현상'에 자신을 놓아두고 작품이 스스로 현상 속에서 발현하는 지점을 찾으려 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환생의 숲>은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성찰을 통한 자기 독백적인 성향을 보인다.

박재연

조각

unfamiliar mass-061515
46.0×52.0×51.0cm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에 백시멘트 직조 등 단조에 동접
2015



인간은 성장함에 따라 개인적이고 문학적인 조건에 기초해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 이미지를 '에고(ego)'라 하는데, 에고는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끊임없는 생각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마음이란 본질적으로 생존을 위한 도구이며, 감정은 마음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Unfamiliar Mass는 생각과 감정으로 드러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마음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작업이다.

hadaly
50.0×35.0×35.0cm
대리석
2017

박정우

조각



'hadaly'는 사진과 마찬가지로 소멸할 것의 실재성을 입증하고 '거기 있었음'을 재현한다. 이는 작업의 제작 과정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hadaly'는 초상화를 그리듯 눈으로 본 것을 옮겨온 것이 아니라, 캐스팅을 통해 실재 대상을 복제해 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hadaly'도 사진이 삶의 한 순간을 시간의 흐름에서 떼어 기계적으로 포착하듯이, 명백히 존재했으나 지금은 없는 실재 대상의 신체를 재현한다. 사진과 'hadaly'는 같은 형식을 지닌다. 일반적인 예술과 달리 지시 대상을 생성하거나 창조하지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신체가 복제된 형상 'hadaly'를 얼핏 데스마스크와 동일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데스마스크가 육체의기록으로써 존재한다면, 'hadaly'는 관람자에게 인간의 한계(죽음)를 드러내 보이며 진리를 촉구하는 예술로써 존재한다.

제 130회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 전공 석사학위 논문 (박정우)- 중

박주영

한국화

안녕의 무게
72.7×116.8cm
비단에 혼합재료
2018



나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평범한 풍경에 상상을 담는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개념으로, 나의 온 감각을 깨워 일상의 순간에 특별한 영감을 채워 주곤 한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낯설어진 풍경의 잔상으로부터 펼쳐지는 심상을 표현하고 있다. 작업의 주된 표현인 세밀한 획(劃)은 바람에 대한 반응으로, 찰나의 물리적 기록이자 알고 깊은 호흡이 되어 실제(實際)할 수 없는 잔상과 함께 회화적 상상이 된다.

Dawn Flowers
91.0×91.0cm
Oil on Canvas
2018

박지수

서양화



〈Dawn Flowers〉는 새벽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새벽의 푸른 색채로 물든 이름 모를 장소에서 흔들리는 식물을 포착한 장면을 연출한 작품이다. 생성과 소멸의 반복을 통해 생을 이어가는 자연의 순환은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실의 순간을 위로하는 메타포로 바라보고 있다. 부재로 인한 불안의 정서가 스며든 푸른 색채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식물을 통해 고독감과 희망을 동시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루의 끝과 시작이 동시에 공존하는 새벽이라는 시간은 상실과 존재의 경계의 시간이자, 동시에 공존하는 시간으로 정의하여 상실의 공허로 하여금 재생을 위한 '비움'(Empty)으로 재해석하여 경계와 공존의 자연속에서 상실의 순간을 위로하고 포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담고자 하였다.

박지현

한국화

빛무늬
90.0×90.0cm
한지커팅, 비단
2018



반투명한지의 모란꽃 형상을 칼로 오려서 중첩시키고, 그 위에 비단을 씌워 마무리한 작품이다. 민화의 모란도를 물성의 작용으로 발현되는 이미지로 재해석하였다. 반투명한지의 중첩과 비단을 통해서 발현된 모란꽃은 그 형상을 넘어 어떤 본질에 가까운 고유함으로 무늬화 된 것이다. 마치 무늬가 피어나듯 발화하는 빛으로 다시 현현되는 '빛무늬'를 시각화한 것이다.

박형진

조각

잠복기
30.0×30.0×30.0cm
브론즈, 화강석
2017



근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를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현실을 창조한다. 이러한 규정의 매카니즘은 그 이전의 산물이고, 그것은 또 그 이전 규정의 반영이다. 이 순환의 고리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관점으로 현실을 한정시킨다. 나는 작업을 통해 이러한 규정된 인식의 경계를 허물려고 노력한다. 나는 인체를 통한 일련의 과정을 수행으로 보고 싶다. 그것은 내 작업이 이성과 논리로서 보다는 내적 체험과 정신성을 기반하기 때문이다.

박혜수

사진

부풀지 않는 풍선
69.0×100cm
잉크젯 프린트
2011



2011년에 출판(에세이) 'What's Missing'와 함께 발표한 개인전 'What's Missing' (포스코미술관)에서 발표한 '부풀지 않는 풍선' 시리즈 중 에디션 없는 잉크젯 프린트 사진 작품이다.

내용> 어느 날 우연히 만난 한 초등학교생으로부터 '사는 게 지겹다.'는 말을 들은 뒤 미래를 기대하지않은 어린이들이 마치 아무리 불어도 부풀어지지 않는 김빠진 풍선을 보는 듯 했다. '꿈이 뭐냐.'고 물을 때 마다 '아직도 그런 걸 물어보냐'는 대답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꿈을 꾸지 못하게 태어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만남
60.6×72.7cm
Acrylic on Canvas
2019

반미령

서양화



먼 우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변해온 시간의 흐름을 초현실적인 풍경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현재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통찰해 보고자 하였다. 하늘과 구름은 우주와 연결된 공간으로 벽은 인간의 역사적 산물로 남겨진 흔적, 바다는 미지의 세계, 서랍장은 자아, 나무와 열매는 삶의 여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방병상

사진

Military Spectator #8
90.0×114cm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16



Military Spectator 연작은 육해공의 모의 전투현장에서 촬영된 각종 실전무기들을 일상의 풍경 곳곳에 합성한 작업이다. 전쟁무기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은 설정으로 SF영화의 장면을 보는 것처럼 가상의현실을 만든다. 이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전쟁무기는 일상 속에서 각종 미디어 속에서 보이고 있는 실체 없는 스펙터클한 풍경을 만들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각색된 허구의 풍경으로 전복되어지기도 한다.

Tree 1
90.9×72.7cm
Oil on Canvas
2013



만약 내가 바라본 공간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공기의 층이 겹쳐있다면 그 겹들 중에 하나 혹은 다름을 느끼는 몇 가지의 겹들을 선택하여 화면 위로 재 배치시킨다. 이러한 풍경 안에서는 바람에 의해 고정불변의 거대한 대상도 흔들릴 수 있으며 사라지는 듯한 연기나 혹은 불빛 같은 것이 무엇보다도 강하게 자리할 수 있다. 팔을 뻗어 저 어딘가에 있는 것을 지시해 본다면 그 끝이 향하게 되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이 자리하는 허공의 어딘가를 표현해 보려는 데에 좀 더 가까운 듯하다. 우리 눈에 보이는 특정 순간의 풍경은 결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시간의 간극을 갖고 있다. 이를 부분마다 흐리거나 움직이거나 고정되게 다르게 표현하여 풍경 안에서 여러 허공의 지점들, 혹은 각각의 대상들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의 간극을 나타내었다.

배성미

조각

흔들리고 부딪치는 것들
19.5×29.0×33.0cm
모르타르 캐스팅
2018



여기, 세상의 '흔들리고 부딪치는 것들' 중의 배추가 있다. 욕망이나 물질 같은 거대한 것들로부터 버텨야 하는 삶과 살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노동의 단상이다. '공사 말고 농사'를 외치던 곳,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던 배추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삶은 지속되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 가지만 세상을 타는 것이 아닌 좌절도 아닌 현실의 변화 속에서도 단단히 부여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노동의 일부분을 재현하고 있다. 농부의 노동과 나의 노동은 과연 다른가. 보이지 않는 노동의 가치는 과연 독립할 수 있는가. 시멘트로 떠낸 행위는 지나온 시간과 기억을 멈추게 함으로써 현재의 삶의 무게를 읽어내는 일이다.

마르는 정물
60.0×90.0cm
석판화
2019

백승관

드로잉&판화



이중으로 중첩되는 사물의 그림자에서 삶의 희망과 염원을 확인하려 하며 교차되는 중첩의 기법을 사용, 인간의 고뇌를 각각 초기와 후기로 그 시간과 장소성의 변화에 중점을 두어 표현해보려는 작가의 의지이다. 이는 일상적인 경험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소통의 방식이 된다. 그리고 두 개가 중첩되어 하나가 된 이미지는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는 현대인의 고뇌와 그 아픔을 치유함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려 하는 치유의 석판화 작품이다.

- 백승관 작가노트 中 -

백은하

서양화

몽환
72,5×60,5cm
Acrylic on Canvas
2017



우리는 때론 현실과 다른 삶을 동경하고 이상세계를 꿈꾼다. 몽환(夢幻)은 우리가 또 다른 이상을 꿈꾸게 하는 동기에서 시작된 '꿈'의 그림이다.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무의식의 세계에 현실적인 사물들을 그 본래의 기능에서 이탈시켜 놓일 수 없는 낯선 장소에서 조합시켜 환상을 창조해내는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물을 재배치하여 고정관념을 부정하려는 데 그 의미를 두었다.

백진기

조각

파괴된 경계
44.0×24.0×8.5cm
대리석
2016



작품 'The Fragmented Boundary(파괴된 경계)'는 조각적 행위의 무수한 반복을 통해 형태를 해체해 나가는 과정의 산물이다. 조각이라는 것을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덩어리(mass)에서 형태를 고집어내는 행위. 작가의 행위와 대상이 되는 물체의 성질이 만나 이루어내는 과정의 산물로, 작품은 흔적의 잔재로서 그 형태를 가진다. 이것은 고착화된 제작의 방법에 대한 해체이며, 질료(대리석)의 표면을 이루는, 감춰져 있는 겉을 벗겨내어 속의 성결(性潔)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서기환

한국화

사람풍경-Floral Bedding
52.7×64.5cm
비단에 채색
2016



온 가족이 꽃으로 된 이불을 덮고 평화로이 낮잠을 자고 있다. '꽃 이불'은 꽃길처럼 행복을 상징한다. 꽃 길을 걷듯 꽃 이불을 덮고 네 가족이 모두 각자의 행복한 꿈을 꾸다. 이렇듯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한 삶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린 작품이다. 본인의 그림은 본인의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의 행복을 그린다. 이것은 물론 현실을 기초한 상상화이다. 초현실적이고 상상적이지만 본인이 겪고 살아가는 가정의 일상을 희화화해서 유쾌하게 풀어내는 모습들로 본인은 그림을 통해 '가족은 바로 나이며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다.

포그혼(Foghorn)
8분 34초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2019

서소형

미디어아트



작품 포그혼(foghorn)은 대부도 주변에 안개가 빈번한 갯벌을 무대를 촬영하여 영상에 포그혼 사운드를 입힌 작업이다. 갯벌은 생명의 보고이며 오염된 환경의 콩팥 같은 역할로 지구상의 산소 생성의 많은 부분이 갯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연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상에서의 혼 소리는 확성기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아니며 마치 확성기에서 나는 소리처럼 느끼게끔 제작하였다. 영상의 확성기 구조물은 이 곳 주변에 사는 대부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확성기에서 자연환경의 안전을 위한 경고음처럼, 포그혼 소리에 음향 프로그램으로 피치 효과를 주어서 여러 음역대로 재 생성하였다, 소리는 마치 인간의 자연을 바라보는 이기심에 대한 경고음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 같은. 또한, 이 포그혼 소리가 명상의 공간을 만들어 훼손된 자연을 위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음향 신호인 배 기적 소리 포그혼은 보통 경고,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선박들 간의 충돌은 피하거나, 다른 선박의 의도 나 동작이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경우 등에 사용되며, 소리의 횡수와 길이에 따라 각각의 의미가 있는 신호 체계이다.

서수경

서양화

그마음
61.0×73.0cm
Acrylic on Canvas
2015



타인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 조심스럽고 망설여지는 주제이다.

나 자신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오가며 경험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그 가족들의 모습을 본다는 것. 뭐라도 그려야 한다는 생각은 시간이 좀 지나서야 가능했고, 참사 1년'망각에 저항하기'전 출품작이다. 물리적 공간이 일순간 사라지고, 오로지 '내 새끼'만 읊조리는 엄마다. 진상규명도 책임자처벌도 미진한 채 지난 4월이 지났다. 가족들의 고통이 더 깊어졌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나를 본다.

Magnifying Glass
100×100cm
디지털 c 프린트
2011

성지연

사진



작가는 프랑스 브류타뉴의 한 시골 마을에서 만난 제빵사, 도서관 사서, 농부, 학생, 호텔 여주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 그들의 거실을, 방을 작가의 스튜디오로 만든다. 작가는 인물 스스로 삶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그의 현실을 과장하지 않고 단순한 일상적 행위로 재현한다. 연극적 차원의 연출로 인해, 보통의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하지 않고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진다.

성필하

서양화

주인 없는 자동차
72.7×90.9cm
Acrylic on Canvas
2019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너무 흔한 사물들, 혹은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침묵 속에 가려진 존재를 그린다. 단순히 재현이 나 강조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이다. 푸른 녹음과 풍경 사이로 비가시적인 존재들은 오직 부재로서 현시하고 있다. 비-존재는 그 텅 빈 역설로 인해 가시화되면서 화면 안에서 가장 밝게 빛나고 있다.

Unknown Hawaii 2 #01
75.0×100cm
디지털 프린트
2017

선박

사진



2월, 미국 서부 LA에서 동부 New York까지 횡단을 시작으로 Alaska, Hawaii 및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호주에서 작업한 Unknown시리즈 작품들을 모아 새롭게 선보이는 전시다. 미 발표작인 Unknown Hawaii 2 시리즈와 함께 이번에 보여지는 Unknown시리즈 작업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세계 각국의 대도시가 아닌 넉넉하지 못해 대도시로부터 밀려나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외된 도시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다. Unknown시리즈 작업은 오랜 시간 동안 관리되지 않아 허물어져 가는 주변의 모습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대도시와는 달리 시간이 정지되어 버린 것 같은 풍경들을 촬영한 사진들이다.

소수빈

서양화

표본 01
80.0×116cm
Oil on Canvas, 비즈
2019



<식물 실험>의 표본 시리즈들은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들을 분리하여 회화 작업으로 표현하였다. 본 작품에는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평등하게 늘어놓은 화면 구성을 이루고 있다. 생명체의 특징인 종적 번식을 향한 다양한 식물의 모양들을 제시한다. 무한을 암시하는 짙은 파란색, 계속 증식하는 듯한 화려한 원형 세포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고 있는 잎과 줄기가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꽃과 그 암술과 수술을 특별히 확대해서 묘사한 작품이다. 표본 시리즈에서는 주로 자연의 순환 구조 안에서 식물체가 가지는 증식, 분열, 반복의 과정을 식물의 형태와 패턴을 통해 연구한다. 식물 이미지의 재조합을 기초로 예술과 과학 융합 실험의 기초단계로 식물을 매개체로 창작하여, 작품을 통해 식물의 다양한 환경적 모습을 중심으로 실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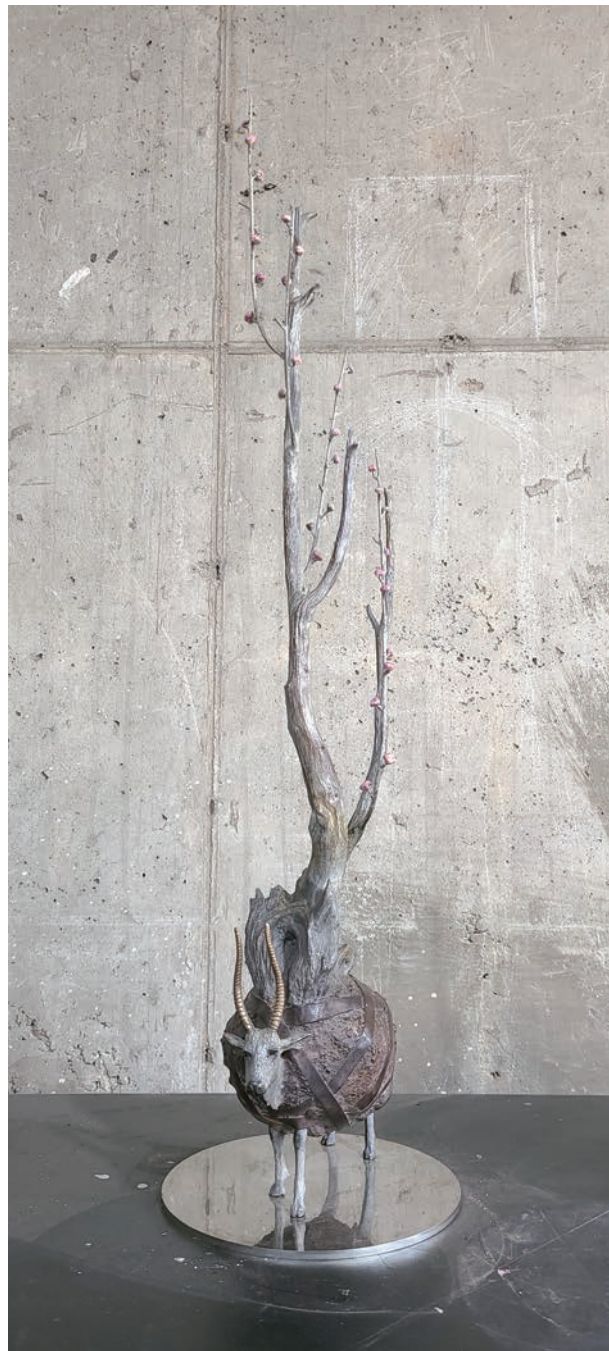
그 길을 바라보다
72.7×60.6cm
Acrylic on Linen
2020

송지연

서양화



도시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변 환경인 도시를 고향의 의미로 그리고 있다. 위의 작품 속 이미지는 서울 종로구 종각사거리의 높은 건물 위에서 아래를 바라본 풍경이다. 지나가는 자동차 그리고 빼곡히 모여 있는 건물이 마치 도시인들의 삶의 모습을 대변한다.



‘실낙원’은 인간의 삶의 여정을 빗대어 표현한 작품 시리즈 중의 소형 작품이다. 전작들에서 삶의 과도한 무거움을 돌을 짊어지고 여정을 가는 ‘실크로드’ 작품들로 선보였다면 ‘실낙원’은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도한 팽창이 인간을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난 생명을 담은 자연을 짊어지고, 힘겨움 속에서도 고고하게 걸음을 걷는 형상이다. 그 길은 돌덩이같이 무겁고 과도한 욕망이 남긴 발자국이며 긴 여정이 남긴 거대한 기억의 창고이며 그 와중에 살아보고자 하는 인간의 희망에 기댄 작품으로 나는 인류학적 서사를 통해 인간의 생명의 순환, 흐름, 여정에 대한 숭고를 경외하는 작업으로서 본 작품을 제작했다.



우리의 전통 자기인 매병이나 주병, 항아리의 형태를 유지한 채 그림과 표현방식은 서양의 형식으로 바꾸거나, 혹은 형태와 그 위의 그림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표현방식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이 작업은 2차원으로 환원되어 벽에 걸린 철화매병자기에 그림을 서양의 형식-웨이우드 제스퍼웨어에 주로 사용된 저부조 형태로 바꾸어서 만들었다. 우리에게 둘 다 익숙한 형태와 패턴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이질감이 느껴져야 하는 두가지 소재가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됨으로써 낯설지만 익숙한, 어울리지 않지만 미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표현하였다.



창을 통해 들여다보는 낮은 조도의 조명 아래 에칭 프레스기, 마치 물레에 일러 100년 동안 잠을 자고 깨어난 마법의 고전동화처럼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노트 중에서)

신선주의 모노톤 작업은 그리고 지우며 다시 그 위에 그려내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행하고, 완성된 작업은 아주 섬세한 가는 선까지 표현되어, 일명 '검정 색조의 방식'(maniere-noir)으로도 칭하는 메조틴트(Mezzotint) 표현과 흡사하다. 사진이 창조되기 전 회화의 복제술로 이용되던 메조틴트 기법의 개념을 끊임없이 인식된 감각과 개념의 추상적 사고를 왕복하며 회화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은정, 관훈 projects 기획개인전 서문에서 부분 발췌)



오래전부터 날아 가는 것, 비상(새, 바람 등등)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비상한다는 것은 바람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비상은 바람과 힘에 의해 일어난다. 바람은 형태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그 바람을 형태로 표현한다면 여러 가지 중 아마도 지상에서 허공으로 끌어 올리는 모양도 포함될 것이다. 그 모양을 꽃으로 표현한 것이 "바람의 꽃"이다.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감을 살려 표면에 문양을 넣어 분위기를 살렸다. 이 작업은 용접 없이 조립식으로 만든 작품이다.

안경진

조각

농무
45.0×25.0×20.0cm
브론즈
2017



대학시절 신경림 시인이 쓴 '농무'를 읽고 크게 공감하여, 오래 동안 같은 주제의 작품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이 작품은 2017년에 만든 버전이다. 시에 등장하는 농부의 고된 삶과 예술가의 애절함이 다르지 않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울부짖음과 발버둥의 몸짓이 예술로 승화되는 과정을 구체화 하고자, 한발로 선 체 위태로운 춤을 추는 인물의 비장미를 묘사했으며, 한발과 팔을 치켜들었으나 고개를 수그린 춤사위를 통해 양면적이고 격정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는 슬픔과 신명, 고통과 환희, 죽음과 생명력 등의 이중적 모습을 하나의 작품에 담아내고자 노력한 것이다. 묵직한 숙명을 역동적 형태와 사실적이고 거침없이 연출하여, 민족의 정서가 조각 작품에 깃들도록 노력하였다. 본래 판매를 위해 만든 작품이 아닌, 나에게 도움주신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만든 작품으로 10개의 에디션을 제작하여 5개는 지인들에게 나눠주었고 그 중 에디션 1번은 지난 해 존경하는 신경림선생님을 직접 만나 헌정하였다.

way slowly2 0142
70.0×65.0cm
장지에 수간채색
2016



나는 현대인들의 절제하지 못하고 끝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이번 작품으로 표현하였다. 바탕의 붉은 색은 사람들의 욕망을, 화면 아래 색면은 사람들의 무의식속의 욕망을 표현하였다. 보자기를 화면 위에 배치하여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화려한 색과 무늬로 포장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자기의 화려한 무늬로 나타냈다. 화려함 속에 가려진 인간의 욕망의 허무함을 빈 보자기 또는 투명한 보자기의 모습으로 나타낸 작품이다. 현대인이 가지고자 했던 것의 의미와 가치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빈 것 일수도 있기에 투명한 보자기로 표현하였다 (작가노트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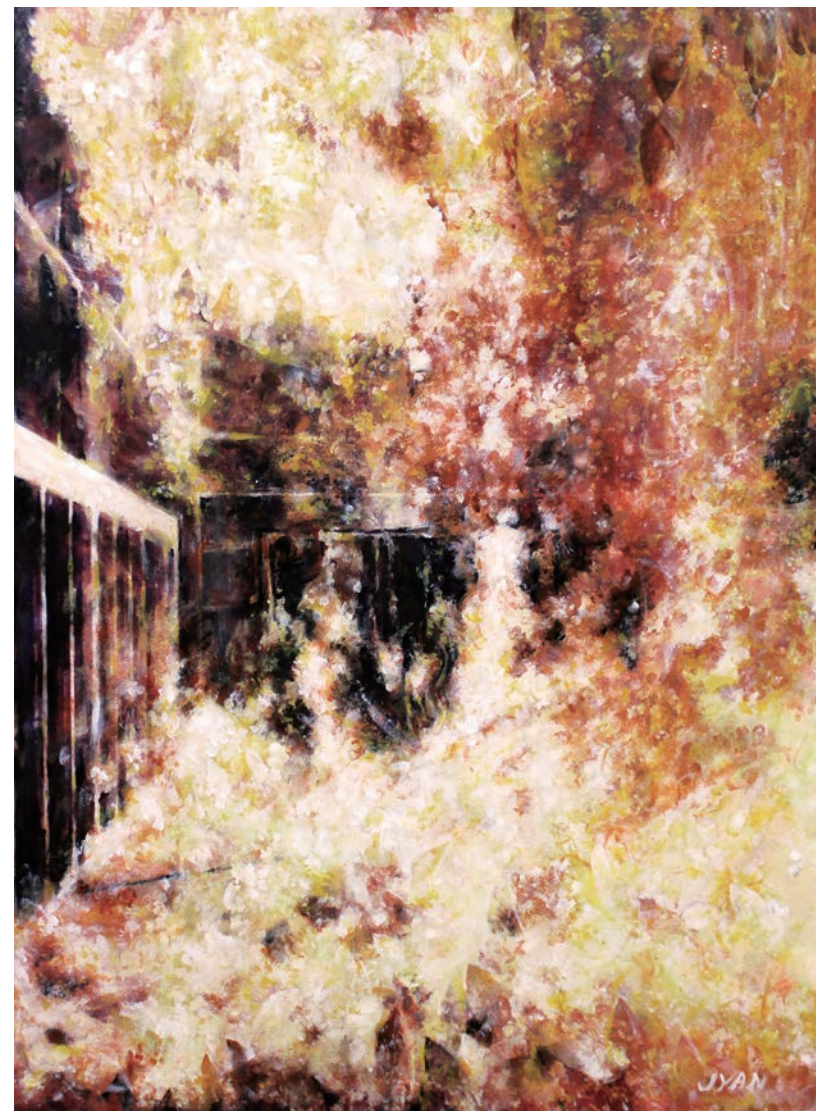
어떤 가상의 공간들 속에 덩어리를 닮은 형태의 색면을 배치한다. 한 화면에 다양한 풍경이나 공간을 만드는 것. 다양한 색과 붓질들이 부딪히며 자아내는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려 한다. 작가 자신은 아름답게 꿈꾸기도 하고 힘들게 다투기도 한다. 행복과 불행. 어두움과 밝음. 색채와 붓질들의 밀고 당기는 그 긴장을 사랑한다. 내가 만든 공간은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현실을 넘어서는 가상의 공간. 작게 여럿이 모여 있기도 하고 크게 존재를 드러내는, 덩어리를 닮은 형태들은 작가가 사랑하는 무엇이기도 하고, 작가 스스로이기도 하다. 작가의 이 행위는 여러 색과 다양한 형태를 통해 가상의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찾는 구도의 과정이다. 제목처럼 '구르는 돌'같이 화면 속에서, 현실 속에서도 열심히 구르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태도이며 바램이다.



그의 대표적인 작업이 반사적 선택이다. 반사적 선택은, 작가가 선택한 공간 (광장이나 서로의 감정이 대비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혀 다른 내용들이 겹쳐지는 표현 방식이다. 반사적 선택은, 위 아래의 다른 이미지들로 인해 반대적 의미로 대치하는 흑백의 논리나 이원론적 대립을 의미하기 보다는 주로, 화해와 상생의 의미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서로의 상황과 감정이 대립될 수는 있지만,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해 보는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공간과 상황을 표현, 아니 연출했다고 하는 것이 더 양경렬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 임대식)



이 그림은 충정아파트를 방문하고 그린 것이다. 내가 타인으로서 아파트에 들어설 때부터 어리석은 길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 분명하다. 이방인은 그 장소에서 탐험가가 된다. 그 곳에서부터 스스로가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간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본인이 만들어 낸 환상 속에서 그 장소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충정아파트 방문은 매우 어리석은 시간의 연속이었다. 들뜬 마음만으로 그 곳을 대했기 때문에 정작 그 장소의 원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왜 벽 바깥의 타인처럼 그 장소를 들떠서 신기하게만 여긴 것일까. 기만이고 위선이었다. 타인이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시간, 같은 시대, 같은 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때로 같은 풍경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인간의 의도성은 일상적인 풍경 속에서 멋을 발견하게 하고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낯선 세계를 탐험하게 한다. 예술은 이러한 의도성과 상상력이 만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환상이라는 내적 판타지로의 여행과 그 길목에서 만나게 되는 풍경을 보여주는 작가의 그림들을 통해 매일 식상한 생활에서 각자에게 의미가 있는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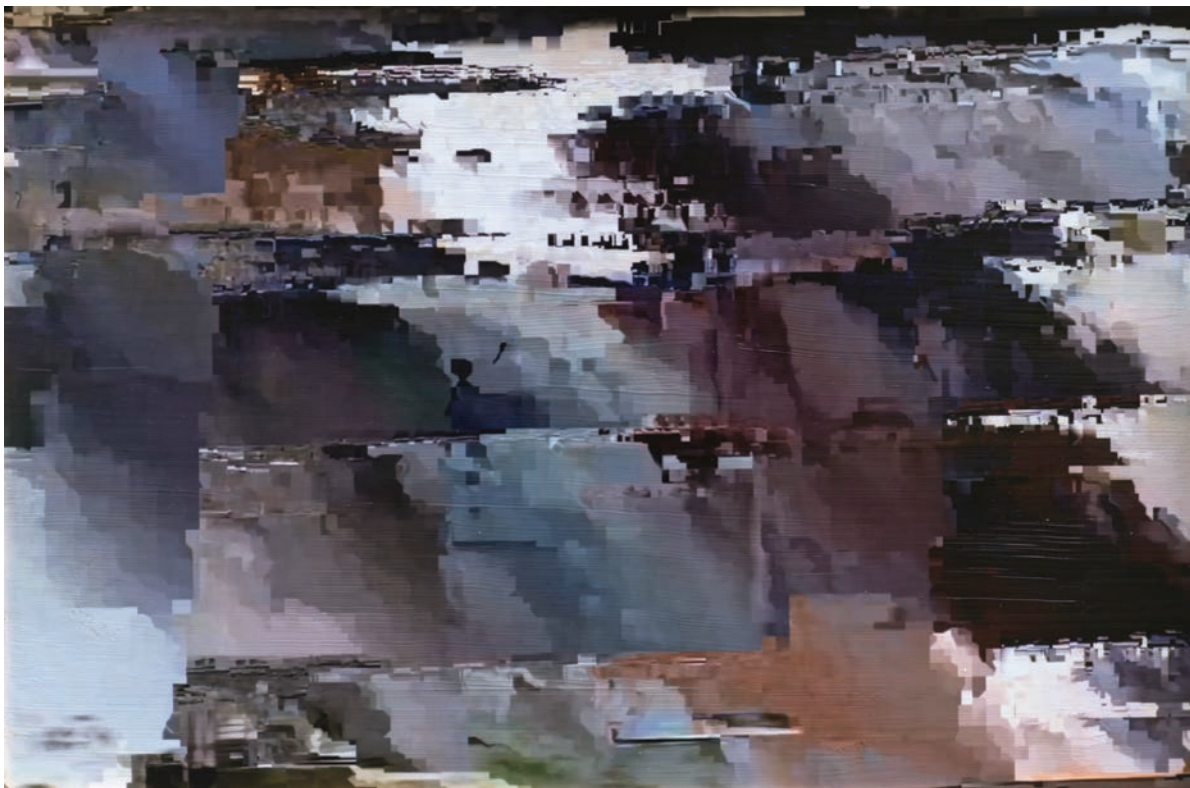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희년은 50년마다 모든 땅의 소유를 원래의 소유자로 귀속시키게 하는 법적 제도였다. 희년이 선포될 때에 울려 퍼진다는 나팔소리는 유목을 꿈꾸는 사람들의 맥박에 아직도 남아있어, 새로운 길을 떠날 때면 다시금 진동하며 요동친다. 먼 땅으로의 여정에 오를 때면, 나는 희미하지만 명료하고, 작지만 묵직한 내 안의 나팔소리를 듣는다.

(작가노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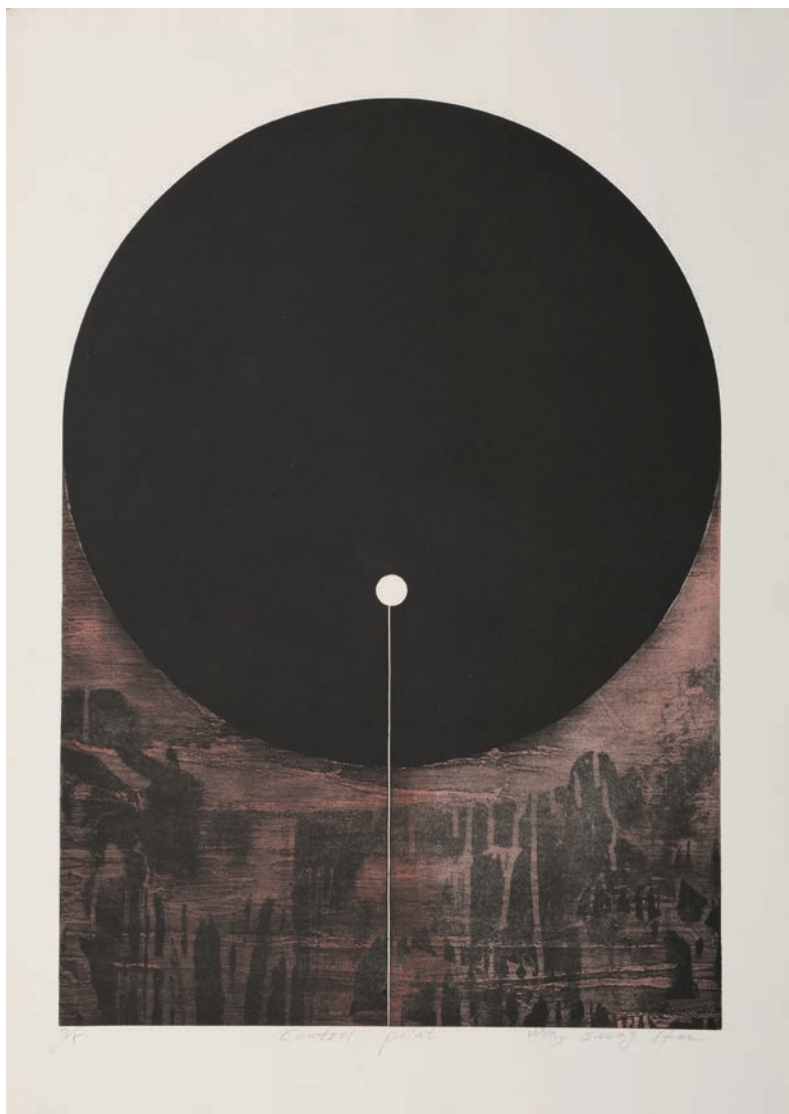
2020년 초 강원도 산간에 눈이 많이 내려 태백의 여러 고갯길들을 다니며 스케치하여 작업한 것들 하나로 곧 눈이 쏟아질 것 같은 어두운 하늘과 이미 눈 속에 묻혀버린 산등성이를 보며 곧 울어버릴 것만 가다는 생각을 하였었던 풍경이다. 장지에 수묵으로 그림을 그린 후 아크릴 과슈로 여러 차례 조금씩 색을 쌓아가며 작업을 하였다.



Glitch는 <검은 바위는 함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제작된 평면작업이다. 전통민요 휘모리 잡가 중 '바위 타령'의 가사에 나오는 바위들로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에서 작가는 미디어로 매개되는 시대에 세상을 만나는 방식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돌아본다. 글리치 작업은 실재의 풍경을 마주하다가 어긋난 풍경들을 채집하고 선택하고 오프라인으로 불러온 후 투명한 미디어들을 통해 이미지와 실재 사이의 막을 생성한다.



신 무릉도원-동행은 이른 아침 도원 풍경을 배경으로 새 마리의 목이 긴 새가 나는 작품이다. Utopia는 현실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가고 싶은 곳을 말한다. 여기서 새 마리의 새는 가족의 의미이며 한 곳을 향하여 나는 모습은 희망과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기원이다. 캔버스 위에 먹과 아크릴로 제작된 왕열 작가의 2019년 제작된 작품이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쁠 때에 함께 하지만, 슬프거나 괴로울 때나 외로울 때도 서로를 위로해가면서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삶의 희로애락과 어울림 중에 많은 갈등 생겨 나기도 한다. 갈등은 자주 관계된 이들의 괴로움으로 바뀌고, 심한 경우 사람의 인생이 파열에 이르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중심이 아닐까? 이런 삶의 중심을 판화적 기법을 이용하여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방법: 동판에 이미지를 그린 후 부식액으로 부식시켜 동판 위에 새겨진 식각된 이미지에 판화 기법으로 판화지 위에 올린 후, 프레스기에서 압력을 가하여 찍어낸 작품.



어렸을 때부터 소녀를 즐겨 그리곤 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심미적 관점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소녀라는 존재가 나에게 가장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이다. 내가 표현하는 소녀는 순수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내 과거이고 미래의 의지이기도 하다. 사회로의 적응과 그에 따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그림이란 세상에서 순수하게 존재하는 소녀들을 통해 위로를 하고싶었다.



수면 위 풍경을 보며 사색에 잠겼던 기억들은 물결과도 같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 흐르듯 떠돌며 시간과 공간은 서로 얹히고 덧씌워진다. 외부로 시선을 이끄는 공간구조와 액자 프레임 위로,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이자 수면 위에 비친 식물의 이미지로 상징되는 일종의 '연상의 조각들'이 물결과 같은 의식의 흐름을 따라 흐르듯 부유하며 기억과 현재를 연결시키며 새로운 사색의 풍경화로 재구성되었다.



놀이는 즐거움이다. 어느 순간 즐거움은 현대인의 이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인의 삶은 이상으로 여기는 마음의 경계와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현실적 경계 사이에서 어쩔 수 없는 심리적 간극이 존재한다. 가끔 작업의 소재를 위해 산에 머물러야 할 때는 최대한 드로잉과 취재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산에 대한 기억과 경험 그리고 자료들을 토대로 화면에서 가상의 봉우리도 만들고 골짜기도 만들면서 유희를 즐기는 것이다. 즉 작업하는 과정 전체를 놀이로 상정한 것이다. 그렇게 사생한 풍경이 담긴 기억 저장소를 진경(眞境)으로 구현하는 헤테로토피아적 유희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새 친구 딸 수정이가 성장해 결혼을 한다고 연락이 왔다. 왜 이렇게 어색하고 감당이 안되는지 모르겠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내 딸도 남친이 없어 걱정되는 시기가 되었다. 초대장을 보면서 딸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 마음과 젊었을 때 신혼 시절의 아스라한 추억을 소환하면서 가슴 한 켠에 아릿함과 정겨움에 미소가 지어진다. 그 때가 좋았제! 이 이야기를 딸과 나누려다 '신혼처럼'을 드로잉하기 시작한다.

—평론가 박철학—

윤선홍의 세계는 꽃과 식물들의 정물과 다양한 공간으로 이루어진다. 그때 정물과 공간은 단순한 조형미의 대상으로 머물지 않는다. 그의 세계에서 대상은 거의 언제나 작가의 심상을 담은 상징으로 승화되기 때문이다. 안에서 밖을 향하는 공간은 마음의 조리게처럼 정물을 만나 따뜻한 은유를 이룬다. 설레는 손길처럼 환하게 우리를 맞이하는 꽃과 식물들의 조용한 노래가 그 안에 담겨 있다.

—2018년 인사아트스페이스갤러리 윤선홍 개인전 도록 중 평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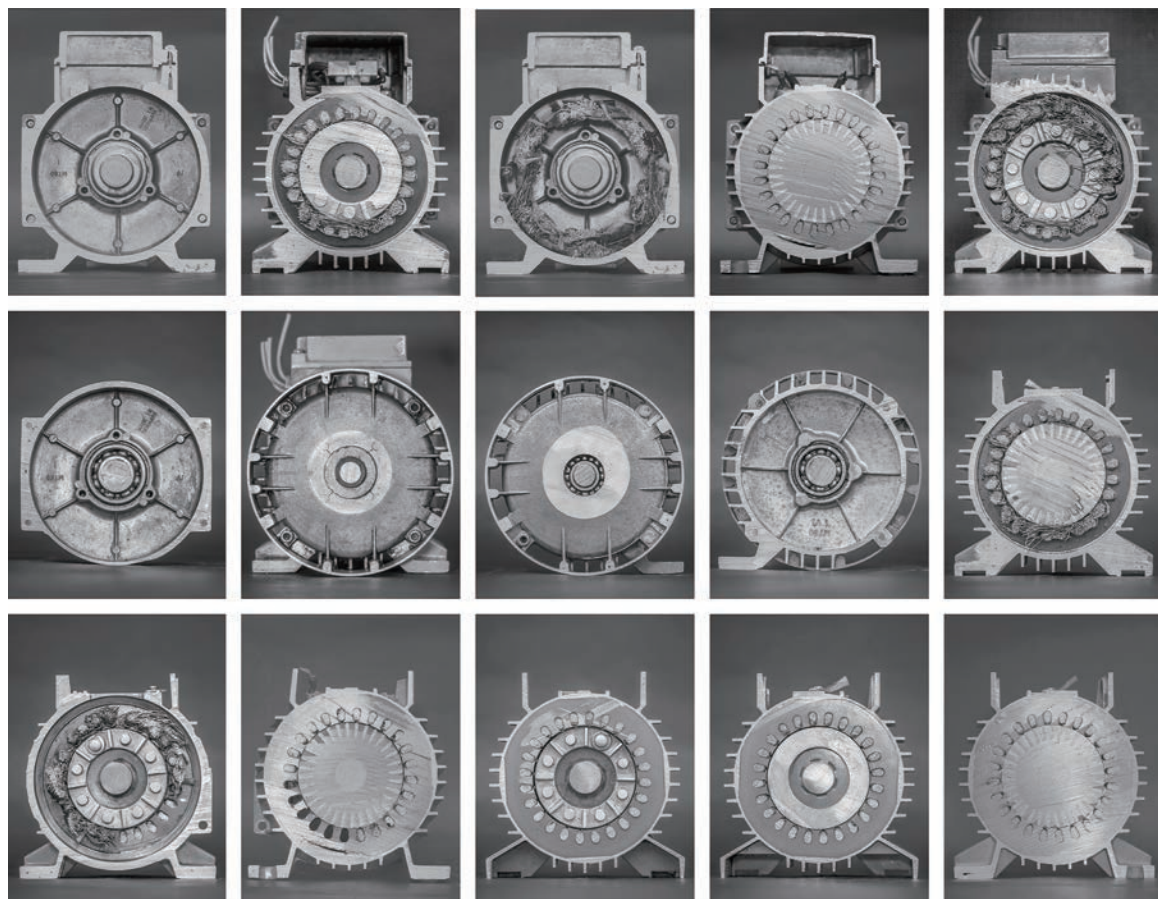


본 작품은 2005년 이후 지속된 저부조 입체 구조물 위에 현영을 묘사하는 다양한 연작들 중, 하나인 “원도우”시리즈의 최근작이다. 작가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이자 형식인 환영을 통한 착시, 이를 통해 보는 것, 보여지는 것과 믿는 것 사이의 인지에 대한 질문,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세밀한 묘사를 통해 연출함과 동시에 평면과 공간 사이의 모호한 지점을 구조화하는 표현 방식을 통하여 현실과 이상 사이의 부조리의 간극을 메우고자 하는 작가의 끊임없는 노력의 탐쌍기 연작이라 할 수 있다.

이경희

사진

(un)Sealed Memories
84.0×118cm
잉크젯 프린트
2016



현대 기술에 의해 기계 사물들은 빠르게 버려지거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나크로니즘적인 것, 즉, 현재나 미래의 것이 아닌 과거의 것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착오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분명 현재의 것이다. '현재의' 것으로서 '현재 안'에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의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지나간'이라는 의미를 안고 부유하는, 일종의 모순적인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지럽게 누운 풀
91.0×116.8cm
Oil on Canvas
2017

이계월

서양화



‘나는, 그림을 따라 나를 읽고, 그림은 나를 따라 움직인다.’

2016년 12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원에서 혼자 살게 되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 바로 2017년 개인전을 준비했다. 자연스럽게 가족과 함께 했던 20년을 작업으로 정리해야 했으며, 아울러 혼자 살아내야 함을 표현해야 했다. 개인전 준비 첫 작업이 '어지럽게 누운 풀'이었다. 마음이 어지러워 어떻게 정리하고 가다듬어야 할지... 막막하면서도 의연함을, 하지만 망망 무너질 수는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



80-90년대 유년시절 사진 속 인물들, 기억, 상상을 하나로 조합하여 가상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작품에는 주로 '나'와 관련된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치 연극 무대의 한 장면처럼 주인공이 등장하고 주변을 연출하듯 한 장면을 구성합니다. 작품에 인물들과 함께 등장하는 동식물들은 작가의 어린시절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었던 서구적인, 이국적인 낯선 풍경들이 반영된 다소 현실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불러일으킵니다.



작업은 비슷한 성질의 색들이 만날 때와 서로 다른 성질의 색들이 만날 때의 힘의 크기를 구분하고 그 색들이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름과 내림의 진동을 활용한다. 오름과 내림의 진동의 깊이를 조정하고 그 깊이가 화면 안에서 어떤 리듬을 이루도록 구성한다. 결국 상상력과 감성의 자유로운 유희와 카타르시스적인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흥가분하고 자유로운 쾌감과 몰입의 세계를 열어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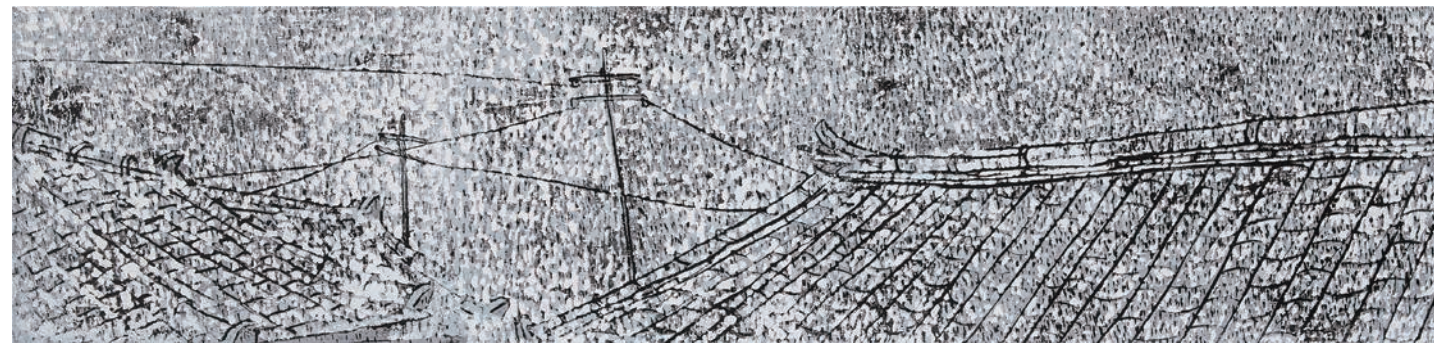
이미진 공예

아름다운 경계
120×120×30.0cm
도판에 청화, 나무
2016



이 작품은 하나의 공간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기 위해 기획, 제작된 도자 오브제이다. 기존 파티션에 사용되는 나무나 천이 아닌 긴 도판을 활용했으며, 앞, 뒷면과 접었을 때의 모양까지 고려해 제작되었다. 기다란 도판으로 자칫 무겁고 답답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시각적 아름다움을 위해 자유로운 형태의 사각 구멍과 청화 그림으로 화사함을 더해 두 영역을 구분하지만 자칫 서로를 배척하는 딱딱한 도구가 아닌,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심미적 가치를 담은 작품이다.

초겨울 함박눈 Y
30.0×130cm
Acrylic on Canvas
2019



수많은 나날을 타항에서 보냈던 작가에게 고향의 편안한 모습은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품과 같은 기억이다. 작가는 3년 전부터 작가의 어릴 적 동네인 광주 양림동을 배경으로 한 '양림연화 99'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지금도 활발히 작품 제작 중에 있다. 그 중에 39번째로 제작된 <초겨울 함박눈 Y>는 초겨울 눈이 펄펄 내리는 어느 날을 배경으로 하고있다. 광주 양림동은 평균적으로 눈이 많이 오지 않은 지역이라 더 새롭고 환상적이게 느껴진다. 판화와 서양화를 접목시킨 혼합 기법(판타블로)으로 제작하였으며,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사용하였다. 전체의 구성을 선과 면으로 표현하여 화면이 최대한 평면감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판타블로(Pan Tableau): 판화와 유화의 특성을 가미하여 화가 이민만의 독특한 효과를 만들어낸 서양화이다.



생명체의 역동적이고 무한한 현상을 일상 속 오브제인 색연필을 이용하여 본인이 정의한 '세포'라는 모듈을 통해 형태로서 드러내고자 한다. 평면적 방법으로는 하나의 성체에서 파생되어 응집하는 세포의 모습을 색연필 앞머리 수천 개로 중첩되어 그려내었다. 이는 번식을 위한 세포의 자기복제성을 펜으로 표현한 것이다.



자연은 다변하는 인간사와는 달리 늘 無爲之爲(무위지위)하다. 스스로 그러한 상태의 자연은 때로 공간의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고, 색과 공간에 대한 思推의 느낌을 보여준다. 太古의 소리를 간직한 채 섬없이 흐르는 강과 잡목숲의 변화를 너른품으로 안은 산, 바람과 햇살이 빚어내는 들꽃의 풍경, 그 언저리에 삶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風情! 그것은 추상적 變奏(변주)가 되고, 목판 작업의 기법을 빌어 造形化된다. 생명의 rhythm을 체득한 조형적 변역이다. 대상으로부터의 감동이 무심사 작업으로 이어지는 自然法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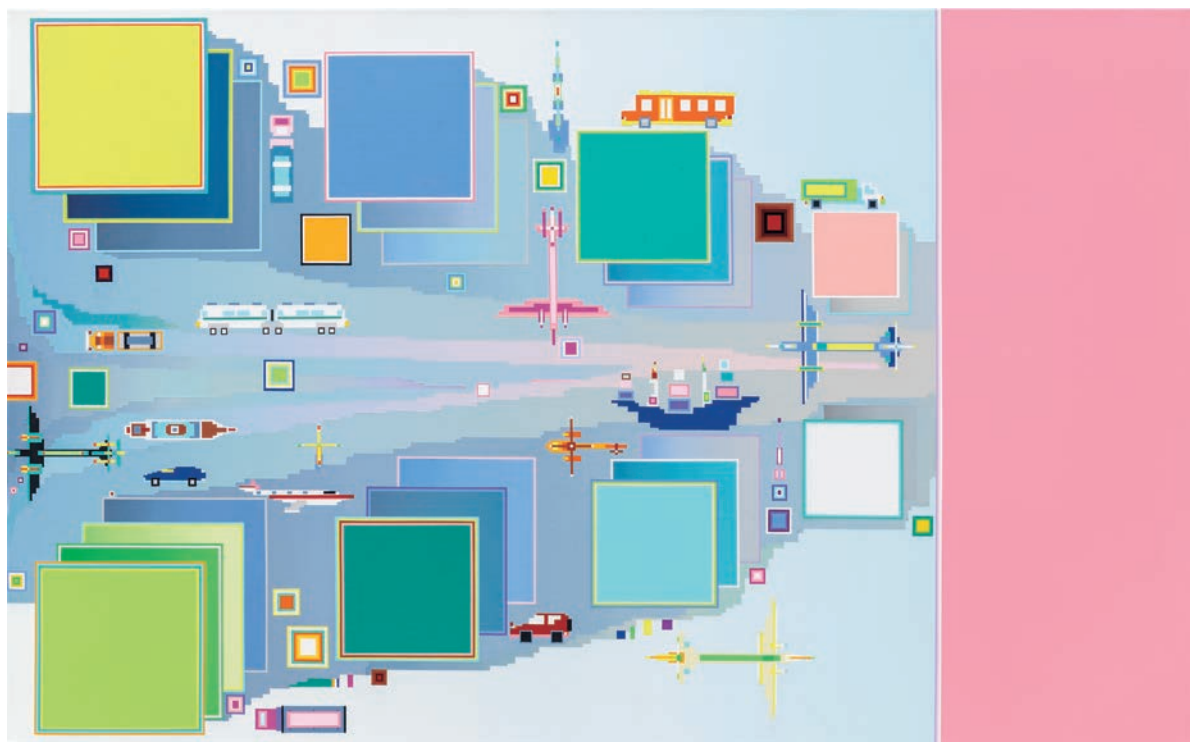
(이봉임의 작가노트)



깎고 덧붙이는 과정을 통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담긴 동네의 모습을 재현하고 기록한다. 이는 개발이 중단된 곳인 동시에 우리들의 추억 속에서 시간이 멈춘 곳이기도 하다. 낡고 빛바랜 동네의 모습을 보면 개개인이 저마다 가지고 있던 네러티브를 떠오르게 한다. 나무판 위로 '옳겨진 풍경'은 현실에선 사라진 풍경일 수 있다. 하지만 조각 하나하나에 그 동네의 숨결이 담겨 있어 감상자의 기억의 관념을 이끌어 내 무한히 존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여행을 다소 늦게 시작했다. 낯선 하루하루가 의문투성이 이긴 하지만 스스로 어른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답을 찾는 중이다. 화면 안에 가득 찬 화분들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무리의 공간을 지켜주는 테두리이며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구성되어진다. 그 사이에 화려하면서도 따사로운 천 들이 놓이면 비로서 주인공들의 소소한 대화가 시작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우리들의 대화는 서로를 공감하며 이성적이고 진실되게 전개될 것이다.



나는 현대 도시를 사각형의 이미지(square)로 설정하여 기하학적 도시 풍경을 그린다.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 나의 작업은 정지된 물체와 이동하는 물체가 복합된 지도처럼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원근법을 배제하고 있다. 다각적 시점은 이동에 전제된 차원의 변주를 상징하며 점점 정보화되어 가고 있다.



물질문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발생한 수많은 부정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회화를 선택하고 그 접근을 위해 물질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이미지들(자동차)을 차용한다. 차용된 이미지를 또 다른 이미지(비너스)와 함께 대구 혹은 대조적인 병치 또는 반복 등으로 화면 구성한다. 그리고 직관적인 드로잉이나 분할의 과정을 추가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발생된 이미지들의 양면적 혹은 다양한 의미들을 이용하여 물질문명의 발전에 따른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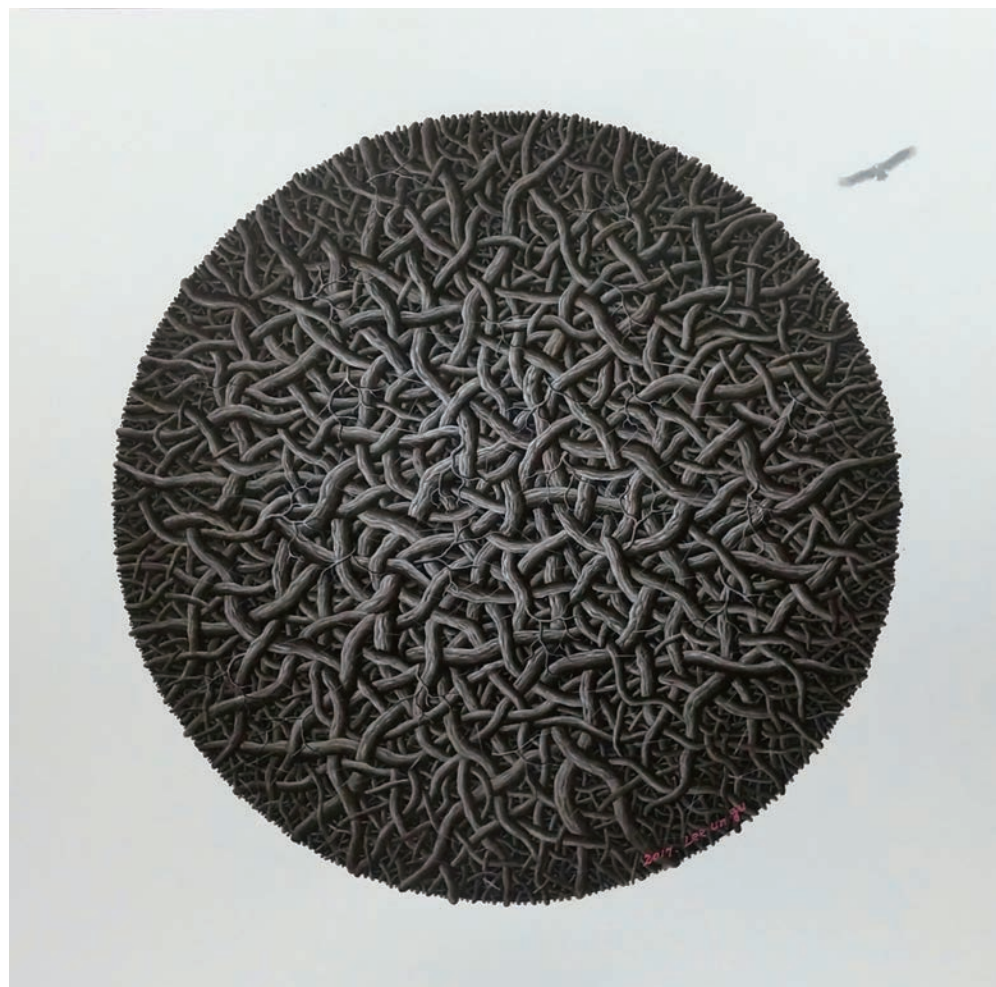


한껏 멋을 내고 포즈를 취한 흑인 소년. 인터넷의 수많은 이미지들 중에 다소 과하게 치장된 모습이라 그 배경이 궁금해진다. 사진 속의 소년은 미국 부호의 아들도 영국 상류계층의 아이도 아닌 입양을 기다리는 아프리카 소년이었다. 수많은 단면들 속에 작가는 아이들의 희망적인 요소들을 집중하여 밝혀 주는 것에 집중한다. 누구나 각각의 개성들이 있고 꿈이 있듯이 작가만의 세계관에서 아이들은 입양을 호소하려 치장된 모습이 아닌 어느 쇼의 모델처럼 당당하고, 꿈을 수놓는 당당하고 어느 집의 아이들과 같은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린다.



〈City Cheonan〉은 충청남도 천안시의 풍경을 작가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그려낸 목판화 작품이다.

천안 12경으로 불리는 독립기념관, 각원사, 천안삼거리, 아라리오 광장, 천호 저수지 등의 명소를 새롭게 구성하여 그렸고, 호두 과자와 병천 순대, 천안 예술의 전당과 같은 천안의 상징들을 전광판에 위트 있게 담아내었다.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선보이는 도시 풍경에 작가의 인상과 기억들을 버무려 익숙하지만, 낯선 풍경을 보여주려 하였다.



숲은 인간의 삶 전체를 품어내는 또 다른 세계이기에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고자 하는 영원과 메마른 나무의 유기적 군집은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희망이며 나아가 인간 사회를 숲으로까지 인식하고 수많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갖가지 애증의 삶을 살아가는 사회도 더 공정하고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숲 그림을 통해 건강한 땅의 기원을 넘어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열망하는 한 인간의 근본적 욕망의 표현인 것이다.



나는 자연 · 인간 · 순환 · 생명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 왔다. <명상 - 삶에 대하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손때 묻은 성서를 펼쳐보며 뇌리에 스친 메시지를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 청동으로 캐스팅한작품이다. 오래된 성서는 기능을 다 했지만, 그 말씀은 잔잔히 퍼져가는 파동처럼 영원히 살아 생명의 싹을 틔우고 세상을 향해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 나무의 살을 깎아 만든 책이 다시 제 살을 틔운다는 순환의 논리는 사뭇 종교적 윤회나 참 자아를 찾는 여정을 연상케 한다. 이는 무념이나 무상의 종교적 차원으로도 해석되나 삶의 윤회나 생명의 원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마음이 날다." 연작의 초기 작업들이 일기처럼 과거 개인적 경험들에서 느끼는 감성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면, 지금의 이야기들은 앞으로의 희망과 바람들이 주된 이야기들로 그 내용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가상의 공간 안에서 종이비행기를 통해 고정된 대상에게 보내지던 이야기들은 관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그들만의 새로운 의미로 재해석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을 작가 나름의 표현방식으로 시각화 시키고, 참여자, 관객들과 공감, 소통하며 작품에 그들만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작은 휴식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마음이 날다'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 모두에게 힘든 시기인 만큼, 이 작품으로 보는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려고 한다.



눈 내린 겨울 지리산, 시리디 시린 대기와 눈보라 몰아치는 산꼭대기, 산의 속살, 역동적인 산등성이... 그 앞에서 어느 누구도 순수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분별마저 내던진 그 순수함은 대지의 기운생동과 하늘을 향한 신앙 같은 힘을 느끼게 해준다. 어깨 힘을 빼고 툭툭 내리긋듯 굵은 필선과 농묵의 선들로 경쾌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현대적 조형감각을 살리고자 하였다. 수묵의 극대화를 위해 얇은 순지에 먹 위주로 최대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벼찬 자연을 먹으로 융해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자연에 대한 깨달음과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으로, 그리고 그림이 일종의 수행의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인위를 덜어 마음을 정화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하였다



Deceptive Desires는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상처받은 존재들의 소박한 소망과 갈망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오브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들은 내 주변에서 버려지고 소외되어 한 칸으로 밀려난 것 등에서 가져온 것이다. 흙에 놓여있으면 그대로 썩어서 사라질 뼈와 같이 잊혀지고 버려진 것들의 의미 있는 재탄생, 모든 존재의 의미 있음과 그들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 작품의 제작 기법인 캐스팅 기법은 도자기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비우면서 버려진 형태를 정확히 얻어내기 위한 최적의 방법이며, 복제와 양산을 위한 수단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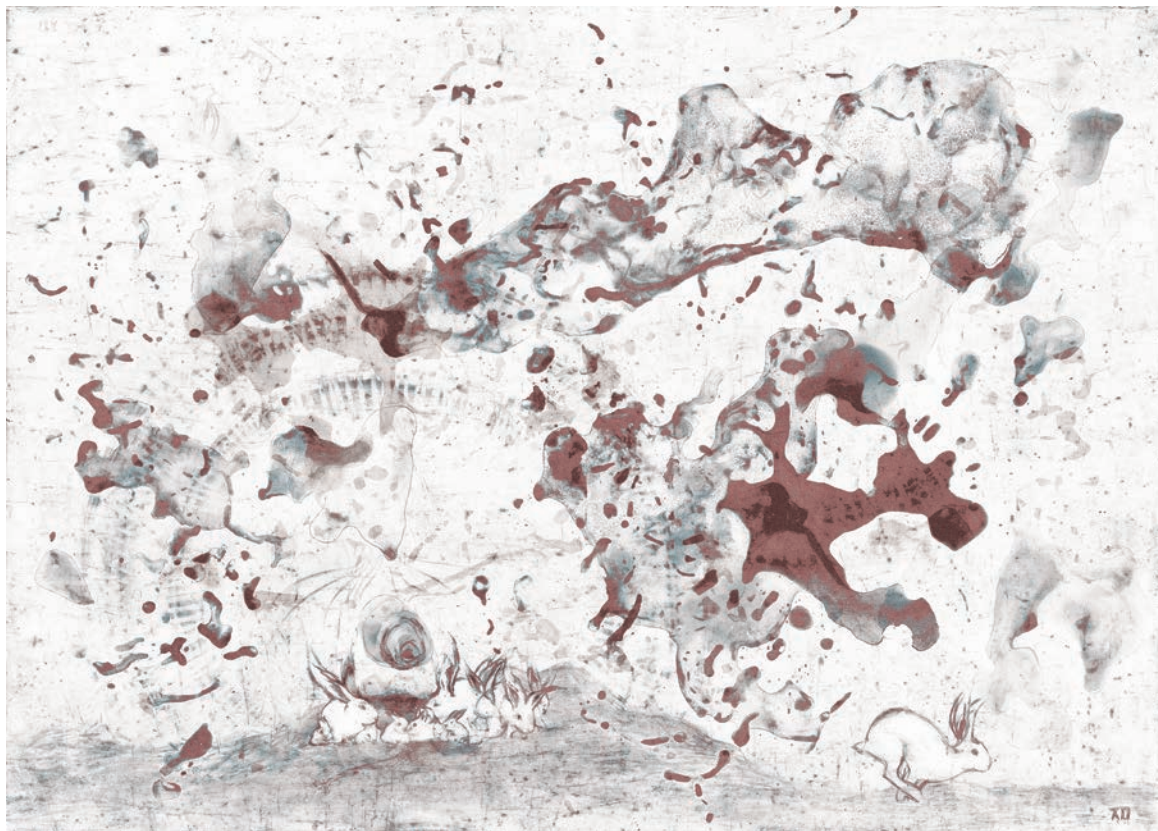
카이로스는 특별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내 작품 안에 들어온 발자국은 지난한 시간의 숨결과 지나간 시간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 안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기도 너의 발자국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시간을 나누고 들여다 보면 서 말없이 위로하고 교감을 나누었던 시간입니다. 그 의미 있는 시간들은 기쁨의 순간, 고난의 순간, 감사의 순간, 행복한 순간, 외로운 순간, 고독한 순간, 사랑하는 순간들 일 것입니다.



작은 공장의 기계부품들을 흥미롭게 바라본 경험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기계들의 다양한 모습이, 마치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선과 감정이 반영된 사물의 이미지를 작업으로 옮기면서 사람과 사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물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의 일상을 공유하면서 서로의 내면적 리듬이 유사하게 변화되며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모습이 투영된 일상의 사물들을 관찰하면서 사물을 고정되지 않은 의미로 바라보며, 일상의 사물이 가진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시도했습니다.



그리스 경제위기를 맞아, 찬란한 관광지 뒤편의 골목길에서 실제 힘든 경제공황을 겪고 있는 그리스시민의 모습을 촬영한 작업. 국가의 보호 체계에 균열이 갔을 때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이 위기 속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모색한 시리즈이다.



응시하는 태양이 화면을 메우는 나의 그림은 관념적이고 물리적인 총체적 힘의 관계 속 힘을 은유 한다. 타이틀은 '밤에도 떠있는 태양(Midnight Sun)'이며 모든 이가 쉬고자 하는 밤에 조차 해가 떠있다는 상황의 설정으로 힘의 폭력적 속성을 드러내려고 한다. 힘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인간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파멸로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힘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쓰이는 것을 경계하고자 화면에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보면 힘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아름다운 삶의 에너지로 가득하기를 희망한다.



나의 작업은 정신적 작용을 통해 조형적 결과물로 포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겉데기 속의 알맹이, 즉 본질이라는 정신적 메시지를 표현하고자 한다.

이정태

조각

TS-4
40.0×22.0×40.0cm
나무에 우레탄 페인트
2019



나는 여기까지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에 있어서의 예술은 무엇인지 고민해 온 것 같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거듭될수록 무엇 하나 섣뚱 내놓기가 쉽지 않다. 나는 나대로 그럭저럭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아직도 누군가는 배가 고프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아파우고 있다. 온갖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인다 한들 나는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가 없다. 오지랖 넓은 내가 젊어진

고민의 배낭에는 내가 만들어왔던 결과물만큼의 무책임한 책임감이 묵직하다.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내 속엔 내가 많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결국 내 몸둥어리는 하나라는 핑계를 스스로에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나 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나의 선택은 결국 조형(造形). 나는 조형으로 이야기하지만 나의 조형은 말이 없다. 그 길은 혼자이지만 그 길만이 내 조각에게 내가 지지 않는 길, 내 조각과 타협하지 않는 길. 나는 나대로, 내 조각은 내 조각대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나 자신에게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불안한 줄타기와 같은 싸움이다.

조각을 이기기 위한 조각. 이정태,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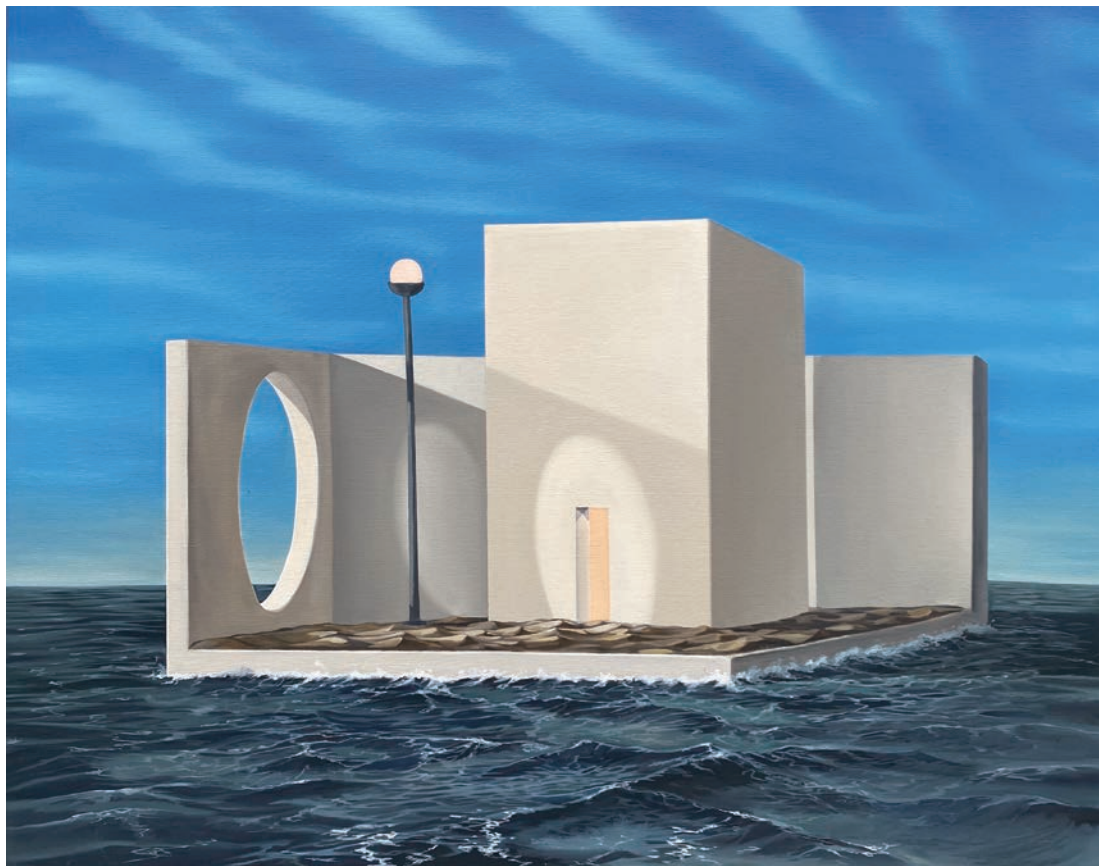
아무개의 초상
148×46.0cm
광목에 분채, 석채
2018

이정희

한국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는 함께 살아가는 다른 종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간 존재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그 존재가치가 결정되어진다. 삶의 공간을 함께 공유하는 다른 종들과의 관계가 인간중심주의적 가치관 아래에서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가장 스스로를 낮추고 그 대상을 존귀하게 대하는 순간은 언제일까. 나는 그 순간으로 종교·제사·장례의식에 주목했다. 이러한 전통상제 의식에 사용되는 제의적인 요소들을 상징적인 장치로 이용하여 인간에 의해 소멸당한 존재들을 인간이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대상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본다. 인간에 의해 소멸된 존재들을 신성함을 지닌 존재들로 재탄생 시키는 작업을 통해 인간 중심의 자연에 대한 가치를 비판하며 존재의 존엄성을 이야기 한다.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외로운 상황이나 사람들 사이에 있음으로 더 고독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고 공유함으로써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작품이다. 이러한 감정은 숨기고 싶은 감정이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흔한 감정이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인정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려진 그림이다. 그래서 본 그림은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한 평 남짓의 작은 집을 통해 한 인간상을 비유하고자 하였으며, 그 공간에 조명을 비추고 모래를 덮어 거센 파도 위에서 존재하는 그 자체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메시지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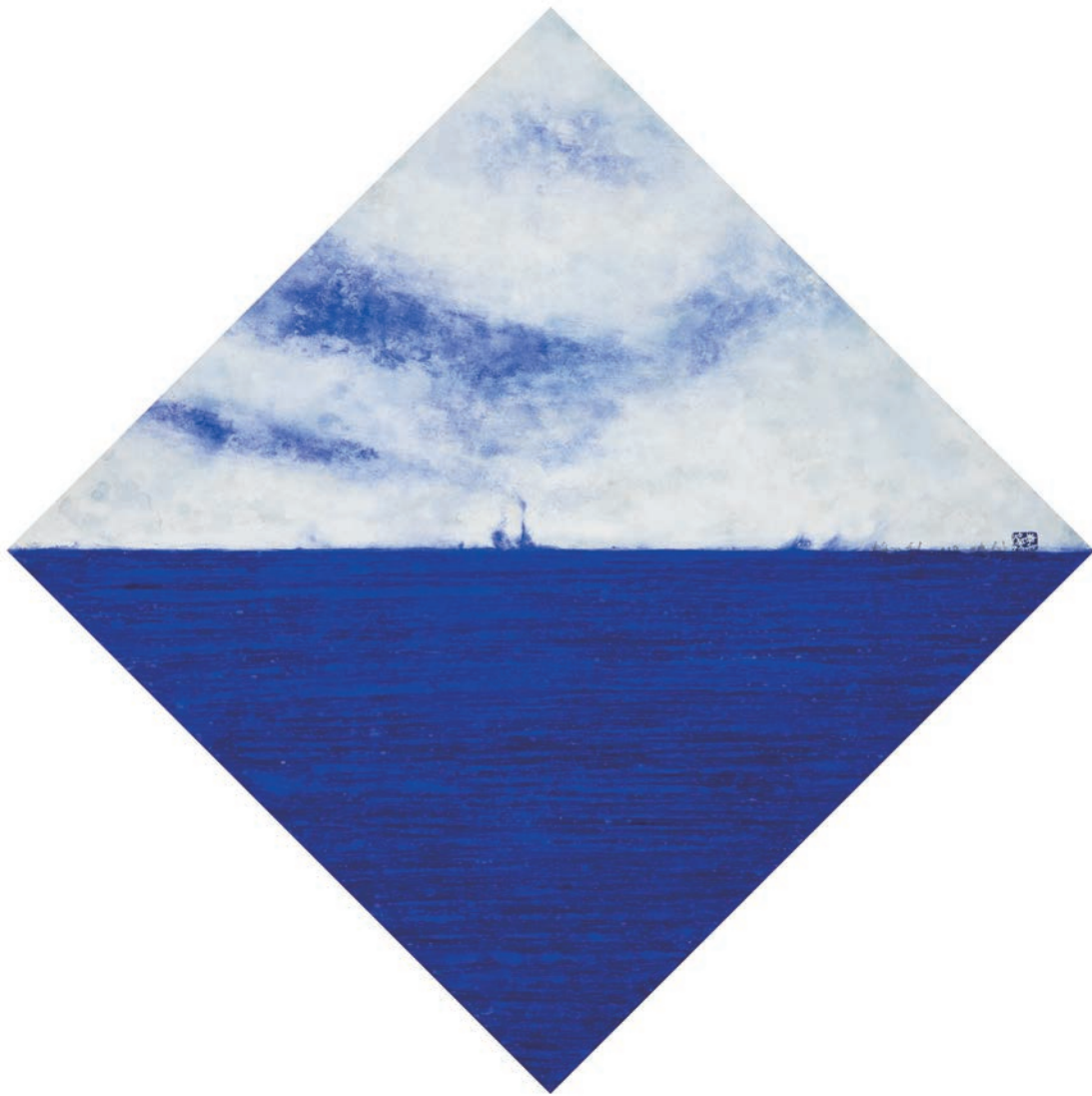


'기억 속 공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된 작업이 '공간'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자체에 대한 것으로 진행되면서 개인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놀이', '탐험'의 대상으로 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림 속에 그리다]는 공간에 대한 드로잉과 다양한 매체 실험으로 작업의 규모와 방식을 확장하면서 '회화' 속에서의 변화를 고민하던 과정에서 나온 시리즈이다. 설치 방식의 변화와 매체 실험에서 단순해진 이미지는 문과 계단의 반복으로 끊임없이 확장되는 동시에 다양한 색상표현으로 특정한 장소를 상징하던 단조로운 색조에서 벗어났다. [그림 속에 그리다#2]는 '상상'에 맡기는 자유로움이 더해지면서 실재화 될 수 없는 계단 구조에 다양한 색상으로 이야기를 함께 더하게 된, 화면 속에 다양한 통로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한 시리즈이다.

이진용

한국화

정과동(靜과動)
70.0×70.0cm
3합장지에 혼합채색
2018



상·하의 화면 분할 선 - 수평선, 지평선(새벽, 안개비, 먼동이 트기 전, 靜과 動, 陰과 陽, 靑과 白, 天과 地, 자연의 질서, 화합, 상생, 이분법, 아산, 바다, 들, 숲, 건물의 군집, 인간의 군집) - 은 궁극적으로 공존과 조화로 상생의 길을 희망한다. 마름모꼴 화면은 각 모서리로 인하여 화면 확장의 연장선을무한 강조하기 위한 구도이며, 구상과 추상의 이미지를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 형상으로 응축 단순화하여 표현하고자 선택한 마름모꼴의 화지(화면)형태이다.

첫
28.5×31.0cm
리넨에 동양화물감, 먹
2020

이진주

한국화



이진주의 작업은 삶에서 반복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녀의 일상 속에서 스스로 원하지도 않는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과 감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곤 한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환기’ 속에서 무엇이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장치가 되는 것일까. 기억의 공통적인 구조들은 무엇일까. 잊혀지지 않고 살아남은 기억은 어떤 방식으로 가공되는 것일까.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은 왜 과거의 기억만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 갈 수 없고, 미래를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일까. 기억과 꿈과 의식의 경계는 어디일까. 시간성과 공간성을 뛰어넘은 기억의 인지 작용에서 나의 지각이 재구성하여 만든 이미지의 잔상은 어떤 것일까.” (작가노트) 이런 물음들로 시작된 내적 탐구의 과정에서 가시화된 것이 그녀의 작업으로 기록된다. 잘 짜여진 틀에서 잘라져 버린 군더더기들을, 일상의 미미하고 하찮은 모티브들을 꺼내고 가만가만 소리 없는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 그 속에 숨겨진 무의식적인 감각의 충위를 발견하게 된다. 그 순간, 작가는 우울한 탐험가가 되고 일상은 비범함을 갖춘 것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섯 개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이 연작은 눈물 대신 먹물을 흘리는 생채기 난 손, 불을 쥐고도 뜨거운 줄 모르는 담담한 손, 하얀 무언가를 다듬는 아무진 손바닥, 타고 남은 성냥 머리를 내미는 측은함을 담은 손, 생채기와 대비되는 작은 하얀 덩어리를 잡은 손끝을 보여준다. 상징적이지만 감정적인 이진주의 회화는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그러나 그 곳에 있는 서사를 일깨우며 여성이라는 주체와 그가 담고 있는, 전하려는 이야기를 상징한다.

이채영

한국화

공터
80.0×100cm
한지에 먹
2016



본인의 작업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무심코 스쳐지나가는 흔한 풍경들 속에서 사라지고, 폐허가 되는 장소들을 바라보면 한 장면으로 멈춰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번잡한 도심 속에서 홀로 변두리가 되고, 홀로 멈춰있는 듯해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히곤 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거리들, 도시의 주택가와 낡은 건물들의 주변 요소들 속의 장면들 속에서 감상자의 감정에 몽환적인 감성을 건드리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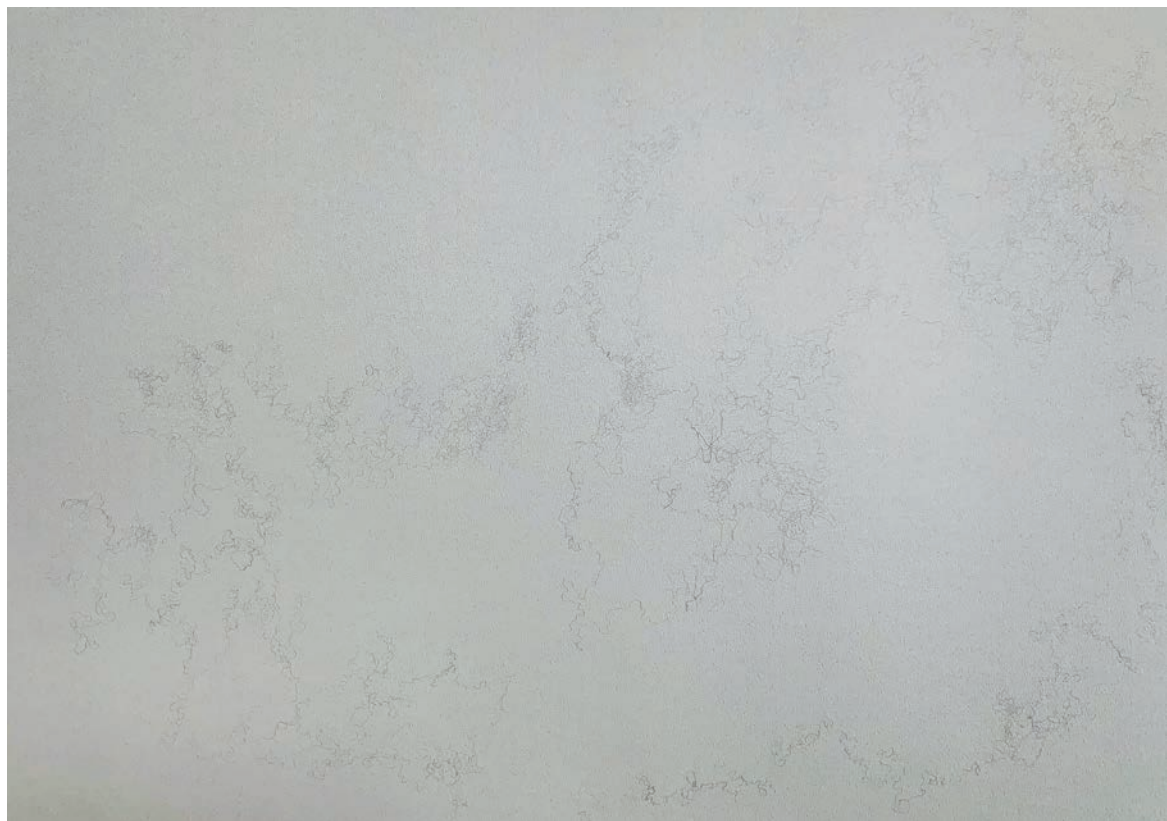
밭
38.0×88.5cm
한지에 수묵채색
2016



나의 작업은 차창 밖으로 무수히 지나치는 자연의 풍경이 담고 있는 표정에 관한 것이다. 나지막한 산을 배경으로 너른 들판과 그 끄트머리에 자리한 나무 숲, 그리고 드문드문 보이는 집들, 흔하게 볼 수 있는 낮익고 소박한 풍경 속에서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내어본다. 마치 조각보를 보는 듯 조각조각 이어진 논과 밭은 계절마다 그 색을 달리하며 조금씩 다른 표정을 드러낸다. 갓 모내기를 끝낸 푸르고 싱그러운 표정, 농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는 풍성한 표정, 곡식이 익어갈 때쯤 볼 수 있는 따스한 표정 등과 같이 자연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정은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들과 뒤섞여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지금 이 순간에도 고요한 울림으로 침 없이 변화하고 있는 자연의 일부를 묵묵히, 담담하게 그려 나간다.

이한정

한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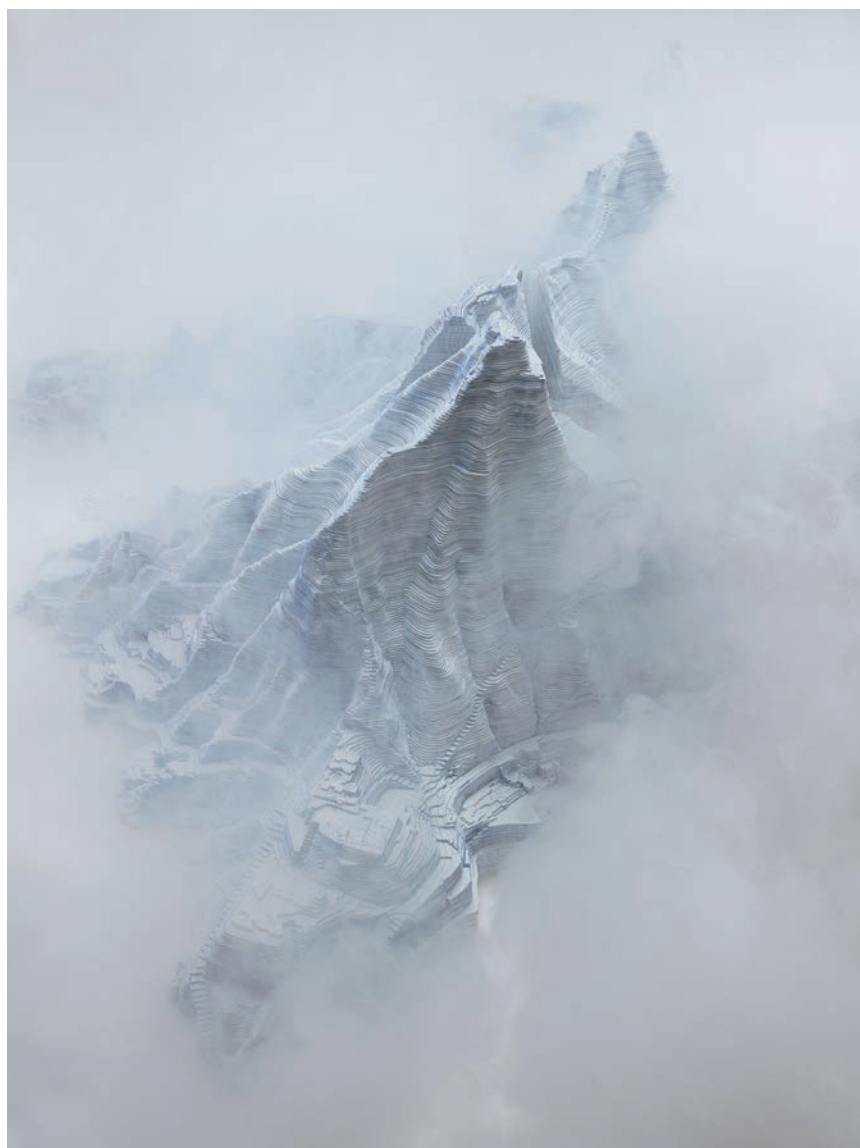
드로잉 작업 〈향해〉는 공깃돌 안에 들어있는 작은 철공과 연필의 흑심 그리고 종이결과 나의 힘이 서로 관여하며 만들어내는 드로잉이다. 이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연계를 통해 서로의 관계를 집중시키며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가장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전체가 완성된다고 믿고 있다.



나는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기보다는 '그리기'에 천착하여 끊임없이 상태 변화하는 식물들을 회화적 이미지로 담아내고자 한다. 화면 안에서 점과 선으로 이루어 내는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의 형상 위에 물감이 쌓이고 번지는 등의 여러 회화적 과정들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식물을 그리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가는 붓의 반복적인 터치는 다양한 질감과 덩어리감을 만들어내며, 한편으로 수많은 몸짓을 재현한다. 나는 미약한 존재들을 건드리듯이, 가늘고 여린 세필로 터치를 쌓아 나간다. 그리고 쌓아 놓은 선들을 닦아내거나 덧그리며 그 위에 또 터치들을 새긴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러한 손짓을 통해 나는 '그리기'라는 행위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회화적 변주가 아닌, 대상이 지나온 시간과 수많은 움직임이 담겨 작업을 했던 나의 시간의 흔적들을 함께 남기려 하는 것이다.

임선이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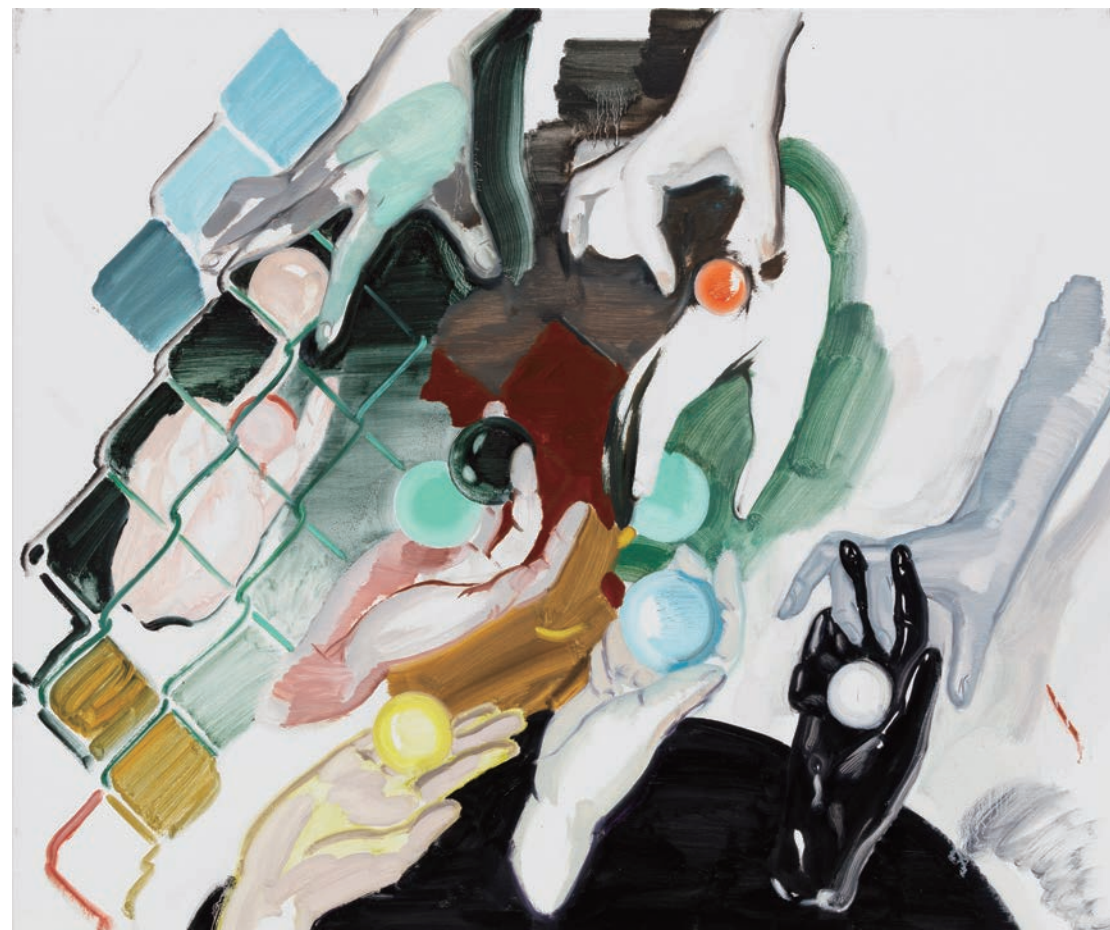
극점 2-5
80.0×60.0cm
라이트젯 C 프린트
2014



남산을 주제로 한 일련의 작품은 남산에 파고든 지물들과 그의 상징체계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으며 이를 통해 도시의 물리적인 증식과 자연의 잠식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견고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흔들림이 아닌 도처에 혼재하는 어떤 증후들로 인해 끊임없이 흔들리는 대상에 내재된 차가움을 푸른 레이어의 구축과 해체, 재조합의 방식으로 현대의 풍경을 남산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것은 흔들리는 풍경과 공존하는 시간성을 내포하며 그 흐름을 지각하게 하기도 한다.

공과 손
60.6×72.7cm
Oil on Canvas
2017

임소담 서양화



몇 주간의 공연 연습이 끝나고 함께 참여한 안무가가 공을 만지는 장면은 불현듯 나의 지나간 몇 주간 쌓인 공에 대한 기억을 순식간에 불러왔다. 내가 만지는 것이 아닌데도 공의 탄성과 마찰력이 생생하게 보이는 경험이었다. 이런 감각의 전이가 같은 경험이 없는 관객에게도 그림을 통해 일어날 수 있을지 궁금했다. 나는 그동안 비시각적이고 신체적인 경험들을 페인팅으로 옮기는 방법론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 왔다. 이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달성이 가능한 과제가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각도를 틀어가며 흐릿함과 모호한 감각을 구체화시키고 그리는 중에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작가노트 중)

임수식

사진

b017
75.0×100cm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12



바벨 작업은 흰 종이를 씌운 책들이 채워져 있는 흰 책장을 풍경에 놓고 촬영한 연작이다. 2010년 <바벨의 도서관 - All and Nothing, 북촌미술관> 전시 때 설치작업으로 발표한 작업을 전시장 밖인 일상의 공간으로 옮겨놓은 작업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혹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이야기들을 바벨(책들)로 상징하고, 그런 것들이 멀리 있지 않음을 이야기 하는 작업이다. b017은 강화도에서 촬영했다.

아들의 창
49.0×25.0×25.0cm
화학수지에 아크릴릭, 스크래치
2020



창(窓)앞에 있는 아이, 이 작품은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와 모든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 하려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직 가보지 않은 낯선 길과, 부딪히며 상처 입을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뒤섞인 듯 긴장된 모습은, 두 손으로 옷깃을 움켜쥐고 나름의 결연함으로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는 작은 용기도 품고 있다. 이 작품은 '아이'라는 존재를 통해 인간이 가진 순수한 열정과 감성 등 오래된 감각의 상자를 열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실을 뛰어 넘어야만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단계에서 앞으로 새겨질 미래의 시간들이 어떻게 그려질지, 어른의 시각으로 걱정과 염려를 품은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다.

임승천

조각

임정은

서양화

Firecracker12
60.0×145cm
Oil on Canvas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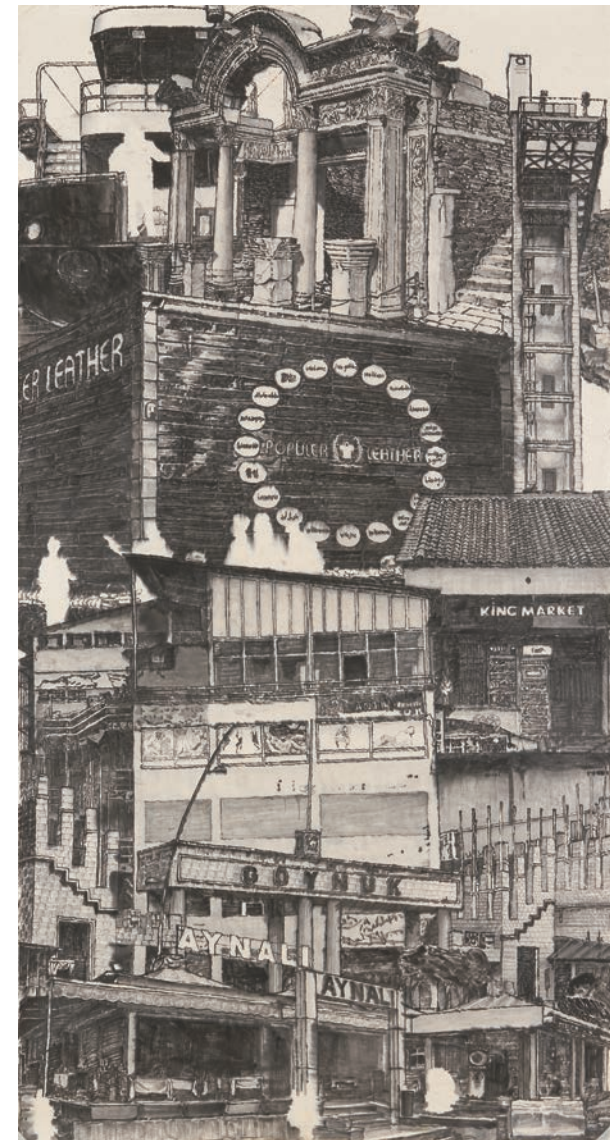


뒤엉킨 폭죽 끈들은 과실재적 소비사회 속 인간의 자기 현존 방식을 형상화한 것이다. 반짝이는 폭죽의 표면은 서로의 색을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한다. 끈임 없이 서로 반사하는 표면의 물성에 주목하여 실재와 가상의 경계가 존재하지 않는 하이퍼 리얼한 세계를 시각적으로 비유하려 한다. 과장된 빛으로 캔버스를 가득 채워진 폭죽의 모습은 주류/비주류, 필요/불필요, 주체/객체를 구분할 수 없게 한다. 이것은 언뜻 평등하고 균형있게 보이지만, 개성에는 개인이 없고 익명의 집단만이 존재하는 모순의 반복이다.

주관적인 풍경 050-터키 7
145×75.0cm
장지에 수묵
2019

임철민

한국화



우리의 삶은 정해진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모노미스와 같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건은 나 이외의 것과의 조우로 시작되고 주인공은 타자를 통해 무언가를 얻고, 잃는다. 어쩌면 나의 불안함과 외부로부터 함몰되고 있다는 위기는 여기에 기인 할지도 모르겠다. 화면에 등장하는 개체는 여행을 수단으로 특정한 위치에서 수집된 장소, 배경이다. 이것들을 서로 엮어서 지역 명의 한 공간으로 묶는 과정은 어두운 골목에서 마주친 빛의 형태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화면은 내 앞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자 동시에 나를 집어삼킬 불길한 빛으로 인식되는 가상의 풍경으로 나타난다.



최근 조각가에 관한 작업을 하면서, 감각의 끝이 닿는 곳에 있는 건 살아있는 느낌이라는 생각이들었다. 지금은 죽음의 편에 놓인 아버지. 그는 선반 위에 크고 작은 조각품들을 남겨 두고 갔다. 그런데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니, 이상하게 어떤 생명력이 손을 내미는 듯했다. 살아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는 다른 하나로 끊임없이 흘러간다. 마치 움직이지 않던 것이 움직임으로 변화하고, 하나의 포즈가 다른 포즈로 바뀌어 가는 과정처럼. 사진가의 기관은 눈이 아니라 손가락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셔터를 누르는 순간마다 사진가의 손가락은 곧바로 또 다른 순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게 아닐까? (작가노트 2018)



아버지가 그러했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를 찾고자 한다. 그 많은 입상과 두상, 그리고 초상들은 삶의 증거로서 우리 주변을 채우고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머무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영향력과 힘을 가진 남성의 주검만이 초상으로 제작될 권리를 가졌던 우상의 시대를 지나, 스스로의 삶을 기념하고 모든 것의 자취를 간직할 수단들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영상의 시대인 오늘날에도 도처에서 우상의 이미지를 만나게 된다. 역사적 인물에서 스포츠 스타에 이르기까지 그 이미지들은 사람들에게 침묵하게 하고 목소리를 낮추도록 강요함으로써 상징적 폭력을 행사한다. 재현이 불멸이자 영생이 되는 이러한 영구화 작업은 누구나 바라마지 않는 사회적 특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여기에 실린 사진들은 이러한 기념비적 이미지들이 이 시대에 갖는 의미와 거기 담겨있는 대중 의식의 일면을 드러내보고자 한 것이다. <우상의 자리> 작업노트



이렇다 할 것 없는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친 어떤 대상이나 장면은 때때로 내게 그림처럼 느껴진다. 본 작업 <자동차 극장>은 경기도의 한 외곽 지역에서 머무르며 작업을 하던 시절, 우연히 손님을 마중 나오던 길에 발견한 자동차 극장의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한여름 대낮에 아무도 없는 자동차 극장, 그 거대한 백색 스크린의 시선을 빼앗긴 채 한참을 바라봤던 그때의 생경하고 특별했던 경험을 작품에 담아내고자 했다.



나의 작업은 실제 풍경에서 출발하여, 추려진 색이나, 흔적을 남기는 붓질로 완결하고자 한다. 작업에 등장하는 풍경은 가정자리, 그늘, 구석, 뒷면 같은 단어로 대체 가능한 불완전한 장면이고, 지금의 시점에서 '완성형'의 풍경이 과연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하는 장면들이다. 캔버스에 재현된 풍경은 연약하고 불완전함을 숨김없이 보여주며 기법 또한 회화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을 택한다. 이미지는 점점 간략해지고 페이드아웃 되며 나의 태도와 물질만을 캔버스에 남겨놓고자 한다.



이 작품은 2006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해 강제이주를 하게 된 평택 대추리 마을 주민들의 모습이다. 6년 동안의 긴 저항에도 불구하고 대추리 마을 주민들은 살던 집을 놓고 떠나게 되었다. 마을에서 동거동락을 하며 1여년을 지낸 나는 마을 주민들이 이주 하던 날, 아침부터 마을을 돌며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했다. 함께 저항운동을 했던 노부부는 떠나는 집 앞에서 손을 잡고 웃는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싸울 만큼 싸워봤고 더는 어일 도리가 없다는 의미로 다가왔다.



일반적으로 사진이라는 매개체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함이지만, 개인적으로는 Remembrance 작업을 진행할 때 사진이라는 매체를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그저 사진은 나의 시점을 기록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사진을 찍는 행위는 가장효율적인 드로잉을 하는 방법으로 이용한다. 내가 경험하는 이미지를 기록하고 이렇게 수집한 이미지를 겹침, 삭제, 변경 등의 과정을 통해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 하나의 이미지는 회상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남았던 이미지를 작업 안에서 선택하고 제거하면서 자의적으로 왜곡한다.

정보영

서양화

Lighting Up
45.5×33.4cm
Oil on Canvas
2019



〈세우다 Lighting up〉에서 촛불은 시간과 존재에 대한 기호 혹은 상징물로 작용한다. 짙은 어둠 속에서 불을 밝힌다. 초는 불을 밝힘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빛 그 자체에 다가가며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어둠의 깊이를 더한다. 자신이 놓여진 건축물 바닥의 비정형의 얼룩을 희미하게 밝히며 촛불은 자신이 도달하지 못한 곳의 어두움을 간직한다. 이렇게 촛불은 자신에게 수여된 시간만큼의 빛과 어둠 모두를 감싸 안는다.

자작나무-백색의 영혼
60.0×120cm
아르시지(ARCHES)에 아크릴릭 채색 후 한지 배접
2020

정시영

서양화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의 상징인 자작나무(Birch)숲을 몽환적이고 숭고한 느낌의 공간으로 연출하고자 채색 후 한지(Korean paper)를 오브제로 사용하여 겹겹이 배접 해줌으로써 '존재하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게 하는 새로운 공간표현방식'을 추구한다. 모두가 자작의 사다리를 밟고 올라서서 영혼이 하늘위로 교감하는 그런 상상을 꿈꾸며 늘 가시적인 세계에서 상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초월적인 숭고함이 충만한 자작의 숲으로 들어가 스스로의 존재를 체험하기를 꿈꾼다. 자작은 곧 '치유'의 숲이다.

정은희

서양화

헬로우~
60.0×50.0cm
입체패널에 유채
2016



우리가 보고 느끼는 감각은 한계가 있으며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과 말할 수 있는 것만을 말하고볼 수 있는 것만을 보는 가용성 편향성, 인간의 편향성에 대한 물음이 작업의 주된 내용이다. 망막을 통해 수렴하는 세계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적 문제를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장치를 입체 캔버스에 넣음으로 전통적인 투시법 명암법의 접근으로의 감상에 혼란을 발생시켜 인간의 감각과 인식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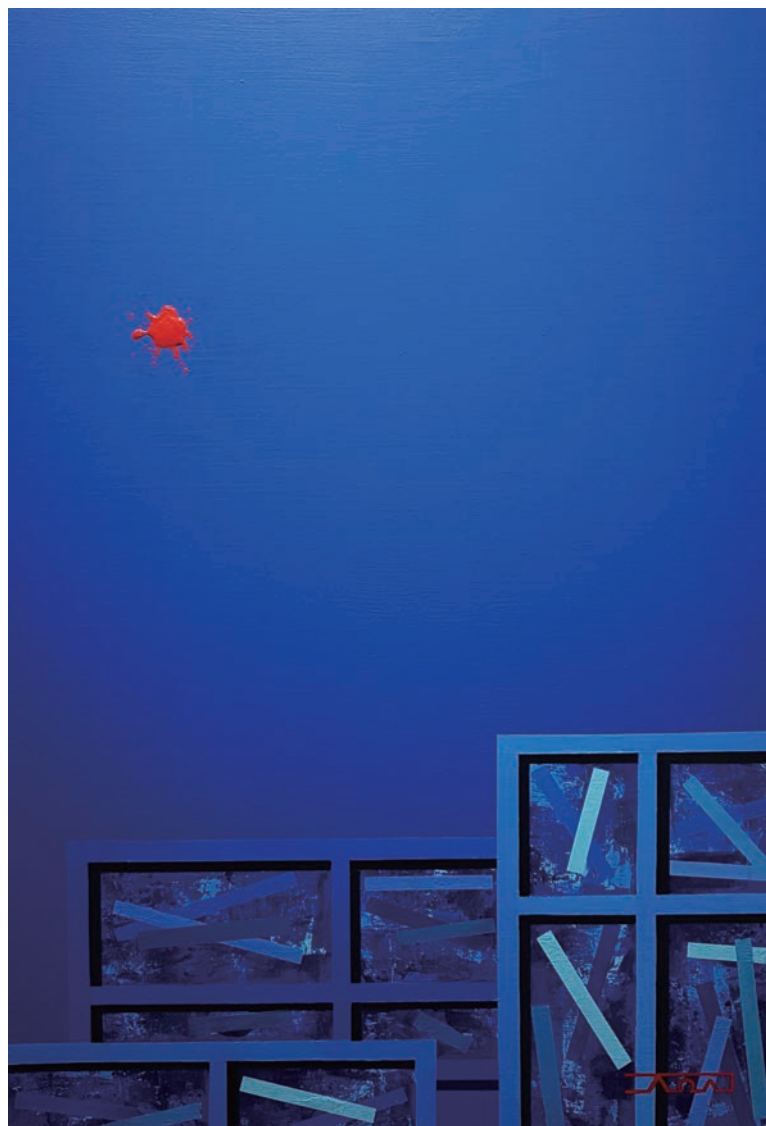
Made in Nature-Cloud and Rainfall II
53.0×33.3cm×2
Oil on Canvas
2016

정인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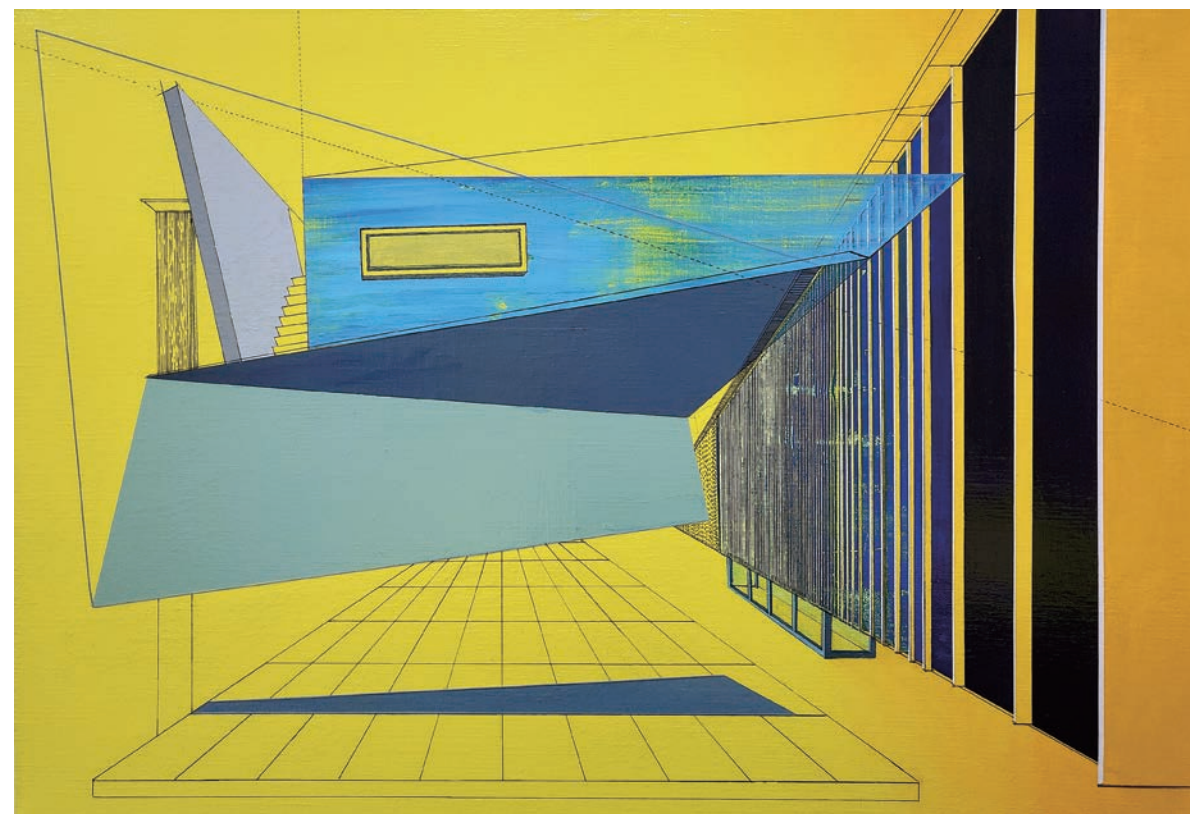
서양화



우리들이 매일 흔히 볼 수 있는 구름과 자연의 모든 것들을 나의 작업과 연관 지어서 표현하고자 했다. 자연적인 삶에서 하늘과 땅과 물의 조화가 바로 예술의 에너지로 우리들의 갈증해소를 느끼게 하는 개념인 것이다. 즉(Nature & Philosophy)으로 시각적으로 하여금 조금의 순수함과 절실함을 보여주고자 이중적인 화면에 하나로 결합시키는 표현방법이다. 구상적인 부분과 추상적인 생각이 하나의 화면으로 전달하는 것은 결국 모든 자연의 소리는 아름다움이다 라는 하나로 통일된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자연을 갈망하고 자연의 모습에서 컨셉이라는 부분에 대한 갈증을 느꼈는지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잡은 것은 아니다. 나의 작업을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표현하는 작업방식으로 내가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이다.



누구나 현재를 살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의 삶은 단 하나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상은 늘 정해진 데로 움직이고 있다.
그 일상의 뛰어 넘은 후에 나는 그때와 지금 어디로 향할 것인가?



Interval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장소적인), (시간적인) 간격, 거리, 사이, 룡(정도, 질, 양 따위의)차, 격차들을 의미한다. 가시화 되어있지는 않아도 간격과 간격, 거리 사이의 수많은 틈들, 혹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단순한공간이 아닌 건축공간을 통해 하나의 화면에서 중첩되거나 서로 다른 기표들로 엮어지게 된다. 결정지어지기 어려운 모호한 유기적 관계들을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 존재와 부재의 차이, 의미와 무의미의 간격, 사람과 사람 사이의 룡, 인식과 존재, 재현과 복제 등의 관계들 속에서 정체와 주체성을 찾아가는 해석하고자 한다.



나는 인물을 소재로 작업을 해왔던 작가로써,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감정을 나만의 해석과 방식으로 표현 한다. 예전에는 사회 문제와 같은 어두운 소재를 선택해 메시지를 전달 하고자 했다면, 현재는 순간의 솔직한 감정에만 의지한 채 작업을 하고 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혹은 나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과의 상황을 선택한 후부터 철저히 이성을 배제 시키고 솔직한 감정만을 추출하기 시작한다. 사건과 대화를 되짚다 보면 어느새 그림과 대화를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시시각각 변화된 이미지의 파편들이 모여 전체의 작업을 이루며, 사진으로 일상을 기록하고 이후 찍었을 때의 감정, 그리고 작업 중 사진을 바라볼 때 마다 개인의 경험이나 상황에 의해 다르게 느껴지는 감정 모두를 혼합 재구성 한다.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매일 접하는 일상 풍경을 표현하되 단순히 묘사되기 보다는 마치 조각난 거울에 비춰진 이미지의 작은 파편으로,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을 모아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낸다. 그려내는 것들은 지각되고 형상화되면서 기호화시킨 이미지와 시간의 흐름과 상황이나 생각에 따라 기억 속에 다르게 남겨진 다양한 풍경들에 대한 연상 작용들의 조합이다.

정정엽

서양화

광장-12
80.0×50.0cm
Oil on Canvas
2017



2016년 촛불정국, 불 밝힌 촛불들은 민주주의 씨앗이다, 그 씨앗들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 어둠 속에서 오색의 콩들이 또 다른 촉으로 발화했다. 모이고 흩어져 물결이 되고 별빛이 되고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자존의 촛불이다. 아무 데나 굴러다니는 콩알만 한 콩. 이 얼마나 시시하고 위대한 일인가. 저마다의 촉으로 저항하는 촉제였다.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별을 그린다. '광장-12'작품은 2017.1.14. 광화문에 모인 12번째 촛불집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명경지수
40.0×73.0cm
Oil on Canvas
2016

정창균

서양화



책 위에 올려진 사물(이미지)을 바닥의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모습과 함께 그려내 실재와 가상의 현실세계를 보여주는 색다른 정물 회화를 그린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싱그러움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자연물과 묵묵히 인간의 심성을 숙성시키는 책 등의 소재를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 화려하지만 변할 수밖에 없는 자연물, 언제나 변함없이 인간을 숙성시키는 지혜가 담긴 책 등의 소재들은 나의 눈을 통해 그리고 거울을 통해 반복적으로 그 환영이 전해지고 영혼이 담긴 붓질을 통해 작품의 명제이기도 한 "명경지수"(明鏡止水) 즉, 인간의 맑은 심성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조문희

사진

빈풍경
73.0×110cm
피그먼트 프린트
2018



나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풍경을 사진에 담는다. 사진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변화가는 현재 풍경 속 건축을 담고 있다. 그 후 풍경에 담긴 공간의 정체성을 가늠케 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프레임만 건조하게 남긴다. 그래서 색 언어만 남은 모호한 모습으로 거듭나, 이미지로 가득한 현실 세계의 단편을 시각화한다.

아리랑19-산책2
45.5×45.5cm
천에 분채, 아크릴릭
2019

조병완

한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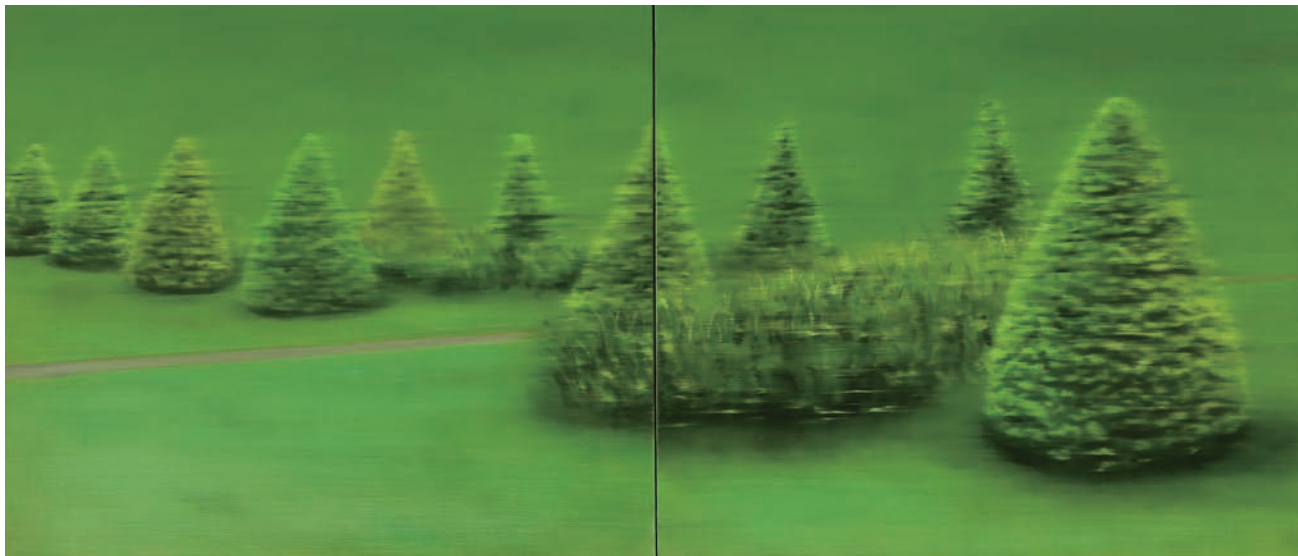


이 작품은 작가가 즐겨 그리는 소나무 숲이 현실적인 색채로 그려지고 어린 시절의 놀이와 관련된 형상들은 무채색으로 표현되었다. 바탕에 글씨들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여 흐릿하여 파악하기 힘든 낙서로 남는다. 그 위에 소나무 가지들과 어린 시절 즐겨 놀았던 추억이 기호와 형상으로 그려졌다. 작가가 일상적으로 끄적거린 낙서와 희미한 어린 시절의 추억과 놀이, 지금의 현실이 숨겨져 드러나며 어우러진 그림이다.

조해영

서양화

Green Corn 3
45.5×106cm
Oil on Canvas
2018



나는 주로 장소와 풍경을 소재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초기 작업에는 나와 밀접한 장소인 방과 작업실, 그 주변이 주를 이루었고 이후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며 의심 없이 구축한 사유의 방식이 흔들렸다. 직관적이고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통찰의 한계를 경험하며 다소 감상적인 장소 캐스팅을 멈추고 낯선 장소의 겉 모습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곳에 얹힌 역사나 기능에 관한 이야기와 외관에 드러나는 이야기의 파편을 제외한 대상의 표면적 이미지를 토대로 작업한다. 다양한 견해, 입장, 인식의 차이는 나의 큰 관심사이고 작업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상을 감지하는 과정에는 허술한 통찰과 오해가 포함된다. 예측 불가능한 소통, 뒤틀린 관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장소'에 투영해 작업하고 있다. 규정하기 어려운 대상을 그림에 뚜렷한 입장으로 담지 않고 불분명한 경계에 둔다. 그렇게 정체와 국적이 모호해진 표면적 이미지는 의외의 대상으로 유연하게 환기된다.

반달색인_Thumb Index_C.O_Ivory B, Vine B
60.6×72.7cm
캔버스에 유채, 오일스틱
2019

조현선

서양화



<반달색인>은 두꺼운 사전류의 책 옆면에 색인을 위하여 반달모양으로 도려낸 홈을 가리킨다. 요즘은 종이 사전을 잘 사용하지 않아 한 번에 그 뜻을 상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스마트폰 사전 앱이 종이 사전을 대체하기 전에는 반달색인에 엄지손가락을 넣어 지시어를 찾곤 했다. 최근 3년간의 작업들은 모두 <반달색인>이라는 동일한 제목을 갖는데, 이 작업들은 특정한 장소에서 발견하는 시각적 요소들을 콜라주 하듯 화면 안에 포개어 추상화하고자 했던 과거의 그림들을 일종의 '사전'으로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기를 반복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조현익

서양화

바른 길
76.0×61.0cm
캔버스에 유채, 나무 프레임
2014



종교마저 상품화된 시대, 예술 작품을 통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매겨진 가격에 놀라는 오늘날 다른 세계로 이행하는 경험은 여행을 통해서나 가능하게 되었다. 관광지에서 파는 기념품들은 성스러운 종교의 도상마저 상품화하고 예로틱한 사물들과 함께 매대에 올려져 있다. 이러한 장면은 민망하면서도 통쾌하고, 성스럽고도 상스럽지만 삶의 양면성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흥미로운 상황들이다. 작가의 여행 경험을 토대로 뉴욕의 한 마켓의 의미심장한 문구의 쇼핑 봉투를 배경으로 한 이 작품은 그곳에서 구입한 예로틱한 종교적 상품과 함께 성과 속이 뒤섞인 상황을 대변하여 준다.

신념의 모양 2019-#4
62.5×52.5×12.5cm
도자, 특수유리, 나무에 도색
2019

주세균

조각



작가는 깃발과 깃발의 경계선이자, 중간지대인 곳에서 "신념"이란 단어를 연상하였다고 한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국경선으로 구분되는 형태, 또는 주권(Sovereignty)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공유하는 모든 배타적인 공동체는 주관적인 신념의 덩어리의 합이라는 관점의 적용에서이다. 국가 차원에서의 이러한 신념은 특정한 지역에서 동일한 역사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거나, 특정한 이슈에 대한 유사한 반응의 축적과 총합이 충족될 때 형성된다. 별도의 전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Text Jar Series>는, 이러한 신념의 기본 단위는 함께 식사하며 동거하는 가정이라는 작가의 해석을 시각화 한 것이다. <신념의 호수>와 <신념을 채우다>라는 한글 텍스트의 외형을 응용하여 제작된 작품들은 다양한 형태의 신념들이 결국 동일한 식기를 매일 공유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생존과 직결된 "가정안에서의 식사"라는 행위를 통해 탄생하였고, 모든 형태의 "신념"의 내핵으로 존재한다는 작가의 믿음에서부터 파생되었다.

- 8회 개인전 전시 서문 부분 발췌 -

진기종

서양화

묵주_003
80.0×116cm
Oil on Canva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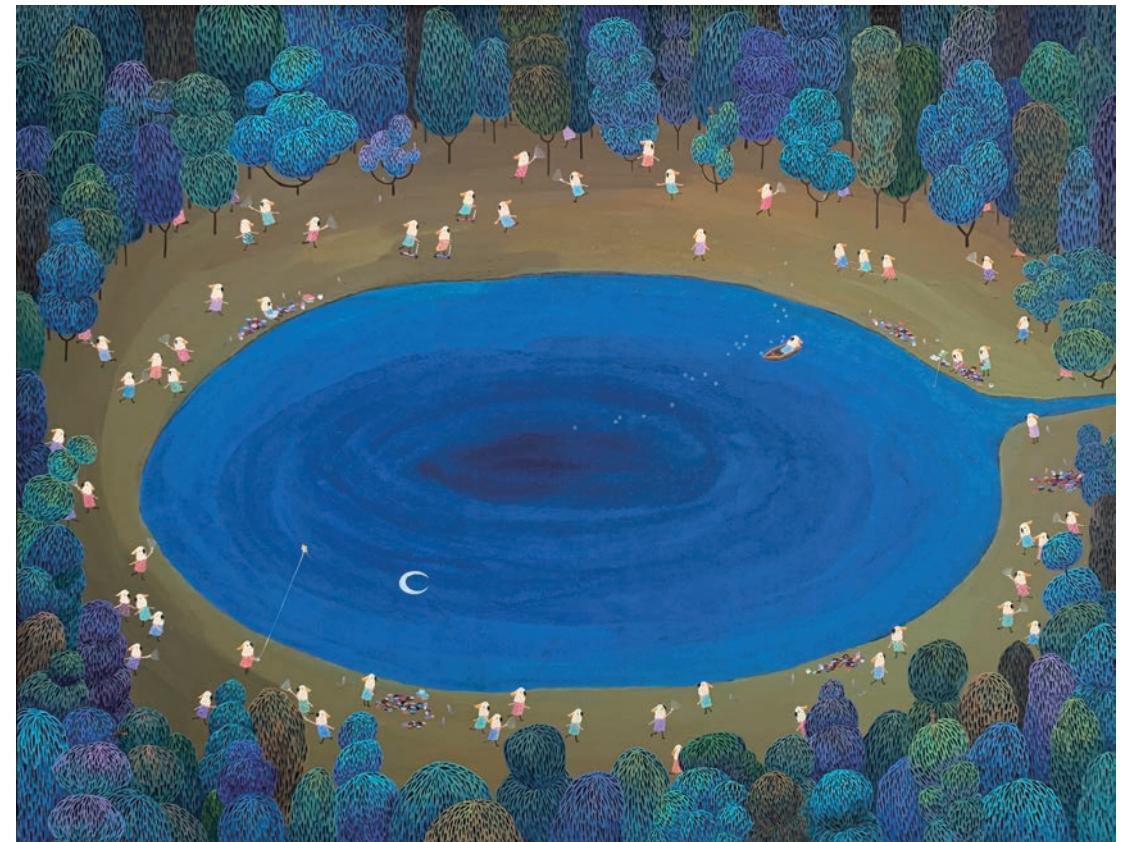


2014년부터 시작한 그림 〈묵주 Rosary〉 시리즈는 The Newyork Times에서 기사 1면으로 다룬 2001년 911 사건을 기재한 신문 위에 올려진 묵주에 비춰진 헤드라인과 보도사진의 내용을 보여주는 그림 이다. 바닥에 놓인 신문의 흐릿한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묵주 아래 비친 잔상 비춰짐으로서 당시 믿기 힘든 장면을 외곡된 형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신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도 막을 수 없는 인재와 자연재해등을 소재로 실제 기사화 된 내용과 그 위에 놓여진 묵주나 염주에 입체적으로 비춰진 형태로 진행중인 회화 작품이다.

big lake 01
91.0×116.8cm
한지에 안료, 아크릴릭
2019

진영

한국화



앵무새 머리를 한 형상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모방심리-따라 하기’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공원’시리즈는 자연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앵무새들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행동을 한다. 보물이란 자신만의 꿈이 될 수도 있고, 찬란한 낮의 공원 빛일 수도 있다. 무엇을 찾는 자기만의 보물을 찾아 바쁘게 움직이는 앵무새들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있다.

진영근

서예

대복
122×75.0cm
3합한지, 먹, 전각
2019



대복(大福)은 큰 복을 지어 누리시라는 뜻이다. 상형 문자의 원시를 찾아 대전(大篆) 금문(金文), 갑골(甲骨)을 거스르면서 얻어진 조형을 표현 했다. 서예(書藝)의 대중성 확보 차원에서 전각을 새겨 배치하여 검인하고 주묵(朱墨)으로 낙성관지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아 누리고자 하나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자고로 복은 덕(德)을 지어(쌓아) 베풀지 아니 하면 오지 아니함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평소에 덕행으로 복을 누리기를 빌어 마지아니한다. 이 작품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공헌하기를 빌어 마지아니한다.

분절-6
97.0×97.0×2.5cm
견사, 인견사, 폴리에스터사, 직조에 아크릴릭
2017



그동안 공예의 프로세스 중 직조의 방법으로 현대 미술사를 재해석 하는 작업을 해 왔다. 이전에는 목화에서 조사(緣絲)한 실(絲)인 면사를 주로 작업하여 면 캔버스를 만들고, 추상의 조형 언어를 구현하고자 했다면, 분절 시리즈는 누에고치에서 조사한 견사, 현대의 기술로 가공해 낸 인견사, 합성사 등 여러 종류의 실을 활용하여 작품과 현대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실'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한 작업이다. 인견사, 합성사 등 현대 조사 기술의 정점에 있는 초 가공 된 재료와 전통적, 노동 집약적인 직조 작업 방식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 근대와 현재, 작업과 상품의 다양한 방식의 관계 맺음을 생각해 보았다.

차승언

공예



이 작품은 '리듬 분석 Elements of Rhythmanalysis' 시리즈 작품 중 하나로, 작가 본인이 1년간 머물렀던 공간에서 여행자, 산책자의 입장에서 감각한 것을 토대로 이미지로 나타낸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촉각에 집중하여 감각한 것을 공간 이미지(건축적 이미지)와 상징적인 기호 등으로 표현하였다.



<대화 201812-blue30>이 작품의 경우 꽃은 타자의 삶을 의미한다. 사슴은 자아를 인형과 새, 촛대는 자아와 연결된 타자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도티드는 타자의 삶을 엿보는 창과 같다 우리는 타자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기도 하며 동경하기도 한다. 그래서 타인의 삶을 꽃으로 표현하였다.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꽃 도티드에 비춰진 타인의 화려한 삶.. 사슴은 관찰자이기도 하고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리고 소통이 가능한 나와 연결된 타자들은 인형과 촛대 새로 표현하였다. 우리는 소통에 목마르다. 소통을 위해 SNS를 하지만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이러한 세태를 본인의 관점에서 풀어가고자 했다.

최수진

서양화

숨을 담그는 사람
90.9×65.1cm
Oil on Canvas
2017



회화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물감을 다루는 태도와 과정, 그리고 색을 다루는 시간들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래서 회화 작업을 다루는 과정을 무수하게 분해하고 그 찰나들을 의인화 하여 다른 제작의 상황으로 빚대어 표현하게 되었다. 그동안 해왔던 '풍경 속의 상황'을 연극 무대라고 생각했을 때, 무대의 장막 뒤에서 연극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하나의 그림을 연출하기 위한 재료들을 만들고 있는 인물들을 그림의 주인공으로 만들었다. 이 주인공들은 이전의 작업에 등장한 요소들과 앞으로의 작업에 등장할 요소들을 생산한다. '숨'은 나의 작업 안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숨을 담그는 사람'은 숨을속성하기 위해 항아리에 숨들을 담고 있는 장면을 연출한 작업이다.

개구쟁이
73.0×45.0×25.0cm
레진
2019



철들고 싶지 않은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얼룩무늬의 개구쟁이 같은 강아지는 평생지기 친구를 뜻한다. 그 친구는 아무리 어려운 세상살이도 언제든 무조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살아갈 만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친구와 사랑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천진난만하고 행복한 어른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마음과 순수한 모습을 간직하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행복일 것 같다. 이 작품은 그런 개구쟁이의 위트 있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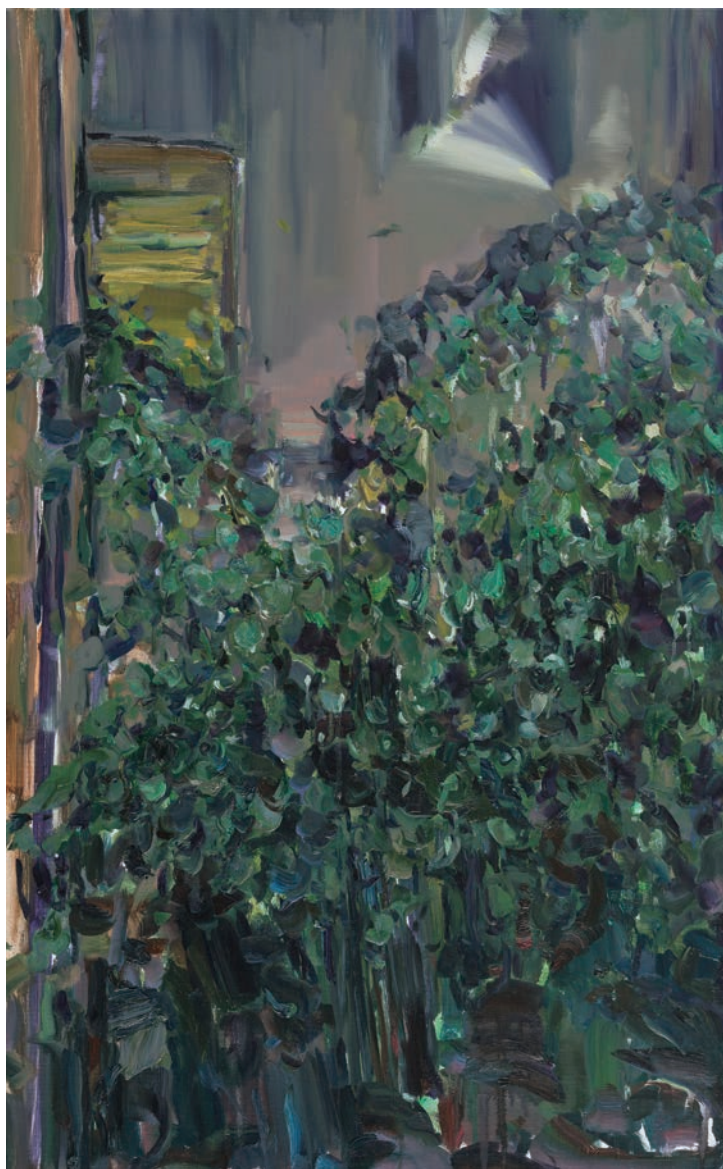
최승애

조각

최윤희

서양화

흐린 공기
116.8×72.7cm
Oil on Canvas
2018



내가 그렸던 장소들은 주로 집과 작업실을 오가며 본 밤의 길가 위의 풍경들 이었다. 밤의 인공의빛은 어둠을 뚫고 어떤 곳을 비추고, 나는 그 존재가 순간적으로 밝게 비춰질 때, 그때를 기억했다가 그리는 작업을 했다. 우리의 시선에서 미처 보지 못했던 그만의 시간성이 드러난 흔적이 묻어있는 장소들이 눈에 띄었다. 그 곳을 향한 눈은 언제나 존재 했지만, 진실에서 외면된 풍경의 한 부분들처럼 여겼다. 그곳들은 지저분하고 형태를 짐작하기 어려웠지만, 언제부턴가 그 자리에 오랜 시간 놓여 있었던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밤의 시간이 되어서야 존재를 찾았고, 나는 그것들을 보았다. 그리고 기록하기로 하였다.

my historic wound
50.0×50.0×3.0cm
스테인리스스틸에 실탄사격
2020

최재훈

조각



나의 역사적 상처 〈 my historic wound 〉는 2002년 시작한 작업의 연작으로서 작가 본인의 경험과 역사에서 파생된 상처와 기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내제된 상처와 기억, 망각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결과물로서의 작품 안에서 리플렉션과 환영, 자신을 향하여 발사된 충격과 왜곡, 거울 효과를 통해 자아와 타자의 동일시 된 공간과 시간에 주목한다. 또한 개인의 역사와 기억을 통한 주변의 풍경, 왜곡의 거울효과들은 관찰에서 투영, 전이를 통하여 역사적, 사회적 사건과 풍경에 대한 내밀한 접근을 시도하는 일종의 자기 고백적 작업이기도 하다. 총탄으로 패인 상처의 표면에 투영된 일그러진 자신과 주변의 풍경을 바라보도록 이끄는 이번 작업은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나와 동시대인을 향한 역사와 기억의 사유적 질문이기도 하다.

최정주

서양화

embrace
90.3×116.4cm
Oil on Canvas
2013



나는 언제부터인가 삶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잡한 고민이나 문제들이 손쉽게 해결되는가 싶다가도 사소한 감정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곤 한다. 나는 수많은 인파 속에서 길의 오른쪽으로 치우쳐 걷고 깨끗한 바닥에 침을 뱉어낸다. 개인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떤 존재의 선한 의지 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해진 길 위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상상한다. 그러나 시스템이 정교하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은 사건들이 도처에 깔려있고 우연의 과정들은 의외의 결과를 만든다. 복잡한 삶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나의 감각뿐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의 사랑이 너의 사랑과 같을까? 나는 나의 감각이 알려주는 대로 너를 쓰다듬으면 되는 것일까? 이 거짓말 같은 세상에 가장 사실적인 느낌은 너와 함께 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감각은 믿을 수 있을까? '남자(여자)는 여자(남자)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세상)을 그릴 수 없어서 입맞춤(사건)을 그리기로 했다. 작가 노트

낭만이 있던 날
100×80.3cm
장지에 석채
2019

최지현

한국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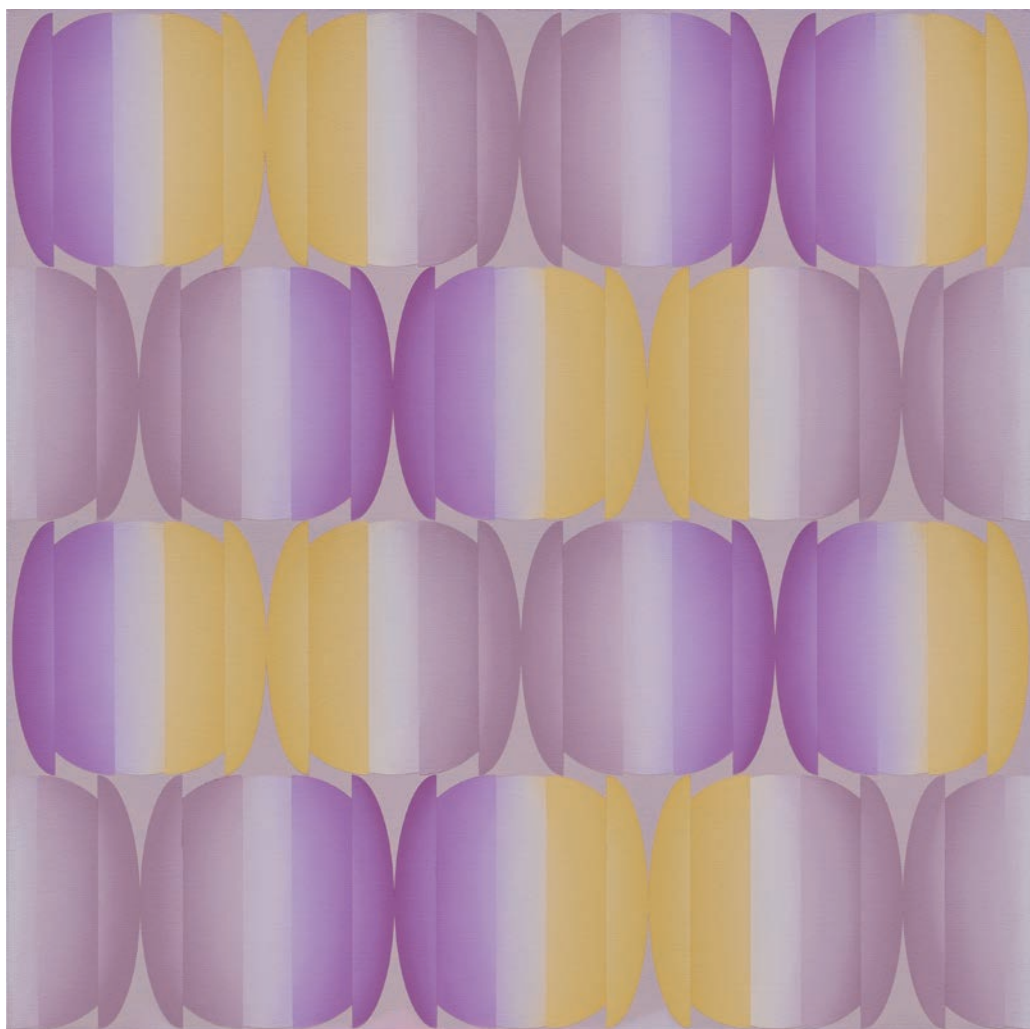


화면 안을 완성하기 위해 조각을 활용한다. 하나의 조각은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수많은 조각들이 유기적으로 어울리면 다양한 형과 색을 만들어낸다. 크고 작은 조각들이 모여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는 것은 마치, 일상의 조각이 모여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것과 같다. 그래서, 작은 조각들을 모아 하나의 숲을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다양한 오늘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낭만이 있던 날>은 어릴 적 추억을 회상하며 진행한 작업이다. 부드러운 돌멩이, 흔하디 흔한 조개, 싸구려 진주 구슬들은 어릴 적 보물이었다. 특별하지 않아도 나에게만큼은 보물이었던 그것들은 마음을 풍족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작업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꼭꼭 숨겨둔 그때의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

최혜경

서양화

무제
90.0×90.0cm
Acrylic on Canvas
2020



본 작업은 기하학적인 원이 쪼개지고 움직이며 인접한 원과 만나는 동적인 형상을 표현하고 있다. 원이 이차원 평면도형 상태에서 벗어나 각도를 바꾸며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음영 기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화면에서 삼차원적인 환영감이 느껴지도록 하였다. 이렇게 회화의 평면성과 가상성을 한 화면에 공존하도록 표현함으로써 디지털매체가 제공하는 평평한 물질적 스크린 위에 무한한 시간적 공간적 가상 세계가 이미지로 드러나는 오늘날 시각 환경을 반영하였다. 또한, 부풀어 오르는 듯 볼록한 입체감과 변화하는 화려한 색을 강조하여, 기존 기하학적 추상 미술이 지닌 절대적이고 권위적인 태도에 반해 유연성과 역동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Relocation_6
77.5×77.5cm
Oil on Canvas
2012

최혜란

서양화



우리는 늘 쇼윈도의 유리 벽을 바라보면 소비의 욕망을 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나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인상을 그린다고 할 수 있다. 망막(쇼윈도)에 비친 그림 속 대상은 망막을 뚫지못한 채 부유한다.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관객과 쇼윈도, 인물의 시선은 서로 교차되며 만화경처럼 확장된 공간을 만든다. 쇼윈도는 욕망의 거울에 비친 허상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쇼윈도)은 끊임없이 확장되지만 닫힌 공간이다. 망막의 유리 벽을 표현함에 있어서 차갑고 단단함의 극사실 기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촉각적으로 차가운 화면의 질감이 소비와 욕망으로 인해 소외당한 우리를 형상과 구성, 촉감으로 적절하게 표현해준다.



달(The moon)은 맑고 높은 절개의 상징이자 풍요와 재생, 부활의 기본적인 원형이며 그 밝은 빛은 정화하는 힘을 나타내며 온화한 느낌은 군자의 덕을 상징한다. 많은 예술가는 미의식의 원천으로서 달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품으며 달의 시와 그림, 그리고 달을 노래해 왔다. 이 작품은 그간 우리가 인지해온 달의 서정과 더불어 달의 이면을 바라본 것이다. 운석의 충돌로 인한 달의 상처와 화산의 활동에 의한 달의 균열, 달의 지형과 양상에 대하여 표현한 것이며 바다가 있고, 벼랑, 고원, 산맥, 호수, 그리고 분지가 있는 '달의 몸'을 이야기 한 것이다.



내 작품의 주제는 세상을 이루는 지(地) 수(水) 화(火) 품(風)에서 기원한다. 흙과 물, 불과 바람으로 인해 대자연이 가능하고 생명체의 존재가 가능하다. 이번 작품에서는 학(火), 불을 모티브로 삼아 자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생동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불, 불꽃을 통해 이른바 생명체가 발산하는 호흡, 혼과 같은 것을 시각화하여 탄생된 작품이다. 거대한 불꽃의 흐름은 나의 의도를 초월하여 스스로 타 들어 가면서 캔버스의 표면을 다 태우고 미지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나의 캔버스는 제2의 자연이 되어 보이지 않는 나의 심연에 내재되어 있는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이 불의 매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무릉도원, 즉 유토피아이다.

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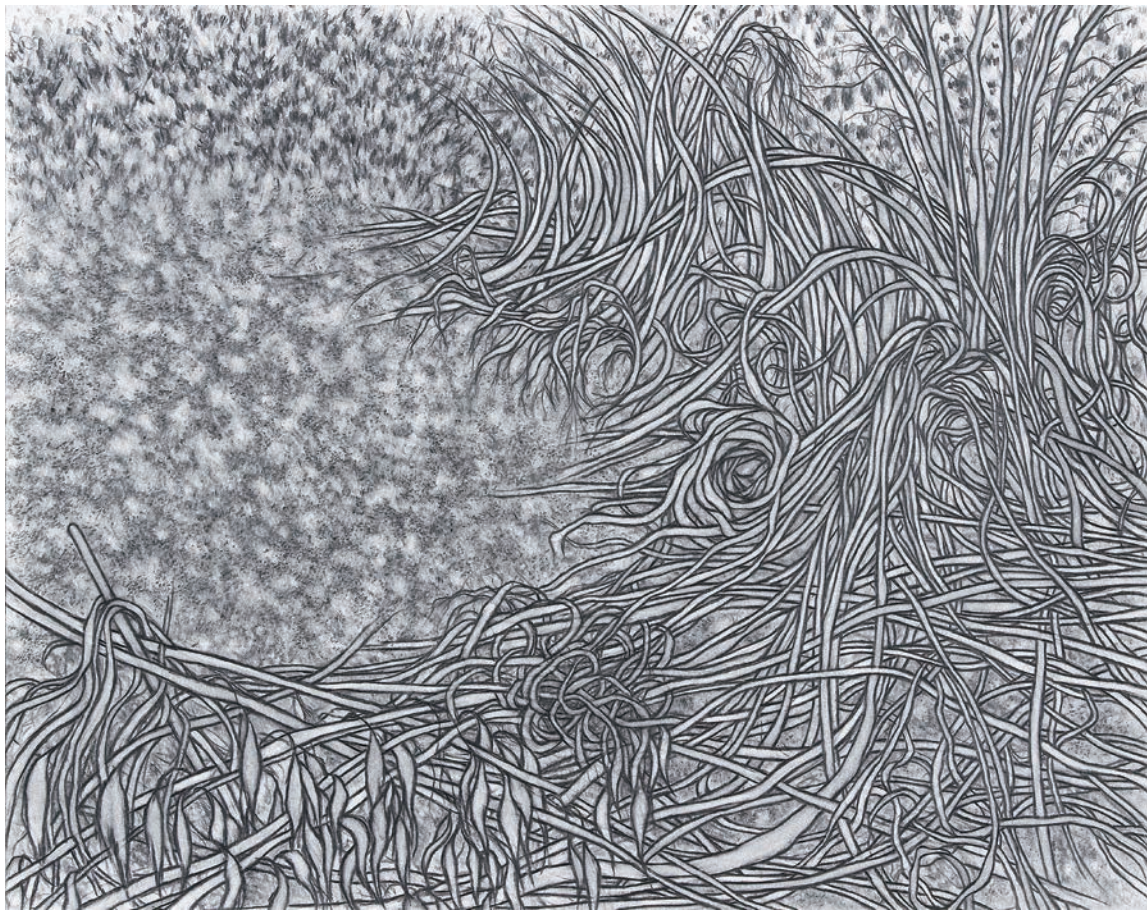
드로잉&판화

밤은 아직 기다려야 하고 낮은 이미 아니다.

33.0×41.0cm

종이에 연필

2015



기억이란 오래된 물건처럼 빛이 바래거나 한쪽이 유실되기도 하며, 온전한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흔적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 때론 압축되기도 하고 연산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거리와 공간의 깊음이 생겨난다. 작품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밤은 아직 기다려야 하고 낮은 이미 아니다.'와 같이 정확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시간과 뚜렷한 주어로 명명할 수 없는 상태를 내포한다. 현실의 어느 지점을 빗대어 떠오른 기억 속 이미지들은 움직임의 겹과 겹이 누적된 장소로, 오랜 시간 영향을 준 실체는 소거되지만 남겨진 흔적들이 응집된 대상이다. 이는 움직임을 지닌 존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지속과 멈춤, 누적과 소거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지점을 오고가며 형성된 장면들을 시각화 한다.

Sediment

89.0×71.0cm

실버 젤라틴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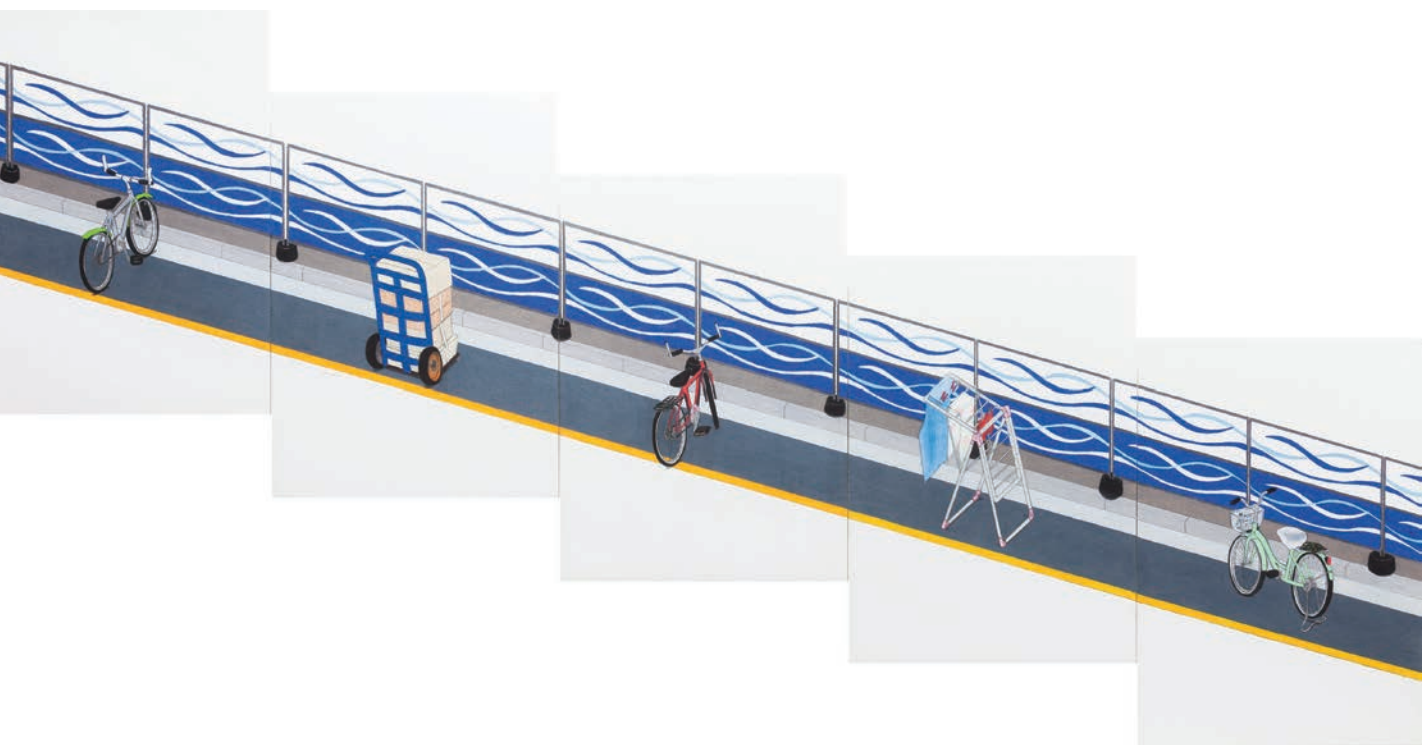
2018

한칭 & 모나

사진



〈Sediment〉(2018)는 에든버러의 고대 유적물 중 돌의 피사체 일부를 찍은 이미지로, 퇴적된 시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수 백년이 넘게 이어진 자연의 침식과 부식 과정들은 돌의 표면에 새겨지고, 이 축적된 잔재들은 시간의 켄들로 덧입혀졌습니다. 돌 표면의 부식된 침전물과 바래진 색들은 과거와 현재를 대변하고, 이는 시간의 오브제이자 역사의 축적물로서 기록됩니다.



베토벤은 시력, 청력을 잃어 갈 때, Symphony No.5 '운명'을 작곡한다. 신체적, 예술적 성향은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주었다. 줄리에타 Giulietta Guicciardi와 사랑에 빠졌을 당시 '월광' 소나타를 만든다. 이후, 줄리에타의 사촌인 테레사 Therese Brunsvik 와 사랑에 빠지고 3악장으로 구성된 Sonata No 23, 'Appassionata'를 만든다. 2016년부터,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아파서나타(이탈리아어 형용사. 열정적인이라 명한 이유는, 개인적인 사건을 작품에 깊게 반영하기 때문이다. 아파서나타 소나타의 첫 악장에 해당하는 영상은, 폴로(Polo)경기로 유명한 부에노스 아이레스(아르헨티나)에서 2016년부터 촬영된다. 호헤 안토니오 Jorge Antonio는 1964년 도쿄 올림픽, 승마점프에서 5위를 기록한다. 아들 호헤 카나베스 Jorge Canaves 의 안장 생산 공장, 마장마술 경기장, 경마 장면 등 고정된 시점의 영상에서는, 주어진 환경에 조종되는 말의 모습을 통해, 개인과 사회구조의 관계를 환기시킨다. 아파서나타 프로젝트는 그간 오브제에 집중되어 있던, 작품에서 벗어나 영상과 키네틱 오브제의 균형을 찾는 실험으로 작품 변화의 중요한 시기이다.

홍이현숙

미디어아트

조출한 추모
6분 26초
단채널비디오, 컬러, 사운드
2016



문옥주의 20번째 기일에, 대구 경상북도 칠곡군 학명공원에 있는 그의 묘지에서 올린 작은추모식을 영상으로 담은 작품이다. 문옥주 할머니 봉분을 덮은 편지들은 2016년 10월12일 일본대사관앞 수요집회에 참여한 분들과 그후에 대구 회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방문했던 분들이 써주신 것들이다. 문옥주의 삶은, 다만 일본군의 성노예 피해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던 한 개인이, 어떻게 가해자(군대 혹은 개인)의 거대하고 무자비한 폭력에 굴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혹은 그 틈을 벌리어 따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이루어 냈는지 보여준다. 작가는 삶에 대한 그의 씩씩한 태도와 굴복하지 않는 거친 자세를 새삼 그리워하며 그의 무덤가에서 그를 부른다.

그날은 가고
64.0×93.0cm
실크에 나염, 면사, 밀가루풀
2014

홍진희

서양화



나는 물감 대신 '실'로 숲을 그린다. 실을 재료로 선택한 이유는 물감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때론 부드럽고, 때론 거친 질감과, 미세한 양감의 매력, 또한 섬세한 손끝 조작으로 무수한 형태 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은 물감처럼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오브제처럼 붙이고, 입체를 만들 수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작품의 소재는 나무숲이고 주제는 치유이다.



'Stroller'는 기차역, 버스터미널, 지하철 등 도시의 비장소(非-場所, non-lieux, non-places)를 배회하는 군중과 공간을 종이 위에 콩테라는 재료를 고착시키며 그려낸 작업이다. 21세기 도시를 배회하며, 도시 풍경 이면에 내재된 무감각함과 익명성(Anonymity)을 재료의 물성을 통해 풀어내고자 했다.



〈숨어있는 꽃〉 시리즈는 전국을 여행하면서 채집한 다양한 식물들을 엠보싱 기법과 콜라주를 이용하여 제작한 판화, 드로잉 연작이다. 특히 시리즈 제작을 하면서 여행한 지역들은 역사적, 사회적으로 상흔을 간직한 곳들이 중심이 되었다. 이 작업은 제주 4.3 항쟁 유적지 부근에서 채집한 제주의 토착 식물인 광대나물을 소재로 한 것으로, 2017년 <숨어있는 꽃-제주>(꿈인제주 갤러리)에서의 개인전에 출품했던 8점의 연작 중 하나이다. 다음은 이 시리즈에 대한 스테이트먼트의 일부이다.

황혜인

사진

리버티타운
60.0×90.0cm
아카이벌 피그먼트 프린트
2018



ARTISTS PROFILE

'리버티 타운(Liberty Town)'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6년을 기점으로, 평택시 신장동과 평성읍 안정리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기록한 '리틀 아메리카(Little America)' 시리즈에 속한 작품이다. 평택시 평성읍 안정리 캠프 험프리스 주변 미군 렌탈하우스의 모습을 기록한 작품은 주한미군의 집단 이주가 동반한 사회 문화적 변화 속에 존재하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 구조를 추적한다.

강보경 | 서양화

- ’9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졸업
- ’94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대학원 졸업
- 개인전 5회 (서울, 일본)
- 2019 엇갈림과 뒤영킴, 강보경/안재홍 2인전
- ’13, ’16 한국 가톨릭미술가회 협회전
- 2003 서울예술고등학교 50주년 동문전
- 2002 KOREAN VOICE
- 이윤정,박서림,강보경 3인전
- 단체전, 기획전 총 54회

강주리 | 서양화

- 2011 미국 터프츠대학교 보스턴뮤지엄스쿨 석사 졸업
- 2006 덕성여자대학교 서양화와 학사 졸업
- 개인전 14회 (한국, 미국 등)
- 2020 살아남기 To Survive: 유리상자 아트스타 2020
- 2019 설화문화전: 미시감각 문양의 집
- 2019 Avant Gardens, 미국
- 단체전, 기획전 총 62회

고현 | 서양화

- 1997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회화학과 졸업
- 1999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20회
- 2019 한일국제교류전, 오창
- 2008 미술과 놀이, 예술의전당 미술관
- 2007 st-art 12e edition, Germany
- 2007 Body Without Body, 북경
- 단체전, 기획전 총 100여회
- 2001 중앙일보미술대전 대상

권오신 | 서양화

- 1998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 2003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부 회화, 판화전공 졸업(석사과정)
- 2007 일본 타마미술대학 대학원 미술연구과 회화전공 졸업(석사), 미술전공 졸업(박사)
- 개인전 12회
- 단체전, 기획전 총 80여회
- 2018 뮤지엄 SAN 신진판화작가 선정
- 외 수상 다수

강유림 | 한국화

- ’11 단국대학교 한국화전공 미술학 박사
- ’97 세종대학교 미술대학원 한국화 전공 석사
- ’94 강릉원주대학교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학사
- 개인전 17회 (서울, 일본)
- 2019 갤러리 그림손 기획-관점의 차이
- 2019 환동해권 국제미술교류전
- 외 다수 전시
- 2014 제1회 춘추청년미술상 수상
- 2013 제17회 관악현대미술대전(최우수상)

고우리 | 서양화

- 2017 국민대학학원 미술학과 회화전공 졸업
- 2013 건국대학교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6회
- 2019 SIMA FARM
- 2019 북구예술창작소 네트워크전
- 2018 Union art fair-Let's make together, S factory
- 2017 아트 광주 : 17_청년작가전
- 단체전, 기획전 총 45회

구나영 | 한국화

- 2008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 200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졸업
- 개인전 16회
- 2020 The Narrative of Existence
- 2019 Sedimented Times, Distilled Emotions
- 2018 Spectrum of Emotions
- 2017 BLACK – be not seen
- 2017 Walking in the Forest of My Mind
- 단체전, 기획전 총 50여회

권혜경 | 서양화

- 2015 자르 조형예술대학교 순수예술 회화전공 마이스터과정 졸업
- 2013 자르 조형예술대학교 순수예술 회화전공 디플롬 졸업
- 2008 울산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서양화와 졸업
- 개인전 4회
- 2020 난립예정지亂立豫定地
- 2019 유니온아트페어, 서울, 에스펙토리
- 단체전, 기획전 총 35회

강유정 | 서양화

- ’20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서양화전공 박사 수료
- ’18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서양화전공 석사 졸업
- ’15 이화여대 서양화, 미술사학전공 졸업
- 개인전 4회 (서울, 성남)
- 2020 난립예정지,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 2020 'do.artist' 강유정 최은영,
- 2019 Drawing On Paper, 예술공간 서:로
- 단체전, 기획전 총 19회
- 2019 성남청년작가전 선정작가 외 수상 다수

고재욱 | 서양화

- 2010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전공 학사 졸업
- 개인전 7회
- 2020 행복이 나를 찾는다, 세종미술관
- 2019 호텔사회, 문화역서울284
- 2019 모던로즈, 남서울시립미술관
- 2019 MMCA 페스티벌 : 광장·숲
- 2019 나나랜드 : 나답게 산다, 사비나 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45회
- 2017, 페리지 팀 프로젝트 작가선정

구민자 | 사진

- 2007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 2002 연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전공 졸업
-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전 6회
- 2019 아트 센트럴 홍콩 퍼포먼스 프로그램
- 2019 액면가로 () 받아들이기, 호주
- 단체전, 기획전 총 57회
- 2010 송은 미술대상 우수상 수상

기술기 | 사진

- 2012 런던 대학교 파인아트 미디어 전공 석사과정 졸업
- 2007 상명대학교 사진학과
- 2005 서울예술대학교 사진학과
- 개인전 5회
- 2019 오픈 유어 스토리지, 북서울 미술관
- 2019 Total Installtion, 갤러리엔, 베를린
- 2018 불안의 서, 경남도립미술관, 경남
- 단체전, 기획전 총 55회

김경원 | 서양화

- 2019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학과 졸업
- 2007 성신여자대학교 동양화학과 졸업
- 개인전 3회
- 2020 제6회 멘토멘티전
- 2020 팔레드 서울 신진작가 단체전
- 2019 유니온 아트페어 'all about love'
- 2018 유니온 아트 페어
- 단체전, 기획전 총 30여회

김근배 | 조각

- 1995년 서울 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졸업
- 1999년 이탈리아 까리라 국립 아카데미아 졸업
- 개인전 24회
- 초대 2인전 16회
- 그룹 및 단체전 200여회
- 2002 제3회 청년작가 야외조각 공모전
- 2001 제11회 이탈리아 국제조각삼포지움
- “난토 피에트라 2001” 1등상 (이탈리아 난토)
- 2001 무등미술대전 특선 외 수상 다수

김동철 | 서양화

- 199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 1994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졸업
- 개인전 18회
- 2020 반미령, 김동철(갤러리 문, 서울)
- 2019 KIAE(갤러리문, COEX, 서울)
- 2018 이름지기바자전
- 2018 BAMA(백스코, 부산)
- 단체전, 기획전 총 150회
- 91,94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수상

김민영 | 서양화

- 2018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졸업
- 2013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석사졸업
- 2007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학사졸업
- 개인전 10회
- 2018 제45회 영주미술작가회展
- 2018 오버더레인보우展(순화동천)
- 2018 의정부아트페스티벌(의정부예술의전당)
- 2018 예술을 품다展(근민당갤러리)
- 2018 제3회 초대전 A1(금보성아트센터)
- 단체전, 기획전 총 55회

김규태 | 공예

- 1995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공예미술학과 학사 일반대학원 도자전공 석사 졸업
- 개인전 14회
- 2019 愚果 (서울 루스카)
- 2018 진사백자의 봄 (울산 다운재)
- 2017 사과 (양평 문호리)
- 2016 공기 그리고 사과 (서울 스페이스 두루)
- 단체전, 기획전 총 85회
- 2003 제1회 대한민국 문화관광상품 대전 특선

김나영 | 드로잉&판화

- 1992-1996 파리 국립미술학교
- 1984-198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 개인전 34회
- 2018 헤어날 수 없는 생생화화 2018
- 2018 황금시슬, 문자심포지아 2018
- 2017 오래된 미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 2016 색각이상(色覺異常): 피의 온도
- 단체전, 기획전 총 96회
- 2009 음수대 디자인 대상

김명진 | 한국화

- 2001년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졸업(동양화전공)
- 1997년 세종대학교 회화와 졸업(동양화 전공)
- 개인전 11회, 2인전 4회
- 2019 지역네트워크 교류전 2019 : Face to Face 마주보다
- 2018 FRAGILE 김남현 김명진 이정수 (챔터투, 서울)
- 2017 Black'n Black – 심연의 색 외 다수

김보종 | 서양화

- 198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 졸업
- 1989 California State University, Chico M.A.과정수료
- 1991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F.A. 졸업
- 개인전 21회
- 2019 사람-강 (아트스페이스 광고 전시관)
- 2019 가족의 정원 展 (양평군립미술관)
- 2018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모든평화>
- 단체전, 기획전 총 200여회

김규학 | 서양화

- 2007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서양화 전공 졸
- 1984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과 졸업
- 개인전 10회
- 2020 아트클라우드, 양평군립미술관
- 2019 아사이프(히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2018 그림으로 보는 한국문학
- 2017 여수국제아트페스티벌
- 단체전, 기획전 총 250회

김남용 | 서양화

- 199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 2003년 서울대학 대학원 서양화와 서양화 졸업
- 개인전 5회
- 2019 아트경기 팝업갤러리 (국립암센터. 고양)
- 2019 경기, 아트로 물들다 (경기도청. 수원)
- 2019 아트경기2019 (공간1986, 수원)
- 2018 사물에서 사물로 (AG갤러리, 서울)
- 2017 인도 첸나이첸버 비엔날레 2016 KAIF
- 단체전, 기획전 총 70여회

김문경 | 공예

- 200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
- 200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일반대학원 도예과 석사졸업
- 202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 공예학과 도예전공 박사졸업
- 개인전 7회
- 2020 디자인 아트페어 2020 초대작가 공모 선정
- 단체전, 기획전 총 78회

김선 | 서양화

- 1992 경희대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졸업
- 2000 경희대 미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 졸업
- 개인전 10회
- 2020 강원 아트 페어 (춘천 예술 문화 회관),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전
- 2007 international festival in Baku
- 2004 20th international festival in sarajevo(National art gallery)
- 1999 한국정예작가 초대전(서울시립미술관) 외 다수

김성건 | 서양화

- 1999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졸업
- 개인전 6회
- 2020 갤러리H 기획전 '일상의 빛', 갤러리H
- 2019 서초미술협회 기획공모전 작품상 수상기념 김성건 기획전-형상전형의 전환',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 2019 아트포럼리 현장전 '김성건-형상전형의 전환', 대안공간 아트포럼리
- 단체전, 기획전 총 22회
- 2018 3회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우수상

김시영 | 서양화

- 199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 개인전 6회
- 2020 나, 당신, 우리의6월, 더숲갤러리 (서울)
- 2019 프리덤 2019, 후쿠오카 미술관 (일본)
- 2019 프리덤 어제와 다른 내일전
- 2019 항일여성독립운동가전, 세실극장(서울)
- 2019 오월에 선물전, 리수갤러리(서울)
- 2001 경기미술 새로운 도약전
- 단체전, 기획전 총 45회

김아라 | 서양화

- 2016 경기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각학과 졸업
- 2012 경기대학교 환경조각학과 전공 졸업
- 개인전 4회
- 2020 OUTSIDER, 팔복예술공장, 전주
- 2019 SIMA FARM,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 2019 아트경기'ART LIVING HOUSE'
- 2019 ASYAAF 아시아프 2019
- 단체전, 기획전 총 19회
- 2013 제49회 경기미술대전 조소부문 특선

김영은 | 미디어아트

- 2013 헤이그 왕립음악원 소솔로지 코스 수료
- 2007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매체전공 전문사 졸업
- 200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학사 졸업
- 개인전 6회
- 2020 COLA 2020, 로스앤젤레스, 미국
- 2020 검은 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 단체전, 기획전 총 40회
- 2017 송은미술대상 대상

김성수 | 서양화

- 1994 경원대학교 회화학과 서양화 전공 졸업
- 1999 한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4년 수료
- 2006 대추리의 기억 작은 개인전
- 2020 5.18 40주년 문화예술제
- 2019 제12회 솟대를 흐르는 숨결展 '화가의 책'
- 2019 경기민예총 해외문화예술 탐방전
- 2018 제11회 솟대를 흐르는 숨결展 '예술가의 꿈과 밥' 책테마파크 성남(총1회)
- 단체전, 기획전 총 53회 이상

김시하 | 사진

- 2002 계원조형예술대 동시대미술 연구 과정 수료
- 1997 경희대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졸업
- 개인전 11회
- 2019 로드쇼2019,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 2019 육육육, 서울 시대여관
- 2018 악의 사진-강원 국제비엔날레
- 2018 당신과 나 사이에 서울, 신한 갤러리
- 2017 천변만화-태화강설치미술제
- 단체전, 기획전 총 65회

김영경 | 사진

- 2003 홍익대학교 대학원 사진디자인 졸업
- 개인전 10회
- 2020 불가능한 온도, 예술공간 부리도, 서울
- 2019 울산 북구 아트 스튜디오 네트워크전
- 2019 신당창작아케이드 10주년 기념전시
- Quantum Leap: 비약적 도약
- 2019 바람 부는 날은 장미동에 간다
- 2018 다원공간 문 허반기 결과전
- 단체전, 기획전 총 66회

김은숙 | 사진

- 2010 독일 함부르크 국립 조형 미술대학교 자유미술학전공 대학원 (Diplom) 졸업
- 2005 독일 할레 국립 예술대학교 유리, 회화, 조형학과 전공
- 개인전 8회
- 2020 생생화화生生化化, 성남큐브미술관
- 2020 수림미술상, 서울, 수림아트센터
- 2019 밀타-엑스 4913, 서울시립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50회 이상

김수철 | 서양화

- ’93 홍익대 미술대학 회화와 서양화전공 졸업
- ’10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와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13회
- 2019 상고사 전 '하늘이 위에 하늘이 밑에, 별들이 위에 별들이 밑에'
- 2019 국제교류 - 현재를 바라보는 사진
- 2018 손그림전, 예술장치-무경계프로젝트4차
- 단체전, 기획전 총 94회
- 1994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외 수상 다수

김시현 | 서양화

- 201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 2007 인천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서양화 졸업
- 개인전 35회
-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 2019 초청기획-하이퍼리얼리즘 '자연과 미술展'
- 2017 극사실주의展-Beyond the Limit
- 2016 때 · 時 · 色 · 갈 우리 삶에 스민 색깔
- 단체전, 기획전 총 330여회
- 2006 제1회 남농미술대전 최우수상 외 수상다수

김영구 | 서양화

- 1988 영남대학교 회화와 서양화 졸업(학사)
- 1990 영남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졸업(석사)
- 개인전 19회
- 2020 보령미술해를품다, 보령문화예술회관
- 2020 화랑미술제, COEX, 서울
-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 2019 김해비엔날레 국제미술제'
- 단체전, 기획전 총 750여회
- 1989 경상북도미술대전 “대상” 외 수상 다수

김일해 | 서양화

- 200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학과 졸업
- 개인전 40여회
- 2005~2019 한국구상대전제전
- 1984~2009 목우회전
- 2010~2019 한국현대미술가전
- 2014~2018 한 · 중미술교류전
- 단체전, 기획전 총 400여회
- 2019 한국구상대회 전우수상
- 2016 아시아미술상 외 수상 다수

김자연 | 서양화

- 1989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 198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 개인전 43회
- 2019 섬김과 나눔전 (갤러리 가이아)
- 2018 VISION-2018 전 (갤러리 가이아)
- 2018 제32회 홍익대학교 미술교육원전
- 201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전
- 2015 VISION-2015 꿈과 사랑전
- 단체전, 기획전 총 150여회

김주익 | 서예

- 2007 원광대학교 대학원 서예문화학과 졸업
- 개인전 17회
- 2020 평택미술축전(평택호 예술관 5.12-22)
-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 2019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 단체전, 기획전 총 200여회
- 2013 국회의사당 제한국회헌법제작 공모 당선
- 2003 동아미술제 대상 수상(현대미술관)
- 2001 새천년 한국서예술대전 특선 외 수상 다수

김진우 | 한국화

- 2013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전공 졸업
- 개인전 2회
- 2020 '아트바이러스2020'
- 2020 '아트클라우드 신소장품전'
- 2019 '바람과 흔적', 청주공예비엔날레 Flag Art
- 2019 '예술하라', 팔레드서울, 서울
- 2018 '여름생색', 인사아트센터,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20~30여회
- 2019 겸재미술대전 장려상 외 수상 다수

김태동 | 사진

- 2013 중앙대 대학원 사진학과 순수 파트 석사
- 2007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순수파트 학사
- 개인전 4회
- 2020 낯선전쟁,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서울
- 2020 Civilization Photography Now, AUCKLAND ART GALLERY, 오uckland
- 2019 〈The Nature Rules〉, 일본
- 단체전, 기획전 총 64회 이상
- 2018 제6회 아마도 사진상 외 수상 다수

김잔디 | 서양화

- 2007 Chelsea College of Arts and Design, MA Fine Art, London
- 2006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와 대학원졸업
- 2002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 개인전 9회
- 2019 태평 빈집 프로젝트-태양공판장
- 2019 그대는 나의 봄이 되었다
- 2017 출구전략, 스페이스엠,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30여회

김지아나 | 서양화

- 2008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박사수료
- 2002 몬트클레어주립대학원 석사 졸업
- 1998 파슨스 스쿨 오브 디자인 학사 졸업
- 개인전 17회
- 2020 '미술과 과학의 융합 展'
- 2020 '봄의 조각', 아이코스 퍼블릭아트 프로젝트
- '2020 화랑 미술제'
- 2019 '판타스틱 유토피아', 수피아미술관
- 외 단체전 및 기획전 다수

김창영 | 서양화

- 2007 프랫인스티튜트, M.F.A, Painting
- 2001 추계예술대학교, B.F.A, 서양화
- 개인전 7회
- 2020 PAJU ACT.2, Artists' studios & Art spaces in PAJU Book City, 파주 (총 30회 외 다수)
- 2019 거슬러 오르는 이미지들
- 2019 베일 뒤편 베일, 아트노이드178, 서울
- 2018 ART369, 아트 플레이스 외 다수

김태헌 | 서양화

- 1992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 개인전 21회, 2인전 5회
- 2020 Da CAPO 2020(담갤러리), 서울
- 2019 리얼, 리얼시티(아르코미술관), 서울
- 2019 시간을 보다(서울대미술관), 서울
- 2019 Selfie-시대의 자화상(이미미술관), 당진
- 2018 Selfie-시대의 자화상(이미미술관), 당진
- 2018 DMZ 10년 특별전(김포문화예술회관)
- 외 단체전, 기획전 다수

김재홍 | 서양화

- 개인전 10회
- 2019 '광장'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8 '오레알'전, 나무화랑, 서울
- 2018 '언팜이 풀리고'전, 나중화갤러리
- 2017 '균열'전, 국립현대미술관, 경기 과천
- 2017 '청년의 초상'전, 국립역사박물관, 서울
- 2013 '자이트가이스트 시대정신'전
- 2011 '2011-함께하는 경기도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80여회

김진숙 | 한국화

- 1997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화와 졸업
- 개인전 2회
- 2020 조형아트서울, 코엑스, 서울
- 2019 UN청년작가회전, 정수갤러리, 서울
- 2019 화가의 책전, 갤러리JM, 성남
- 2018 김진숙,김호민 2인전, 꼬작미술관, 남양주
- 2018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벡스코, 부산
- 2018 소확전, 서현문화의집 갤러리, 성남
- 단체전, 기획전 총 25회

김춘재 | 서양화

- 200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졸업
- 2011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 개인전 5회
- 2019 빛이 머무는 밤, 신세계 갤러리, 광주
- 2019 3의 엑스제곱은 인피니티, 인천
- 2018 아트스펙트럼, 서드플레이스, 서울
- 2018 기억의 밤 그리고 낮, 성북도원, 서울
- 2017 성남을 걷다,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27회

김현주 | 드로잉&판화

- 2015 홍익대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 (판화전공)
- 200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와 졸업
-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와 졸업
- 1992 상명여자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23회
- 2019 디자인코리아아트페스티벌(킨텍스)
- 단체전, 기획전 총 270회
- 2010 제 30회 한국현대판화공모전
- 지명공모부문 ‘대상’ 외 수상 다수

김현철 | 한국화

- 1989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 198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졸업
- 개인전 24회
- 2020 전망:자연, 바다, 독도 그리고 화가의 눈
- 2019 궁 · 宮 · Palace
- 2019 공감, 서울, 아트레온갤러리
- 2018 민족예술, 다시 날아 오르다
- 2018 독도미학,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98회

무진형제 | 미디어아트

- 정무진 2003 명지대학교 문예창작전공 졸업
- 정효영 2006 홍익대학교 조소전공 졸업
- 2011 동대학원 조소전공 졸업
- 정영돈 2014 중앙대학교 사진학부 졸업
- 2019 동대학원 순수사진전공 졸업
- 개인전 4회
- 2020 '늘변가', d/p, 서울
- 2020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43회

문인화 | 서양화

- 1987 영남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 개인전 19회
- 2019 화랑미술제 (COEX)
- 2018 다시,창춘전 (갤러리일호)
- 2017 광주카톨릭비움.나눔페스티벌
- 2017 풍경표현전 (대구미술관)
- 2016 안산유람전(단원미술관), 안산
- 2015 경기팔경과구곡:산 · 강 · 사람
- 단체전, 기획전 총 210회

박경률 | 서양화

- 2017 런던첼시예술대학교 순수예술과 석사 졸업
- 2013 홍익대학교 회화와 석사 졸업
- 2005 홍익대학교 회화와 학사 졸업
- 개인전 9회, 개인프로젝트 4회
- 2020 그림, 그리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20 Soft Walls, Dry Fruits, n/a, 서울
- 2020 우연히 즉흥적인,도잉아트, 서울
- 2020 호텔사회, 문화역서울284,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51회

김효숙 | 서양화

- 2004 용인대학교 회화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 2009 용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3회
- 2019 MIMESIS AP3: Picturesque city
- 2016 경기유망작가(신진) 생생화화 生生化化－열네 개의 시선展,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 2015 육감전 六感, OC미술관,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42회
- 2014 3회 종근당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선정

문소현 | 미디어아트

- 2013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석사 조형예술과 매체 전공 졸업
- 2008 경희대학교 미술학부 조소 전공 졸업
- 개인전 3회
- 2020 <배달의 속도> 스페이스 55, 서울
- 2019 <아워피크닉> 부평아트센터
- 2019 <파퓰 2019 링크아웃> 일민미술관
- 2019 <파커스 피스> 온수공간,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20회

민성홍 | 서양화

- 2004 샌프란시스코아트 인스티튜트, 대학원, 순수미술, 회화전공 졸업
- 1999 추계 예술 대학교 서양화 전공 졸업
- 개인전 16회
- 2020 ‘북아현동의 기호들’, 합정지구, 서울
- 2019 ‘Hyper Salon’,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 2018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 단체전, 기획전 총 49회
- 2019 우민미술상, 우민재단, 청주

박경묵 | 한국화

- 2007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학과 졸업
- 2005 동아대학교 회화와 한국화전공 졸업
- 개인전 14회
- 2020 scope-art pair ,뉴욕, 미국
- 2020 <띠그림전>쥬 ,월전미술관, 이천
- 2019 와유금강 ,경자정선 미술관, 서울
- 2017 아트경기 ,현대백화점, 부천
- 단체전, 기획전 총 90회
- 2017 경기도 장애인문예미술사진공모 최우수상

남영화 | 조각

- 2005 성신여대 대학원 환경조각과 졸업(석사)
- 2000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부 졸업(학사)
- 개인전 6회
- 2019 D-ensemble (이정아갤러리, 서울)
- 2019 통일가원 현대조각전
-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기획전시실, 경기도)
- 2018 빛의 파라다이스-행복한 만남전
- 단체전, 기획전 총 100여회
- 제2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 조각부문 최우수상 외

문수만 | 서양화

- 2007 한남대학교 대학원 미술학전공 석사
- 개인전 20회
- 2020 제24회 일본현대국제미술전, 도쿄
- 2019 共通分母 · 兼容-중한당대예술교류전, 중국, 중국달관미술관
- 2018 한중교류전-文感展,주중한국문화원,
- 베이징/중국, 주중한국문화원
- 단체전, 기획전 총 150여회
- 2020 살롱 · 블랑미술협회 회장상

민재영 | 한국화

- 199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졸업
-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 2007 서울대학교 미술학 박사과정 동양화전공
- 개인전 14회
- 2019 제3회 광주화루 10인의 작가전
- 2018 동행同行, 우리의 발자취
- 2017 도시빛 – 민재영 · 박능생 · 배지민 3인전
- 단체전, 기획전 총 157회 외 다수
- 2006 제28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외 다수

박노을 | 서양화

- 개인전 9회
- 2020 find art find art, 갤러리 싸포먼트, 서울
- 2019 잘가, 또 만나자, 동송갤러리, 서울
- 2019 브리즈 아트페어, 노들섬, 서울
- 2019 5th Carnival, 아쉬렘, 서울
- 2018 고도 전, 요갤러리, 서울
- 브리즈 아트페어,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17 아트경기, 벨라시타, 일산
- 단체전, 기획전 총 15여회

박미경 | 서양화

- 2008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 전문사, 회화전공, 졸업
- 2005 한국예술종합학교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7회
- 2020 Drops &Landscapes, Galley SAC3, 코타키나 발루
- 2018 우주시계의 기운, 돈의문 박물관 갤러리
- 2018 인사, space 55 , 갤러리,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18회

박방영 | 한국화

- 1981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염색전공 졸업
- 1989 홍익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졸업
- 1993-5 Art Student League of New York 수학
- 2010 홍익대 대학원 동양화와, 박사과정 수료
- 개인전 21회
- 2020 평화전, 한국문화정품관갤러리, 서울
- 2020 쥬 2020띠 그림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70여회

박선영 | 조각

- 1994 서울 시립대학교 환경조각과 졸업
- 1999 이탈리아 까리라 국립 아카데미아 졸업
- 개인전 20회, 초대 2인전 16회
- 2005 내 친구 종이를 만나다
- 2005 “Open Art for KIDS”전
- 2006 미술과놀이-펀스터즈
- 2006 여름방학특별전 “Happy Birthday”
- 단체전, 기획전 총 200회 이상
- 2001년 모란 조각 대상전 “특선” 외 수상 다수

박야일 | 서양화

- 1991 세종대학교 회화와 서양화 전공 졸업
- 1997 세종대 일반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 개인전 6회
- 2020 양평군립미술관 기획 온라인 아트쇼 <The Art of Power-양평청년미술의 오늘>
- 2019 기술프로젝트 양평신화찾기 <청년작가 도큐먼트>전 (양평군립미술관)
- 2019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념전
- 단체전, 기획전 총 31회

박미라 | 미디어아트

- 2006 가천대학교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5회
- 2019 <세상의 중심에서>,GS 강서 타워
- 2019 <경기창작센터 창작레지던시 기획전 : 순환하는 밤>,경기창작센터 전시실, 경기
- 2019 <비밀없는 스프링스>, 금나래아트홀
- 2018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 문래창작촌 자원사업 MEET 2018 결과전시 #1: 발화>
- 단체전, 기획전 총 19회

박불뚱 | 사진

- 198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와 졸업
- 개인전 15회
- 2019 <세상에 눈 뜨다> 전, 국립현대미술관
- 2018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한국현대사진 운동 1988~1999> 전, 대구시립미술관
- 2018 <내대유강> 전, 서울시립미술관
- 2017 <코리아 투모로우-해석된 풍경> 전, 성곡미술관
- 2017 <더불어 평화> 전, 서울시립미술관

박승예 | 드로잉&판화

- 2012 C. W POST of Longisland University, New York, USA 석사졸업
- 1998 Southampton Campus of Longisland University, New York, USA 학사졸업
- 개인전 16회
- 2019 아트경기 팝업갤러리, AK갤러리 수원
- 2019 <회화의 시간> 종근당 역대 수상작가전
- 단체전, 기획전 총 36회

박영균 | 서양화

- 1990 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졸업
- 2003 경희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와 졸업
- 개인전 13회
- 2019 4.3미술제 '경야(經夜, WAKE)
- 2018 경기아카이브 지금 2018 경기천년 도규페스타,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18 한국현대미술시리즈Ⅲ '화화(畵畵)-유유산수',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250회

박민규 | 서양화

- 1997 세종대학교 화화학부 서양화전공 졸업
- 2000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 수료
- 개인전 10회
- 2020 ASYAAF(아시아프) 히든아티스트 선정
- 2019 베이징국제 미술 비엔날레, China
- 2018 방글라데시 국제 비엔날레
- 2018 KAFA 대한민국미술축전
- 단체전, 기획전 총 170여회
- 2019 대한민국미술대전 비구상부분 특선 외

박석민 | 서양화

- 201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전공 졸업
- 개인전 4회
- 2019 Trivia(2인전), 플랜비 프로젝트스페이스
- 2019 별벌동행, 군산 예술의 전당, 군산
- 2019 별벌동행, 광양 문화예술회관, 광양
- 019 별벌동행, 포항 문화예술회관 포항
- 2018 이동하는 예술가들,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전시장, 경기, 고양
- 단체전, 기획전 총 16여회

박신용 | 사진

- 2018 베를린 바이센제 국립예술대학 Spatial Strategies, MA 졸업
- 2012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 개인전 3회
- 2019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9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8 <Opportunity>, Kunsthalle am Hamburger Platz, 베를린, 독일
- 단체전, 기획전 총 7회

박용남 | 조각

- 198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전공 졸업
- 1992 이태리 국립 까리라 아카데미아 조소전공 졸업
- 개인전 12회
- 2019 아트 경기 All about Love, 경기, 아트로 물들이다.
- 2015 STONE WORK TODAY 김종영 미술관
- 2014 오사카 아트페어 오사카, JAPAN
- 외 단체전, 기획전 다수

박용일 | 서양화

- 199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졸업
- 200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23회
- 2019 아름다운여행전, 슈페리어갤러리(서울)
- 2018 세계 한민족 미술대축제 (예술의 전당)
- 2017 지금, 여기 (슈페리어 갤러리, 서울)
- 2017 아트부산 (벡스코, 부산)
- 단체전, 기획전 총 100여회
- 2003 동아미술대전 특선

박정우 | 조각

- 2017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전공 졸업
- 2019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전공 졸업
- 개인전 2회
- 2020, Youth#6, cica 미술관
- 2019, Be yourself, 갤러리 이상아트 스페이스
- 2019, 기획 젊은 작가전, 리빈 갤러리
- 2017 아시아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 단체전, 기획전 총 7회 이상
- 제 26회 구상조각대전 우수상 외 수상 다수

박지현 | 한국화

- 2014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동양화와 석사
- 1994년 강남대학교 동양화와 졸업
- 개인전 5회
- 2019 뜻밖의 초록을 만나다 (광교아트스페이스)
- 2019 DMZ 국제 예술정치 무경계 프로젝트
- 2018 무경계 프로젝트-온새미로
- 2018 아시아프 & 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 단체전, 기획전 총 63회
- 2018 신사임당미술대전 외 수상 다수

반미령 | 서양화

- 198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학과 졸업
- 1991 동경예술대학교 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18회
- 2000, 2006~2020 화랑미술제(코엑스, 서울)
- 2014~2019 Affordable Art Fair
- 2015~2018 Asia Contemporary Art Show
- 2002~2017 KIAF (코엑스,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250여회
- 2002 송은미술대상전 장려상

박은영 | 서양화

- 2002 한남대학교 미술대학 회화 전공 졸업
-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와 졸업
- 개인전 8회
- 2020 현대미술의 채도, 대전시립미술관
- 2019 동시대 미술가들의 항해술, 아공갤러리
- 2018 관찰자 시점, 청주시립 대청호미술관
- 2018 봄과 봄 사이,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 2017 낯선 도착,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 단체전, 기획전 총 40여회

박주영 | 한국화

- 2011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 졸업
- 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 석사
- 개인전 4회
- 2020 아시아프 애프터(ASYAAF AFTER)
- 2019 서경아트센터 공모 선정작가 전시
- 2019 아시아 대학생, 청년작가 미술축제
- 2018 K-Painting 신진작가 공모 당선전
- 2018 NEW THINKING, NEW ART 2018 외 단체전, 기획전 다수

박형진 | 조각

- 2010 Slade School of Fine Art London 대학원 졸
- 2001 홍익대학교 조소과 대학원 졸업
- 1996 홍익대학교 조소과 졸업
- 개인전 6회
- 2020 기억의 필연성, 스페이스바, 서울
- 2018 도시인 (수성아트피아, 대구)
- 외 단체전, 기획전 다수
- 2000 야외 조각전 특선 외 수상 다수

방병상 | 사진

- 2002 홍익대학교 사진디자인전공 졸업
- 개인전 11회 (2012 막, 갤러리조선, 서울 / 2010 죽기에는 너무 젊은, 성곡미술관 외)
- 2019 공간기억, 김종욱 건축박물관, 안양, 경기도
- 2019 사진적 리얼리티, 상상마당 아트센터, 춘천, 강원도
- 단체전, 기획전 총 100여회
- 2010 내일의 작가상, 성곡미술관

박재연 | 조각

- 2000 전북대학교 미술교육과 조소전공 졸업
- 2005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석사 졸업
- 2015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박사 수료
- 개인전 4회
- 2020 The Art Power 2020, 양평미술관
- 2018 팔복예술공장 개관전, 팔복예술공장
- 2018 오늘의 여성미술전, 양평군립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80여회
- 2016 양평미술협회 청년작가상 외

박지수 | 서양화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 회화학과 졸업
- 개인전 3회
- 2020 유중아트센터x라이즈아트 경매 프리뷰
- 2020 Wind, Window, Women, 미국
- 2019 작은갤러리 초대전
- 단체전, 기획전 총 9회
- 2019 유중아트센터 신진작가 공모 선정작가, 장려상 외 수상 다수

박혜수 | 사진

- 2000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 1997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개인전 15회
- 2020 새일꾼 1948-2020(일민미술관, 서울)
- 2019 마음현상:나와 마주하기(부산현대미술관)
- 2019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금호미술관)
- 2019사라지지 않는 1 (태평동 빈집 일대)
- 2018 re:Sense (코리아나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57회 (2009년 이후)

방수연 | 서양화

- 2010 건국대학교 현대미술전공 졸업
- 개인전 4회
- 2019 “Harmony”-한중 교류전, 중국
- 2016 “지금, 바로 여기”, 그림슨 갤러리
- 2015 서울 문화 재단-“바람난 미술”
- 2015 “온고잉-Diplopia”, 오픈스페이스 배
- 2015 “아시아프- 히든 아티스트”
- 2015 서울 문화 재단-“바람난 미술”
- 단체전, 기획전 총 12회

배성미 | 조각

- 2009 수원대학교 대학원 조소전공 석사졸업
- 1995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개인전 5회
- 2020 일어나지도 않은 (오픈스페이스 배, 부산)
- 2019 INDEPENDENCE MOVEMENT: ONE SHINY DAY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New Delhi)
- 2019 1919년 3월 1일 날씨 맑음 (대구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70여회

백진기 | 조각

- 2012 이탈리아국립 카카리아카데미 조각전공 졸업
- 2017 서울시립대 일반대학원 환경조각과 졸업
- 개인전 6회, 부스개인전 5회
- 2020 11회 서울모던아트쇼 2020
- 2020 갤러리두기획전세상을비추는프리즘
- 2020 예술공간수애노339 개관3주년기획 “숨”
- 2020 화랑미술제2020 코엑스A1 빛갤러리
- 단체전, 기획전 총 75회
- 2019 춘천MBC 현대조각초대전 올해의작품상 외

서수경 | 서양화

- 200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2회
- 2020 나, 당신, 그리고 우리의 6월
- 2019 노화찬 1주기 추모전 (함께 꿈꾸는 세상)
- 2019리얼리즘전 - 독립운동100년 -
- 2019황해미술제, 부평공원
- 2019노동미술전, 울산문화예술회관
- 2018 매듭의 시작전, 3인 초대전
- 단체전, 기획전 총 30여회

선팍 | 사진

- 2015 동국대학원 박사과정 시각특수효과 전공 수료
- 2009년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원 사진과 졸업
- 2007년 시카고예술대 사진과 졸업
- 개인전 13회
- 2019 “도시에서 쉬다 (Healing City)”
- 2016 “제 8회 국제사진영상기획전”
- Photo Speaks 2016, 상명대학교, 한국
- 단체전, 기획전 총 15회

백승관 | 드로잉&판화

- 1997 홍익대학교 판화전공 동 대학원 졸
- 개인전 14회
- 2019 DMZ 평화순례 증전문화제 “봄의서곡”, 철원 노동당사
- 2019 International Art Festival 국제 현대미술제 평화-바람, 고성 통일전망대
- 2019 Free Draw전 서울 풍데자르 갤러리
- 단체전, 기획전 총 250여회
- 1994 대한민국미술대전 “우수상”수상 외 다수

서기환 | 한국화

- 1995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전공 졸업
- 2010 서울대학교대학원 동양화전공 석사 졸업
- 2019 서울대학교대학원 동양화전공 박사 졸업
- 개인전 23회
- 2019 Welcome to Our Camp Site,
- 2018 BLACK IN SIDE, 동탄아트스페이스
- 단체전, 기획전 총 160여회
- 2011 서울미술대상전 우수상
- 2005 제25회 대구미술대상전 우수상

성지연 | 사진

- 2008 파리8대학 (프랑스) 석사, 사진 전공
- 1998 아주대학교 (수원) 학사, 불어불문/영어영문 전공 졸업
- 개인전 8회
- 2019 자인, 동서양의 근현대 미인도
- 2019 인간극장 : 지하철, 우리, 일상의 언어들
- 2018 The Other Woman, 프랑스
- 단체전, 기획전 총 47회 (2015년 이하 생략)
- 2016 14 회 다음 작가상 외 수상 다수

소수빈 | 서양화

- 201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박사 졸업
- 2013 Paris 8 대학교 arts plastiques 석사
- 2011 Paris 8 대학교 arts plastiques 학사
- 200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석사
- 2007 동덕여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전공 학사
- 개인전 19회
- 2019 Homophones, Kim. So. Jang. LAB, Gierie Richard, Paris, FRANCE
- 단체전, 기획전 총 60회

백은하 | 서양화

- 2006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과 석사졸업
- 개인전 5회
- 2020 LOVE & RESPECT - 제7회 애(愛)경(敬) 공모전 , AK갤러리, 수원
- 2017 LOVE & RESPECT- 제4회 애(愛) 경(敬)작품공모선정, AK갤러리, 수원
- 2010 Project-C 갤러리 라메르,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8회
- 2005 41회 경기미술대전 입선 외 수상 다수

서소형 | 미디어아트

- 2010 파레네고등미술대학교, 석사, 학사 조형예술 전공, 졸업
- 개인전 5회
- 2019 The Stars Look Very Different Today, (Offraum8, 뒤셀도르프, 독일)
- 2019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9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8 철도인, (공간 구석으로부터, 대전)
- 단체전, 기획전 총 28회

성필하 | 서양화

- 2014 청주대학교 회화학과 졸업 (학사)
- 2016 청주대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석사)
- 개인전 2회
- 2019 유령 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9 수상한 아침,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8 브릿지 프로젝트_낮선 출발, 공간시은
- 2017 낯선 도착,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청주
- 2014 촉각미술전 eye&heart, 한국공예관
- 단체전, 기획전 총 7회

송지연 | 서양화

- 200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 회화전공 졸업
- 2007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11회
- 2020 Artists SpotLight Week, 선화랑,
- 2018 아트스테이지 싱가폴, 마리나베이샌즈
- 2018 마포마켓-화이트테이블, 마포중앙도서관
- 2018 제1회 Mumbai Biennale
- 단체전, 기획전 총 128회
- 제30회 대한민국미술대전 구상부문 우수상

송필 | 조각

- 2002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 전공 졸업
- 1997 경희대학교 미술교육학과 조소 전공 졸업
- 개인전 16회
- 2020 영은20주년 특별전, 영은미술관,
- 2019 경기 아카이브, 경기천년도큐페스타
- 2018 기억의 정원, 원주 한지문화제 특별전
- 2017 엽집예술, 남양주 작가 작업실
- 단체전, 기획전 총 110여회
- 2015 SEVEN-ONES AWARDS 대상 외

심정수 | 조각

- 1967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학사)
- 1982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석사)
- 개인전 9회
- 2019 현대공간회 야외조각전 (제주도 클라우드 호텔, 제주도)
- 2019 고양조각회 야외조각전 (스타필드 야외, 고양)
- 단체전, 기획전 총 117회
- 2019 제 33회 김세중조각분상 수상 외 다수

안준섭 | 서양화

- 200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졸
- 199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
- 개인전 11회
- 2020 2020 화랑미술제, 코엑스
- 2020 다, 다른 그림 전, 아트스페이스 에이치
- 2019 Total support 2019, 토탈미술관
- 2019 동강 현대작가 초대전, 영월문화예술회관
- 2019 화폭의 울림전 2, 용인 행정타운
- 외 단체전, 기획전 다수

양지훈 | 서양화

- 2014 Pratt Institute MFA painting & drawing 석사과정 수학
- 2012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BFA painting 졸업
- 2008 홍익대학교 영상영화전공 졸업
- 개인전 12회
- 2020 환상 표류기, h contemporary갤러리
- 단체전, 기획전 총 53회
- 2019 제55회 경기미술대전 입선 외 수상 다수

신동원 | 공예

- 2001 Cranbrook Academy of Art(MFA),
- 1998 홍익대학교 대학원 도예전공 졸업
- 199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도예과 졸업
- 개인전 20회
- 2019 “KIAF”, COEX, 서울
- 2019 “뚝뚝! 2019 새해보화 展”, 슈퍼리어 갤러리
- 단체전, 기획전 총 155회
- 2018 서울문화재단 전시 지원금 수상 외

안경진 | 조각

- 2010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대학원 졸업
- 2002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조소전공 졸업
- 개인전 10회
- 2020 플라스틱 플라스틱, 지누지움 미술관
- 2019 아시아 그리고 쌀, 전북 예술회관
- 2019 모서리의 안쪽, 아트스페이스 애니콜
- 2019 경계, 너머, 더 클라우드 호텔 제주
- 단체전, 기획전 총 100여회
- 2005 회롱미술대전 특선 외 수상 다수

양경렬 | 서양화

- 2018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와 졸업
- 2009 함부르크 국립 조형미술대학교 중퇴
- 2004 추계예술대학교 미술학부 서양화와 졸업
- 개인전 13회
- 2020 새일공, 일민 미술관, 서울
- 2020 세상의 모든 드로잉, 아티테인, 서울
- 2019 Charity Bazaar, 스페이스 K, 과천
- 단체전, 기획전 총 45여회
- 제18회 광주신세계 미술제 우수상 외 수상다수

양지희 | 서양화

- 2001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 200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와 석사
-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 전공 박사 졸업
- 개인전 7회
- 2019 And Painting (아정 미술관, 서울)
- 2019 봄들어 주는 시선 (아랜드 스페이스, 서울)
- 2019 풍경 (한전 아트센터, 서울)
- 2018 소망, 기억하다 (관훈갤러리, 서울)
- 외 단체전, 기획전 다수

신선주 | 서양화

- 2003 Pratt Institute, 예술대학원 M.F.A. Painting / Photography 복수전공 졸업
- 1997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예술대학원 M.F.A. Painting 전공 1학기
- 1995 동아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15회
- 2020 "수목의 확장" 비엔날레
- 2019 All you need is Love=ART전
- 단체전, 기획전 총 59회

안예환 | 한국화

- 1981 동덕여자대학교 동양화전공 졸업
- 1997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14회
- 2019 Asia Contemporary Art Show
- 2019 T.I.A.F (TOKYO, JAPAN)
- 2015 국제안산아트페어 (안산예술의 전당)
- 2011 A.A.F (Singapore)
- 2012 KIAF 2012 (코엑스)
- 단체전, 기획전 총 250여회

양유연 | 서양화

- 2010 성신여대 일반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 2008 성신여자대학교 미술학부 동양화와 졸업
- 개인전 6회
- 2020 하얀 어둠, 스페이스K, 과천
- 2020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5기 입주작가 결과보고전 The Wider : 廣넓을 광 德큰 덕
- 2019 단단한 불굴형, 북구예술창작소, 울산
- 2019 말그림자,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 단체전, 기획전 총 42회

양홍수 | 한국화

- 1995년 홍익대학교 동양화와 전공 졸업
- 개인전 10회
- 2019 경기 제2 청사 기획전
- 2019 경기 북부작가 어울림전
- 2019 PAMAF, 의정부 예술의 전당
- 2018 산책전, 비컷갤러리,서울
- 2018 음풍농월을 다시문다- 안상철미술관
- 2017 경기지방경찰청 MOU 특별전
- 단체전, 기획전 총 38회

오재우 | 서양화

- 200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 전공 졸업
- 2016 연세대학교 대학원 미디어아트 전공 수료
- 개인전 6회
- 2020 통의 7-33, 아트스페이스3, 서울
- 2019 광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9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 청주공예비엔날레 기획전
- 2019 거짓말, 서울대 미술관,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82회

유둘 | 한국화

- 2006 인천대학교 한국화 전공 졸업
- 2010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화 졸업
- 개인전 3회 (2018 Begin Again 전 , 2016 Adult, Grow! 전 , 2016 Chasing stars 갤러리 Go 외)
- 2019 한국미술협회 서울지회 전
- 2017 SIAE 국제 예술 박람회, 코엑스
- 단체전, 기획전 총 36회
- 2007 대한민국 신진작가 발언전 우수작가

윤선홍 | 한국화

- 개인전 11회
- 2020 인디전, 한전아트센터
- 2020 파트나작가전, 갤러리두
- 2019 서울아트쇼, 코엑스
- 2019 더코코스 아트페어, 울산
- 2019 블루아트페어, 해운대, 부산
- 2019 광주아트페어(김대중기념관-광주)
- 2019 작가들 이야기와 콜로보
- 2019 AHAF(그랜드 인터콘티넨털-서울)

이계월 | 서양화

- 1993 동의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학사 졸업
- 개인전 4회
- 2020 아트경기특별전-화랑미술제(상업화랑)
- 2019 아트경기'All about Love',
- 2019 아트경기'ART LIVING HOUSE'
- 2019 프랑스 루앙 해화귀국전, 해화아트센터
- 2018 유니콘아트페어Let's Make
- Together2018 '아트마이닝-서울' DDP
- 단체전, 기획전 총 7회

왕열 | 한국화

- 198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와졸업
- 1990-2003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
- 개인전 60회
- (2019 봄- 스르르 전, 한전아트센터 외)
- 2019 베이징 비엔날레, 중국미술관, 북경
- 2020 한국화 100년전, 울산문화회관
- 단체전, 기획전 총 530여회
- 1992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수상
- 2017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작가상

유지희 | 서양화

- 201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와 졸업
- 200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와 졸업
- 개인전 9회
- 2020 제 5회 박영작가 The Shift ; Seeing the unseen, 갤러리박영, 파주
- 2020 May be, 진산갤러리, 서울
- 2020 Wind, Window, Women, Artmora New Jersey, US
- 단체전, 기획전 총 36회

이경미 | 서양화

- 200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 2004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전공 졸업
-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전공 졸업
- 개인전 13회
- 2020 Brave New Gaze: 시각, 시선, 그리고 시작, 아뜰리에 아키, 서울
- 2020 W299 PROJECT, 갤러리 웅,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30회
- 2019 제24회 석주미술상 대상 외 수상 다수

이나영 | 한국화

- 2014 Kingston University, London, UK, Art&Space 석사 졸업
- 2010 경원(기천)대학교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2회
- 2018 3인 초대전, 그랑서울 갤러리 시선
- 2017 천변아트페어, 아티테인 스테이지
- 2016 돌보다, 가천대학교 비전타워 전시장
- 2015 제주아트페어, 셋뿔골 여관길
- 단체전, 기획전 총 5회

원정희 | 드로잉&판화

- 2003 성신여자대학교 판화전공 졸업
- 개인전 27회
- 2019 성산판화전, 성신대학교미술관
- 2019 판화협화전, 인사동 동덕갤러리
- 2018 판화하다 DO PRINT!, 한국현대판화 60년, 안산 경기도미술관
- 2015 성신여자대학교 개교 50주년 기념전
- 단체전, 기획전 총 300여회
- 2003 한국미협전 판화부문 입선 외 수상 다수

유혜경 | 한국화

- 2019 건국대학교 대학원 미술학박사 졸업
- 2010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 졸업
- 2008 건국대학교 회화학과 한국화전공 졸업
- 개인전 10회
- 2020 오픈갤러리 기획 - 상상을 봄展
- 2019 행복한 동행 - 거북이결음 (갤러리 H)
- 2019 가을빛을 물들다 (연석산 미술관, 전주)
- 2019 소망展 (운유 갤러리, 안양)
- 단체전, 기획전 총 81회

이경희 | 사진

- 2015 골드스미스대학교 순수미술 석사 졸업
- 2010 이화여자대학교 조소전공 석사 졸업
- 2004 이화여자대학교 조소전공 학사 졸업
- 개인전 4회
- 2019 의미있는 중얼거림, 갤러리예무, 서울
- 2019 Re:Start, 이화 아트파빌론, 서울
- 2019 홍콩 하버아트페어
- 2018 공존: my Lucy, 아트온 공,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32회

이미숙 | 서양화

- 1999 서울가기대 조형예술학부 회화전공 졸업
- 2002 서울가기대 대학원 조형예술학과 졸업
- 개인전 9회
- 2019 아트경기 'ALL ABOUT LOVE'
- 2019 아트경기 미술장터 'ART LIVING HOUSE'
- 2019 아트경기 팝아트갤러리X 국립암센터
- 2019 경기, 아트로 물들이다
- 2019 갤러리 너트 선정작가 특별전
- 단체전, 기획전 총 11회

이미진 | 공예

- 1994 원광대학교 물리학과 수료
- 2009 한국방송통신대 문화교양학과 졸업
- 개인전 3회
- 2018. 04, 05 한·중 도자 교류전
- 2016 프랑스 리모주市 초대전 (리모주의 한국 – Galerie des Hospices)
- 2016 꽃과 식물전 (인사동 – 오매갤러리)
- 단체전, 기획전 총 7회
- 2010 제3회 이천도자 Trend 공모전 동상 외

이봉임 | 드로잉&판화

- 1990 홍익대학교 디자인교육원 수료
- 1995 현대미술관 아카데미 판화전공 수료
- 개인전 3회
- 2019 ‘피카소에서 김환기까지’ 세계판화展
- 2018~2015 ‘The Woodcut’- 제4회~제7회울산국제목판화페스티벌
- 2011~2017 한·독국제교류展 'ChangeExchange'
- 단체전, 기획전 총 200여회

이상엽 | 서양화

- 2006 고신대학교 예술대학 회화 전공 졸업
- 2011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 전공 석사 졸업
- 개인전 9회
- 2020 Grid City 기획전 (LG 사이언 파크)
- 2020 Chrity + Premium on line Auction
- 2019 성남 문화재단 기획전 ‘집’
- 2019 7인전 초대전 ‘This World & The Next’
- 단체전, 기획전 총 78회
- 26회 한국 미술 국제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외

이언정 | 드로잉&판화

- 201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와 졸업
- 201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와 졸업
- 개인전 5회
- 2020 움푹 파이고 볼록 솟은, 갤러리 밈
- 에코토피아-Ecotopia展, 천안 예술의 전당
- 2019 해학의 풍경, 통인화랑
- 아카데미전, 인사아트갤러리
- 단체전, 기획전 총 70여회
- 2020 안국문화재단 AG신진작가대상 장려상 외

이민 | 서양화

- 1985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학사 (서양화전공)
- 1992 일본 다마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 (판화)
- 개인전 73회
- 2020 조형아트서울(PLAS), 코엑스, 서울
- 2019 제8회 서울아트쇼, 코엑스, 서울,
- 2019 온도로드,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
- 2019 어포더블아트페어(AAF), 호주
- 단체전, 기획전 총 80회
- 1992 동아미술제 입선 외 수상 다수

이부강 | 서양화

- 201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회화전공 졸
- 1991 경기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
- 개인전 8회
- 2019 ‘영혼이 통하는’ (갤러리 영통, 수원)
- 2019 이부강, 장필교 2인전 (갤러리 쿵, 서울),
- 2019 창작미협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19 FAY전 (양평문화원, 양평)
- 단체전, 기획전 총 50여회
- 2017 안견미술대전 대상 외 수상 다수

이수형 | 서양화

- 2016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전공 박사졸업
- 2004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양화학과 졸업
- 2001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학과 졸업
- 개인전 7회
- 2020 기억의 방식-공갤러리초대전
- 2019 장마: 비의 연대기-동강현대작가초대전
- 2018 서울아트쇼 (코엑스,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78회
- 2017 전국청년작가미술공모 우수상 외 수상다수

이운구 | 서양화

- 1988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및 1995 동 대학원 졸업
- 개인전 11회
- 2019 내포아트페스티벌 (사천시)
- 2018 경재 진경미술대전 초대 전
- 2017 국제 현대미술 전
- 2016 한·인 현대미술 교류전
- 단체전, 기획전 총 210여회
- 2010 제8회 경재정신미술대전 대상 외

이보람 | 서양화

- 201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공미술 졸업
- 2009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개인전 4회
- 2020 바깥미술 두물머리전 “순환의 땅 大地를 상상하다”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
- 2019 9회 국제조각페스타
- 제1막 아리아展 (Gallery Aria,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70회
- 2019 광화문아트포럼회장상

이상민 | 서양화

- 2003 홍익대학 대학원 회화전공 수료
-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4회
- 2018-2019 TO FLUTTER, 갤러리다함, 안산
- 2017 그섬에 홀리다, 서호미술관, 양평
- 2015 인간세편, 갤러리툰, 춘천
- 2014 한국 구상대제전, 예술의전당,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16회
- 2018 겸재진경미술대전, 특선

이시 | 조각

- 2015 경북대학교 미술학과 조소전공 졸업
- 개인전 2회
- 2020 봄을담다, 어울림 로드갤러리, 인천
- 2020 With 정의지&이시, 브라운핸즈, 동부산 프리미엄 롯데아울렛, 부산
- 2019 With 정의지&이시, PARNAS갤러리, PARNAS TOWER,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48회
- 2018 단원미술제 “단원미술상” 수상 외

이윤숙 | 조각

- 1983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1985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 개인전 17회
- 2019 경기아트프로젝트 시점시점
- 2019 국제조각페스타(예술의 전당)
- 2019 국제무경계프로젝트 온세미로
- 2019 수원화성을 가다(아트스페이스 광고)
- 단체전, 기획전 총 650여회
- 2011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외

이윤정 | 서양화

- 2000 수원대학교 서양화와 졸업 (학사)
- 2013 수원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 (석사)
- 개인전 6회
- 2020 서정아트센터 2인전 (서정아트센터)
- 2019 네이버 프로젝트 꽃 온스테이지 X
- 2019 브리즈아트페어 with 노들섬 (노들섬)
- 2019 갤러리 아우름 개관전part.2 "Come In_"
- 2019 아시아프 히든아티스트 페스티벌
- 단체전, 기획전 총 33회

이인경 | 한국화

- 1989 이화여대 조형학부 한국화전공 졸업
- 1992 이화여대 미술교육 전공 졸업
- 개인전 15회
- 2019 뉴런회 – 베를린 미술관 초대전
- 2019 AAA 성남아트센터
- 2019 뉴런 새해맞이전 – 2019행복 나눔전
- 2018 이카전 – 새하늘과 새땅 (밀알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160여회
- 2009 현대미술대전 장려상 외 수상 다수

이정민 | 드로잉&판화

- 2016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판화전공 졸업
- 2012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 졸업
- 개인전 2회
- 2020 조형아트서울(PLAS 2020), COEX
- 2019 GS건설 갤러리 시선 공모기획전
- 2019 Art Mora Group Show 'Spare Moment in Art', Spare Moment Coffee Roasters, USA 외 단체전, 기획전 다수
- 3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구상부문, 특선

이정희 | 한국화

- 2020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동양화전공 재학
- 2019추계예술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전공 졸업
- 2002 동아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중퇴
- 2020 <LOVE & RESPECT>, AK갤러리
- 2020 <붓다의 향기>, 동덕아트갤러리
- 2020 <NEW SENSE>, 도튼아트하우스
- 2019 <분류된 폐기코드>, 현대미술공간 C21
- 단체전, 기획전 총 20회
- 2018 안견사랑 미술대전 입선 외 수상 다수

이윤호 | 한국화

- 1980 홍익대학교 미술교육과 동양화 졸업
- 1990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화와 졸업
- 개인전 10회
- 2018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목포문예회관)
- 2015 경기팔경과 구곡 (경기도미술관)
- 2013 11인 평론가가 추천하는 <오늘의 진경 2013> (겸재정선기념관)
- 2009 국제현대미술제 (카바로브스크, 러시아)
- 단체전, 기획전 총 350회

이재명 | 서양화

- 200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200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5회
- 2019 One stepping stone, KSD갤러리
- 2019 16번의 태양과 69개의 눈, 금호미술관
- 2018 The next big movement, kimi gallery
- 2017 The great artist
- 2018 우리집은 어디인가?, 한가람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21회

이정용 | 서양화

- 2015 중앙대 일반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 2010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3회
- 2020 너에게 보내는 나전, 마루 아트센터
- 2019 8번가 송년전, 카페 8번가 갤러리
- 2019 아티스트 교류전 갈음과 다름, 고색뉴지엄
- 2019 청청전, 영통구청 갤러리
- 2019 An'C H Art Fair, 현대백화점 천호점
- 단체전, 기획전 총 27회

이준영 | 서양화

- 2015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원 회화와 졸업
- 2010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회화·판화 졸업
- 개인전 2회
- 2019 (에이원 신진작가초대전) 금보성아트센터
- 2016 <동강 현대 작가 초대전>, 동강, 영월
- 2013 <A1 '신진작가전'> 가나인사아트센터
- 2013 동방의 요괴 <트라이앵글 아트 페스티벌> 홍익대학교_현대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9회

이은 | 공예

- 2008 Cardiff Metropolitan University (UK) Art & Design, Ceramics 전공 졸업 [MA]
- 2005 이화여대 대학원 도자예술 전공 졸업
- 2001 이화여대 도자예술 전공 졸업 [BFA]
- 개인전 8회
- 2019 아사아 현대도예전
- 2019 한국현대도예 전통과 미래
- 단체전, 기획전 총 94회
- 제5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입선

이재욱 | 사진

- 2016 독일 브레멘 국립예술대학교 통합디자인[사진] 석사 졸업
- 2007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 학사
- 개인전 2회
- 2019 [광장: 미술과 사회]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 2019 [유령걸음] 경기창작센터, 안산
- 2019 [고스트 씨티] 플레이스막 연희, 서울
- 2019 [담양] 신세계백화점 갤러리, 광주
- 단체전, 기획전 총 25회

이정태 | 조각

- 2011 중앙대학교 조소학과 졸업 (학사)
- 2016 중앙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졸업 (석사)
- 개인전 6회
- 2020 The Art Power, 양평국립미술관
- 2020 생명 속의 인식처, 산지천갤러리, 제주
- 2019 제9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2019
- 2019 솔라 패널 아트 2019, 펑크하우스, 베를린, 독일
- 단체전, 기획전 총 53회

이지연 | 서양화

- 2008 이화여대 대학원 회화.판화전공 졸업
- 2003 이화여대 회화.판화전공 졸업
- 개인전 12회
- 2019 공간 속의 나, 예송미술관, 서울
- 2019 이 전시는 교훈이 없다, 현대미술회관
- 2019 색色, 빛과 어둠의 이중주, 인영갤러리
- 2019 진열된 풍경들, DMZ 캠프그리브스
- 2019 자유공간, 해남문화예술회관
- 단체전, 기획전 총 71회

이진용 | 한국화

- 198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2003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졸업
- 개인전 7회
- 2019 코리아아트 페스티벌 온사이트 개관기념초대전, 제천
- 2018 ART YOUR MUSE Korean Contemporary Arts Exhibition
- 단체전, 기획전 총 165회
- 제1회 코리아아트 페스티벌 특별상 외

이한정 | 한국화

- 2009 베이징 중앙미술학원 대학원 산수화과 졸
- 200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화과 졸업
- 개인전 10회
- 2020 ‘그곳’, 정수아트센터, 서울
- 2020 ‘다시, 봄’, 마루갤러리, 서울
- 2020 ‘시작’, 갤러리그림슨, 서울
- 2019 적응방산, 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인천
- 단체전, 기획전 총 61회

임선이 | 사진

- 2004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학과 졸업
- 2001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졸업
- 개인전 11회
- 2020 “원손의 움직임” (금천예술공장 PS333)
- 2020 모 “Edge” (스페이스 소, 서울)
- 2019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 트리포컬 액션
- 2019 결과보고전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 단체전, 기획전 총 100회
- 제1회 JCC프론티어 미술대상 “우수상” 외

임승천 | 조각

-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부 중퇴
- 개인전 5회
- 2019 동시대 이수전-‘바디스캔들’ 展
- 2019 아트경기 展 ,유니온아트페어
- 2019 예술하라 아트페어-예술편의점
- 2019 통일기원 현대조각 展
- 단체전, 기획전 총 64회
- 2014 구분주예술상 수상 외 다수

이진주 | 한국화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홍익대학원 미술대학 동양학과 졸업
- 개인전 9회
- 2020 댄싱퀸,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 2019 꽃아기는 이유 없이, 누크갤러리, 서울
- 2019 새 생활-이정배, 이진주, 백아트, 서울
- 2019 신소장품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단체전, 기획전 총 50여회
- 2019 광주화루 우수상 외 수상 다수

이현지 | 드로잉&판화

- 2010 건국대학교 현대미술전공 졸업
- 2018 건국대학교 대학원 현대미술전공 수료
- 개인전 3회 (2018 「오아시스, 유리, 벽돌」, 서울, 2015 「Bird’s garden」, 스페인 외)
- 2019 회귀본능, 경기창작센터, 경기, 한국
- 2018 BE-Hold, 빈집2가, 서울, 한국
- 2017 빈집프로젝트, 빈집1가, 서울, 한국
- 2015 세이프티 본트, 20/300, 서울, 한국
- 단체전, 기획전 총 13회

임소담 | 서양화

- 2009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5회
- 2020 Imaginary Conversation 그 상상의 대화, 누하스아틀리에, 서울
- 2020 사루비아다방 기금마련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다방, 서울
- 2019 소소오픈워크: ART TECH & MAKERS, 소소,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30여회

임정은 | 서양화

- 2019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 2010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영상영화과 졸업
- 개인전 3회
- 2020 Hyper Salon vol.2, 유아트스페이스
- 2019 Afterglow, 노블레스컬렉션 (3인전)
- 2019 “VISTART”, 비스타워커히호텔
- 2019 “Impart Awards Gala 2019”, Marina Bay Sands, 싱가포르
- 단체전, 기획전 총 16회

이채영 | 한국화

- 2010 덕성여대 대학원 동양화전공 졸업
- 2008 덕성여자대학교 동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6회
- 2019 New Acquisitions2018
- 2018 ART369, 아트플레이스, 서울
- 2018 Art & Design 2018 : The Scent of Wood展, 센텀시티 신세계갤러리, 부산
- 단체전, 기획전 총 42회
- 2016 퍼블릭아트 뉴하어로 대상 외 수상 다수

이혜성 | 서양화

- 2017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 2014 성균관대학교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5회
- 2019 감각수업, 소다미술관
- 2019 뉴 드로잉 프로젝트, 장욱진미술관
- 2019 세모에서 풀잎까지, 신한갤러리광화문
- 2018 포트폴리오박람회 선정작가전
- 단체전, 기획전 총 50여회
- 2020 화랑미술제 특별전 ZOOM-IN 대상 외

임수식 | 사진

- 2004 중앙대학교 대학원 순수사진전공 졸업
- 2001 중앙대학교 사진학전공 졸업
- 개인전 16회
- 2018 Babel, 서학동사진관, 전주
- 2017 책가도-정물과초상, 한미사진미술관
- 2016 풍경3부작-Landscape of Desire, 갤러리밍,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59회
- 2014 1회 수림사진문학상

임철민 | 한국화

- 2014 홍익대학교 동양화학과 학사 졸업
- 개인전 2회
- 2020 〈LOVE&RESPECT – 애(愛)경(敬) 공모전〉, AK갤러리, 수원
- 2020 〈넙치는 수목 조류〉, 신 타이베이시 아트센터, 신 타이베이시, 대만
- 2019 〈목 · 비목 대 · 한 당대 수묵교류전〉, Aglow Art Space, 타이난, 대만
- 단체전, 기획전 총 17회

전명은 | 사진

- 2009 파리8대학교 예술대학 사진전공 졸업
- 2002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부 졸업
- 개인전 8회
- 2020 생각의 뒷모습, 휘슬, 서울
- 2020 몸짓을 따라가며 주변을 배화하고 중심에 다가서려는, 학교재정당, 서울
- 2019 머무르지 않는 사람의 노래
- 단체전, 기획전 총 40여회
- 2018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외 수상 다수

전은진 | 서양화

- 2014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 2010 홍익대학교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2회
- 2020 북구예술창작소 입주작가 소개전 we dooo! -소금나루 작은미술관, 울산
- 2019 인카네이션문화예술재단 고성 창작 스튜디오 입주작가전 -스퀘어루트, 고성
- 단체전, 기획전 총 14회
- 2013 제3회 SDU PRIZE 입선

정보영 | 서양화

- 2012 홍익대 대학원 미술학과 박사과정 졸업
- 1998 홍익대학교 대학원 회화와 졸업
- 1996 홍익대학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19회, 주요 2인전 7회
- 2019 정물화의 유혹, 무안군오승우 미술관
- 2018 그리하여 마음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 예술가의 명상법, 사비나 미술관,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100여회
- 2005 송은미술대상전 ‘미술상’

정인완 | 서양화

- 1989 한성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졸업
- 1997 독일 카셀미술대학 순수미술학과 졸업
- 2003 독일 카셀미술대학 순수미술학과 마이스터슐러 졸업
- 개인전 17회
- 2019 5 方展, 고도갤러리 기획, 서울
- 2019 Non's Top, Gohan-New Delhi전
- 2018 일산미술협회- ‘PUB & POP’
- 단체전, 기획전 총130여회

전미숙 | 사진

- 1988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1996 이화여대 대학원 디자인과 사진전공 졸업
- 개인전 3회
- 2019년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 “한국현대사진 운동 1988→1999”, 대구미술관
- 2012년 서울사진축제 “천개의 마을 천개의 기억”,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 2008년 한국현대사진 60년 1948-2008
- 단체전, 기획전 총 17회

전진경 | 한국화

- 199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전공 중퇴
- 개인전 4회
- 2020 우리와 당신들,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20 보고싶은 얼굴< 기억속의 노동자>, 전태일 기념관, 서울
- 2019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념전 바다는 가라앉지 않는다, 아트 스페이스 풀, 서울
- 2019 다시, 건너간다, 세종문화회관,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31회

정시영 | 서양화

- 199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 개인전 18회
- 2019 데코르스국제아트페어
- 2019 데코르스국제아트페어(롯데호텔.울산)
- 2019 안산 국제아트쇼
- 2019 아트 광주(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 2018 팻 서울 카하
- 단체전, 기획전 총 250여회
- 한국구상대전 우수상 외 수상 다수

정일순 | 서양화

- 2001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가족주거환경전공 이학석사 졸업
- 개인전 3회
- 2020 경주시채화협회 명품전 (갤러리 라포에)
- 2013~2020 경기 수채화 협회 정기전
- 2015~2019 수원미술협회 정기전
- 2015~2019 수원미술협회 한중 국제교류전
- 단체전, 기획전 총36회
- 2018 나혜식 미술대전 특선 외 수상 다수

전병구 | 서양화

- 2009 계원조형예술대학 매체예술과 졸업
- 2016 서울과학기술대 대학원 조형예술과 졸업
- 개인전 3회
- 2019 〈그린 그린 그림〉, 이유진 갤러리, 서울
- 2018 〈2018 플랫폼 아티스트〉,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2018 〈초상과 회화: 예술은 문제해결의 연속이다〉, 팍토리2,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30회

정미정 | 서양화

- 2014 첼시 예술대학교 회화와 석사, LONDON, UK, 졸업
- 2008 세종대학교 회화과(서양화) 학사 졸업
- 개인전 5회
- 2019 이노 아트스페이스, 소품전, Seoul
- 2018 IBK 기업은행 신진작가 공모대전, 기업은행 본사로비, Seoul
- 단체전, 기획전 총 19회
- 2018 IBK기업은행 신진작가 공모대전 최우수상 외

정은희 | 서양화

- 1990 숙명여자대학교 서양화전공 졸업
- 1993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17회
- 2020 문화거점 공간 전시, 그림이야기(일산)
- 2018 대구아트페어
- 2017 서울아트쇼
- 2017 자문제 개관기념전
- 2016 한국 여류화가 5인 초대전, 갤러리 한
- 단체전, 기획전 총 100여회

정재은 | 서양화

- 2007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과 졸업
- 개인전 10회
- 2012 포스코 기획초대전 city garden 숲
- 2011 포스코 기획초대전 바람과 물의 향연
- 2010 포스코 기획초대전 소통과 교감
- 2007 3인초대전 'Intersection'
- 2007 천태만상 상해전
- 단체전, 기획전 총45회
- 2005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 외 수상 다수

정재철 | 서양화

- 200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 전공 졸업
- 개인전 6회
- 2020 FROM BUNKER TO BUNKER’
- 2019 제4회 박영 작가공모전 '이상한 나라 파주'
- 2019 '동화', 4인 기획전
- 2018 '아름다운 여행전', 슈페리어 갤러리
- 2018 '대면대면' 4인 기획전
- 단체전, 기획전 총 20회
- 2013 제3회 JW 중외 Young Art Award, 특선

정창균 | 서양화

- 2015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박사 졸업
- 1999 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 졸업
- 1996 경희대학교 회화전공 미술학사 졸업
- 개인전 21회
- 2019 상상작 사각속으로, 양평군립미술관
- 2018 색, 존재를 깨우다, 아정미술관
- 2017 '이필동춘', 모건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500여회
- 2011 대한민국 미술인상, 청년작가상 수상 외

조해영 | 서양화

- 2008 D.N.S.E.P. 프랑스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졸업
- 2006 D.N.A.P. 프랑스 파리–세르지 국립고등미술학교 졸업
- 2004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졸업
- 개인전 10회
- 2019 바람이 지나간 자리, 광주시립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29회
- 2012 제1회 ETRO 미술대상 은상 외 수상 다수

주세균 | 조각

- 2020 중앙대학교 예술칸텐츠 전공 박사 수료
- 2011 국민대학교 입체미술 전공 석사 졸업
- 2009 국민대학교 입체미술 전공 학사 졸업
- 개인전 8회
- 2020 화이트 랩소디, 우란문화재단, 서울
- 2019 APMAP 2019– jeju islandders made, 오설록티뮤즘, 제주
- 단체전, 기획전 총 60회
- 2009 23회 경인미술대전 특선 외 수상 다수

정재호 | 서양화

- 1996 세종대학교 회화과 서양화 전공 졸업
- 1999 세종대 일반대학원 서양화화 전공 졸업
- 2002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대학원 페인팅 전공 졸업
- 개인전 14회
- 2019 문화 도시 재생 프로젝트–철암을 기억하자, 철암탄광 역사촌
- 2017 Sentimental scape, 영천 시안 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84회

조문희 | 사진

- 2003 서울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2009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 (신조형전공)
- 개인전 8회
- 2020 화랑미술제 아트경기 특별전 〈평평–팽팽〉, 코엑스
- 2019 아트경기, 에스팩토리, 경기상상캠퍼스, AK갤러리, 국립암센터
- 단체전, 기획전 총 53회
- 2018 서울예술재단 포트폴리오 박람회 입상 외

조현선 | 서양화

- 2010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대학원, 회화 드로잉전공 졸업
- 2005 San Francisco Art Institute 학부, 회화전공, 졸업
- 개인전 8회
- 2020 갤러리 퍼플 레지던시 4기 입주작가 초대전, 남양주
- 2019 전람회의 그림 재해석, 예술의 전당
- 단체전, 기획전 총 30여회

진기종 | 서양화

- 2005 가천 대학교 환경조각전공 졸업
- 개인전 10회
- 2020 검은해 아트센터 화이트 블록
- 2019 이미지:매혹의연금금, 단원미술관
- 2018 균열龜裂2, 국립현대미술관
- 2018 창원조각비엔날레
- 2017 균열, 국립현대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54회
- 2018 제8회 SINAP 신도리코 미술상 수상 외

정정엽 | 서양화

- 1985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개인전 18회
- 2019 광장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 2019 여성과 일–입김 (서울대학교 미술관)
- 2018 부드러운 권력 (청주시립미술관, 청주)
- 2018 핵몽2–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외 단체전, 기획전 다수
- 2018 제4회 고암 이응노 미술상

조병완 | 한국화

- 198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
- 1989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22회
- 2010 호모루덴스, 유희하는 인간전, 전북도립미술관
- 2006 한국의 미 – 오방색전, 남송미술관
- 2005 세계서예비엔날레, 소리문화의 전당
- 2001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 단체전, 기획전 총 200회

조현익 | 서양화

- 2007 세종대학교 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 2004 세종대학교 회화과 서양화 전공 졸업
- 개인전 12회
- 2020 어떤 가족의 기록, 광주신세계갤러리
- 2019 SIMA FARM, 수원시립미술관, 수원
- 2019 발신자 조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 2018 ON and OFF Christmas, 웅갤러리
- 단체전, 기획전 총 120여회
- 2005 제1회 경향미술대전 우수상 외 수상 다수

진영 | 한국화

- 2012 경희대학교 대학원 한국화전공 졸업
- 2008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한국화전공 졸업
- 개인전 9회
- 2020 GS 건설 갤러리 시선 공모기획展
- 2020 한국미술응원프로젝트展, 예술의전당
- 2020 Find Art, Find Me 갤러리써포먼트
- 2019 부산국제아트페어, 벅스코
- 단체전, 기획전 총 41회
- 2019 메세나대상전 삼천당제약 선정작가

진영근 | 서예

- 2002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서예학 전공 수료
- 개인전 23회
- 2020 연목회전 (전주소리문화의전당)
- 2020 현대한국서예 9인전 (한국미술관)
- 2019 김대중 대통령 10주기 특별초대전 (갤러리 미래)
- 2019년 8월 도쿄국제교류전 (도쿄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수백회 참가
- 1997 제4회 서예문화상 외 수상 다수

최선주 | 서양화

- 1998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 2002 홍익대 대학원 판화전공 석사 졸업
- 2010 홍익대 대학원 박사과정 회화과 입학
- 개인전 9회
- 2020 '봄이 일어나다'展, 수호갤러리, 성남
- 2020 'Bon Coeur With Soohoh' 展, 수호갤러리, 성남
- 단체전, 기획전 총 50여회
- 2000 경인미술대전 입상 외 수상 다수

최윤희 | 서양화

- 2014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학과 평면전공 전문사 졸업 (석사)
- 2010 경원대학교 회화과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3회
- 2019 <corners3:cave and garden>, 킵인터치서울, NOTFLAT),
- 2019 <FLAT,NOTFLAT>, 미메시스아트뮤지엄, 파주
- 단체전, 기획전 총 14회

최지현 | 한국화

- 2006 국립 강릉대학교 한국화 전공 졸업
- 2019 홍익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 개인전 8회
- 2020 FIND ME, FIND ART, 갤러리 써포먼트
- 2019 카니발 (아수랩, 서울)
- 2019 춘추회 (세종문화회관, 서울)
- 2019 브리즈아트페어 (노들섬, 서울)
- 2019 Refresh angle (갤러리 엘크, 서울)
- 외 단체전, 기획전 다수

차승언 | 공예

- 2010 시카고 예술대학교 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 2002 홍익대학교 대학원 직물디자인전공 졸업
- 1999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미술전공 졸업
- 개인전 10회
- 2020 모두의 소장품,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20 아트클라우드,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2019 Art Central 2019 PROJECTS, 홍콩
- 2019 국립현대 미술관 신소장품전, 과천
- 단체전, 기획전 총 60여회

최수진 | 서양화

- 2015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과 졸업
- 2010 중앙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개인전 5회
- 2020 'Imaginary Conversations', 누하스아틀리에, 서울, 한국
- 2019 '나는 나대로 혼자서 간다', 국립현대미술관청주관, 청주, 한국
- 단체전, 기획전 총 15회 이상
- 2012 중앙미술대전 대상

최재훈 | 조각

- 2003 경원대학교(가천대) 서양화전공 졸업
- 2006 경원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 개인전 3회
- 2019 문례창작예술제 come on common
- 2019 '302019808'展 ,성남아트센터
- 2019 'one+one' 展 ,군포문화예술회관
- 2006 'mediascape'展 ,헤이리
- 2011 Media–Archive Project
- 단체전, 기획전 총 31회

최혜경 | 서양화

- 2009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수료
- 2006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 개인전 2회
- 2019 생생화화 : 기능성의 기술,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고양,
- 2019 발신자 조회,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 2018 밤을 잊은 별, 청주미술창작스튜디오
- 2017 고무고무 – 열 여섯의 움직이는 기술
- 단체전, 기획전 총 14회

최경아 | 서양화

- 2019 단국대 대학원 미술학 박사 졸업
- 2012 프랫 인스티튜트 대학교 회화과 석사 졸업
- 2008 단국대학교 서양화과 학사 졸업
- 개인전 5회
- 2019 성남의 얼굴展: 집, 성남아트센터 큐브미술관, 성남
- 2019 화이트블럭 천안창작촌 입주작가전,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 단체전, 기획전 총 30회

최승애 | 조각

- 1985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조소전공 졸업
- 1988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소전공 졸업
- 개인전 27회
- 2012~2019 국제조각페스타 총 9회
- 2020 조형아트페어, 코엑스
- 2020 화랑미술제, 코엑스
- 2019 대구아트페어
- 2019 SKAF (롯데호텔아트페어)
- 단체전, 기획전 총 200여회

최정주 | 서양화

- 2008 추계예술대학교 서양화과 전공 졸업
- 개인전 2회
- 2020 '북아한동의 기호들' 합정지구, 서울
- 2015 '동종업계' 군산 여인숙, 군산
- 2015 '회화–세상을 향한 모든 창들" 블루메 미술관, 파주
- 2015 '두렵지만 황홀한' 하이트 컬렉션, 서울
- 2014 'crossing the border' 모아갤러리, 파주
- 단체전, 기획전 총 9회

최혜란 | 서양화

- 2016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회화전공 졸업
- 2012 수원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 개인전 10회
- 2020 'A1신진작가 공모 선정작가전', 금보성아트센터, 서울
- 2019 '한성백제 송파미술제', 예송미술관, 송파미술가협회,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66회
- 2012 제16회 나혜석미술대전 최우수상 외

최흥선 | 공예

- 1987 단국대학교 도예학부 도예전공 졸업
- 개인전 14회
- 2017 정조, 창경궁에 산다-담백淡泊
- 2017 실랑, 나를 간지럽히는 것들, 롯데갤러리
- 2016 서울 공예박람회, DDP, 서울
- 2015 白, White, 이도 갤러리, 서울
- 2014 공예, 공간에 스며들다
- 단체전, 기획전 총 50여회
- 2003 세계 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한칭 & 모나 | 사진

- 2015 영국 왕립예술대학교 조소전공 졸업
- 2012 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예술학과 졸업
- 개인전 4회
- 2020 Gilbert Bayes Awards, 글리제데일 갤러리 (Grizedale gallery), 컴보비아, 영국
- 2020 SSAIVAS Open, 왕립 스코티쉬 협회 (Royal Scotland Academy), 에든버러, 영국
- 2019 Gilbert Bayes Awards, 왕립 조각협회
- 단체전, 기획전 총 41회

홍이현숙 | 미디어아트

- 198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 전공 졸업
- 198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조각 전공 졸업
- 개인전 13회
- 2019 '왕복달리기', 다시은 체합실, 서울
- 2018 경기 천년 도큐페스타, 경기도미술관
- 2018 태화강 국제 설치미술제, 태화강 파크
- 2017 '티끌 하나의 우주', 문화비축기지 탱크1
- 2017 허부양생전, 미인도, 성북문화재단
- 단체전, 기획전 총 100여회

황연주 | 드로잉&판화

- 2013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 서양화전공 수료
- 2005 Brighton University (fine art) MA 졸업 (UK)
- 2000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서양화,판화 전공) 졸업
- 개인전 12회
- 2020 동시대 미술의 현장 - 우리와 당신들,
- 2020 아트클라우드 - 신소장품전
- 2019 빙빙, d/p, 서울
- 2019 공예실천, KDCF 갤러리,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69회

추경 | 서양화

- 1987 파리 1대학 미술사학과 박사과정
- 1985 파리 8대학 조형미술학과 석사 졸업
- 1971 부산 동아대학교 서양화 전공 졸업
- 개인전 21회
- 2020 “봇다의 향기” 동덕갤러리 (서울)
- 2019 “산천리 아트팜 프로젝트” (설미재미술관)
- 2018 “경기 동북주 4개도시 현대미술전 (양평 군립미술관)
- 단체전, 기획전 총 400여회

호상근 | 드로잉&판화

- 2009 한성대학교 미술학사 회화 심화전공 졸업
- 2012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양화 전공 졸업
- 개인전 4회
- 2020 <Solidarity Spores 연대의 흙씨>, ACC Creation, 광주
- 2020 <No Space, Just a Place, Eterotopia>, Daelim Museum, 서울
- 2020 <The Parallel Universes of Prufrock>, Rainbow Cube,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32회

홍진희 | 서양화

- 1986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섬유공예과 졸업
- 개인전 9회
- 2020 제38회 화랑미술제 (COEX/서울)
- 2019 아트 리빙하우스 아트페어
- 2019 아트경기x 유니온 아트페어
- 2019 제5회 DOUZ전 (이정아 갤러리/서울)
- 2018 제3회 아트경기/우리집 그림 한점
- 단체전, 기획전 총 24회
- 2013 로컬컬러NY 우수상 외 수상 다수

황혜인 | 사진

- 2018 중앙대학교 사진전공 졸업
- 개인전 1회 (2019 멸종도감)
- 2019 다중세계를 향해 작동하는 안테나,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파주
- 2019 리메이트 인 서울,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서울
- 2019 당신의 수원은 어디입니까, 수원
- 2018 Yongsan@Heart, 전쟁기념관, 서울
- 단체전, 기획전 총 12회

한진 | 드로잉&판화

- 2004~2014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학부 및 석사 졸업
- 개인전 6회
- 2019 용기와 시, 원앤제이 갤러리, 서울
- 2019 감각의 소용, 스페이스K, 과천
- 2018 Before Form, 갤러리 기체, 서울
- 2018 경기 아카이브 지금, 경기도미술관 특별전, 경기상상캠퍼스, 수원
- 단체전, 기획전 총 25회

홍기원 | 미디어아트

- 2009 Chelsea College of Art & Design 대학교 Fine Art 졸업
- 2006 Arts University Bournemouth 대학교 Foundation Fine Art 졸업
- 2020 수림미술상, 수림문화재단, 서울
- 2019 이상한 나라의 올빼미 집, 월곶예술공판장
- 2019 틱-톡 Tic-Tock, 온수공간, 서울
- 개인전 5회
- 단체전, 기획전 총 41회
- 2018 수림미술상 외 수상 다수

황경현 | 서양화

- 2014 목원대학교 기독교미술전공 졸업
- 개인전 8회
- 2019 <One Stepping Stone> KSD갤러리
- 2019 <Art Olympia 2019>, 도시마센터스퀘어_도쿄도미술관, 도쿄, 일본
- 2019 <Imageability : 혼성도시의 감각>, 스페이스 ADO, 인천
- 단체전, 기획전 총 31회
- 2019 제3회 국제오펜예술대회 전채부문 금상 외

경기도형 문화뉴딜
코로나19 예술백신프로젝트 <긴급작품구입>

경기미술 컬렉션 특별전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발 행 일 2021. 11. 30

총 괄 송창진(지역문화교육본부장)

책 입 김진희(지역문화실장)

운 영 유상호, 곽지호, 김혜진, 윤민혁, 석영은

큐레이터 전인미

주 최 경기도

주 관 경기문화재단

디 자 인 이룸

인 쇄 이룸

※이 인쇄물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이책에 게재된 모든 자료는 저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재 또는 복사를 금합니다.
※All rights are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in part or whole 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